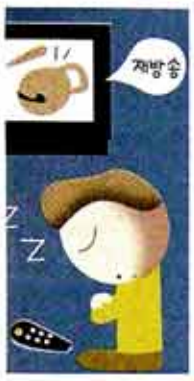
금주 법구
착한 벗이 좋기는 좋아도
바른 생각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기에 바른 생각을 가지고
마음을 지켜간다면,
온갖 악이 침범해 들어오지 못한다.
-불본행경-

현대불교

佛事 전념 30年
불교미술전시관
사찰불사의 모든 것
책임 상담해 드립니다.
02)733-4800 -http://www.Buddha.co.kr 신흥사 청동대불

대표전화 02-737-8881 구독문의 02-737-0090 www.buddhanews.com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4년(서기 2000년) 11월 29일 수요일(주간) 제 296 호

자기를 바로 봅시다



방송포교

위성방송시대 오건만 불교TV 정상화 '아직'

2001년 국내에도 디지털 위성방송시대가 활짝 열린다. 방송위원회가 18일 위성방송사업자 신청을 마감, 한달 이내에 사업자를 최종 선발할 방침이어서 이제 '방송혁명시대'가 눈앞에 다가왔다. 하지만 교계의 방송포교 현실은 어떤가. 위성방송은커녕 영상포교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불교TV도 제대로 정상화 시키지 못하고 있다.

불교TV를 시청하는 불자들 중에는 수없이 반복되는 프로그램 때문에 TV켜기가 지겹다고 불평하는 이도 있다. 물론 불교TV는 동양의학 강좌 등 7~8개의 프로그램을 신규제작하고 있다. 그러나 시청자들은 차별성 없는 편성과 비슷한 프로그램에 식상해 하고 있다.

광고수입 의존도가 재정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불교방송도 경제 사정이 나빠지면 광고 수입이 감소할지 모른다. 내년부터 바뀌는 방송광고제도 또한 불교방송 광고 수입의 변수로 작용돼 높은 광고료 의존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구책 마련이 시급하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프로그램 제작비에 충분한 예산이 편성되지 못하고 인력부족으로 인해 전파포교매체로서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현재 교계의 인터넷방송국은 6개 정도가 된다. 아직까지는 비교적 잘 운영되고 있지만 일부 몇 개 방송국은 인력부족과 재정 사정으로 인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업데이트 시키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현대사회에서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 대중매체인 방송은 많은 시간과 노력, 돈 등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방송매체를 제대로 포교에 이용한다면 빠른 시간내에 많은 사람들에게 불교를 알릴 수 있는 효과가 크다. 이런 방송포교의 중요성을 인식해 불자들을 비롯한 각 종단차원의 물질적·정신적인 지원과 함께 꾸준한 관심이 절실하다.

김주일 기자(jkim@buddhapia.com)

불교서적의 모든 것! 여시아문
국내최대 인터넷불교서점 여시아문닷컴
www.yosiamun.com
Tel:02)737-0695 Fax:02)737-0696

세계 첫 '디지털 한역대장경'

고려대장경硏 7년불사 '회향' … "한국불교 우수성 알리는 계기"

12월 6일 '고려대장경 2000' 발표-봉정식

팔만대장경(국보 제32호)이 디지털 대장경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고려대장경연구소(소장 종립)는 12월 6일 오후 2시 올림픽 렌싱경기장에서 '고려대장경2000 발표 및 봉정식'을 갖고 세계 첫 디지털 한역대장경인 '고려대장경 2000'을 선보인다.

2만여 후원불자의 원력이 담긴 '고려대장경 2000' CD롬은 영인본까지 포함된 전문가용(15장)과 용어사전과 해제를 담은 일반용(3장) 등 두 종류. 일자(一字)·용어·색인·목록 등 4종의 '검색'이 가능할 뿐 아니라, 1천514종의 경전을 해설한 '해제본'과 이체자 2만9천478자를 수록한 '이체자전' 등도 수록했다.

또한 1만여 개의 불교 용어를 해설해 놓은 '불교용어 사전'과 대장경의 이체자를 정자로 입력, 어떤 문서편집기로도 열람·편집할 수 있는 '유니코드 텍스트본' 등 다양한 활용 기능을 갖췄다.

이에 따라 '고려대장경 2000'은 누구나 손쉽게 고려대장경을 비교, 연구할 수 있는 토대뿐만 아니라 한국불교의 학문적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계기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 동안 고려대장경은 가장 정확한 판본으로 인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용의 편리성 때문에 일본의 신수대장경이나 대만의 불광대장경 등을 주요 텍스트로 선호해 왔다.

고려대장경측은 1간8천 질의 '고려대장경 2000'을 국·공립대학 도서관, 정부산하단체, 전국의 사찰과 강원, 후원 불자들에게 무료로 배포해 대장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킬 방침이다.

6일 열리는 봉정식에서는 백양사 방장 서옹 스님이 법어를 하고, 김대중 대통령과 조계종 종정 혜암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 스님, 달라이 라마의 축하 메시지가 발표된다. 또한 왕종근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축하행사에서는 김덕수 사물놀이, 장사익, 이미숙 무용단 등의 공연이 펼쳐진다. 이날 참석자에게는 일반용 '고려대장경 2000'이 무료 배포된다. 또한 12월 7일부터 9일까지 동국대에서 '불전전산화와 정보혁명시대의 불교'를 주제로 미국, 일본, 태국, 대만 학자들이 참가하는 고려대장경전산화 기념 국제학술회의도 열린다.

종립스님은 "2만여 후원불자 등 종단 안팎의 도움으로 고려대장경 2000을 완성할 수 있었다"며 "한글과 한문을 동시에 볼 수 있는 디지털 대장경을 만드는 데 노력한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16면>

오종욱 기자
(gobaocu@buddhapia.com)

태고종 19대 총무원장 종연스님 선출

53표중 27표 얻어



23일 순천 선암사에서 열린 태고종 제79회 정기중앙종회에서 종연스님(성주암 회주)이 종회의원 전원(53명)이 참석한 결선 투표에서 27표를 획득, 26표를 얻은 운산스님(재단법인 태고원 이사장)을 누르고 제19대 총무원장에 당선됐다.

이번 총무원장 선거에는 인곡스님, 운산스님, 종연스님 등 세 스님이 구두 추천받아 입후보, 첫 투표에서 운산스님이 24표, 종연스님이 19표, 인곡스님이 10표를 획득했다. 세 후보 중 누구도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해 2차 투표로 들어가 종연스님이 1표차로 총무원장에 선출됐다.

종연스님은 선출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공부하는 종단, 상구보리 하화중생하는 종단 종풍을 조성해 나가고, 화합하고 신뢰받는 행정으로 종도들이 종단을 믿고 따르도록 분위기를 쇄신시켜 종단의 발전을 이룩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뷰 및 해설 3면>

한편 이날 종회에서는 태고보우스님 탄신 700주년 사업, 남북불교교류 사업 등 2001년도 종단 사업계획과 예산 15억 6천500만원, 선암사 예산 6억1천600만원을 통과시켰다.

선암사=이경숙 기자
(gslee@budchapia.com)

불자님들이 내시는 구독료, 불국토의 밑거름
▶편리한 자동CI체를 이용하십시오(문의전화 02-737-0090)

불교여성개발원 '창립'

원장-이인자 교수 부원장-왕선자씨

불교여성개발원이 27일 조직체계와 사업계획을 발표하며 창립법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 여성불자들의 지위향상과 사회 참여 운동에 큰 몫을 할 것으로 보인다.

불교여성개발원은 창립법회에 앞서 18일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무실에서 이사회를 열고 당연직 이사장에는 조교원장 정련스님, 원장에 창립준비위원장을 맡았던 이인자교수(경기대), 부원장에 왕선자(부산여성불자회 회장)씨를 만장일치로 선임했다. <원장 인터뷰 4면>

불교여성개발원은 조계종단의 중진급 스님들과 재가불자들로 이뤄진 고문과 최고 의결기구인 이사회, 상임위원회와 상임위 산하에 연구·교육, 가정, 대외협력, 복지, 인권 등 5개 위원회, 특별자문위원회로 구성돼 있다.

불교여성개발원은 앞으로 △여성불교학 연구조사 △여성리더십 개발 교육 △조계사내 아동보육시설 설치 △여성불교 관련 자료집 발간 △홈페이지 구축 사업 등을 벌일 계획이다.

김주일 기자

WFB·WFBY 총회 태국 방콕서 12월 5일

WFB(세계불교도우의회) 제21차 총회와 WFBY(세계불교교우회청년회) 제12차 총회가 12월 5일부터 11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다.

WFB 창설 50주년을 맞아 WFB의 새로운 좌표와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주목받는 이번 대회에는 주최국인 태국 등 모두 50여 개국에서 3천여 명의 대표들이 참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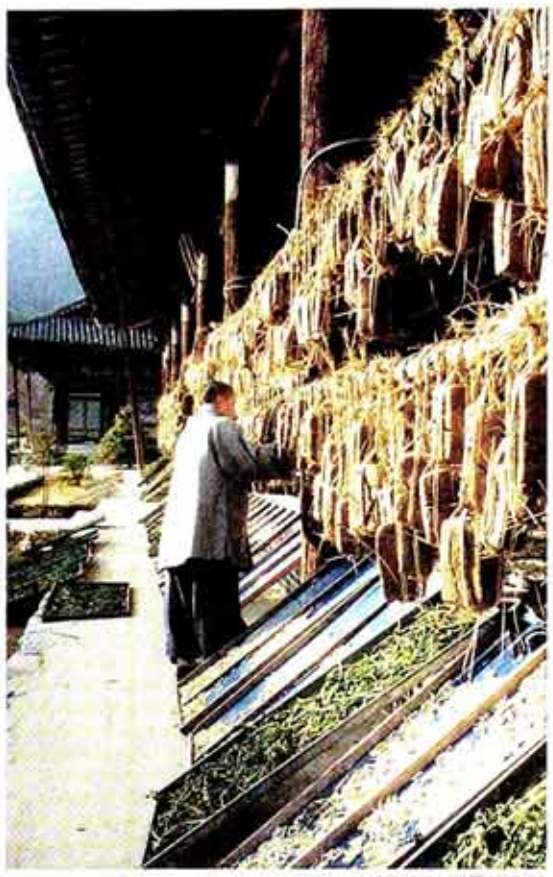
오종욱 기자

재산현황 자료 요청 조사특위, 동국학원에

조계종 중앙종회에서 구성한 동국학원 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세영)는 22일 종회사무처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열고 동국학원에 법인 재산 현황, 이사회 회의록(1997년도 1월~2000년 11월 현재), 임직원 임용 현황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또 종립학교관리위원회에도 종립학교관리위원회 활동 보고를 12월 4일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키로 했다.

동국학원특위는 자료 및 보고내용을 검토한 후 향후 계획 및 일정을 결정키로 하고, 2차 회의를 12월 12일 열기로 했다.

정성운 기자



가는 가을 오는 겨울 처마에 걸린 메주와 양지바른 곳에서 곱게 맛들어 가는 시래기와 무말랭이. 작은 것만으로도 부자가 된 듯한 마음의 풍요를 느끼게 하는 운문사의 겨울채비. <청도 운문사=고영배 기자>

제 6회 신행수기 공모

교계의 장경과 권위를 인정받으며 불자들을 실천수행의 장으로 이끌어내온 현대불교신문 신행수기 공모가 6회째를 맞습니다. 가슴에 담아두어 온 감동깊은 신행체험들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귀한 신행이야기는 많은 불자들의 삶에 귀감이 될 것입니다. 특히 이번부터 종회종 총무원장상이 추가돼 신행수기 공모의 의의를 더하고 있습니다.

푸짐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으며, 입상작은 현대불교신문 지면에 게재되오니 이번 공모에 불자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기대합니다.

원고지 30매…마감 12월16일

△주제: 생활속의 불교관련 체험,
불심으로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
△분량: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
△마감: 2000년 12월 16일
△당선작 발표: 2001년 1월 1일자 현대불교신문
△접수처: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02)722-8162
△시상내용
◇대상(금메상): 상장, 부상(순금 행운의 열쇠)
◇우수상(본사 사장상): 상장, 부상(순금 행운의 열쇠)
◇특별상
· 종단협의회장상: 상장, 부상(순금 행운의 열쇠)
· 현태종 총무원장상: 상장, 부상(순금 행운의 열쇠)
· 관음종 총무원장상: 상장, 부상(순금 행운의 열쇠)
· 총화종 총무원장상 : 상장, 부상(순금 행운의 열쇠)
·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상: 상장, 부상(순금 행운의 열쇠)
◇응모자 전원: 기념품 증정

중 앙 승 가 대 학 교
제 3대 총장 徐 宗 梵 스님 취임법회
귀의삼보하옵고,
부처님의 가피와 사부대중의 원력으로 중앙승가대학교는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금번 본 대학은 제3대 총장으로 불교학과 교수이신 서종범스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에 교계의 원로대덕 큰스님과 사부대중을 모시고 아래와 같이 취임법회를 봉행하고자 합니다.
공사다망하시더라도 두루 동참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고 아울러 우리대학이 미래의 한국불교
나란다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앙망합니다.
▣ 일 시 : 불기 2544년(2000) 12월 6일(음 11월 11일) 오전 11시
▣ 장 소 : 중앙승가대학교 정진관 대강당
▣ 문의전화 : 136-075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56번지
TEL (02) 925-5508 / FAX (02) 928-4302
中央僧伽大學校 제3대 총장 취임법회 준비위원회 합장

사 설

문화의 보고 디지털 대장경

온 국민의 성원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추진돼온 고려대장경 디지털화 사업이 마침내 그 웅장한 모습을 드러낸다. 목판 인경본 12장, 유니 코드 전환용 3장, 총 15장의 CD-Rom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이다. '도(道)가 한 뼘 자라면 마(魔)가 한 장 자란다'고 한다. 이 일을 이루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소장 종립스님을 비롯한 고려대장경연구소 식구들의 굳센 원력에 깊이 고개를 숙인다.

어떤 스님의 말씀대로 종립스님은 전생에서 대장경 판각 작업을 했는지 모른다.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국난을 이겨내고자 했던 고려인들의 합일된 염원이 고려대장경을 이뤄냈듯이, 고려대장경 디지털화 사업은 온 국민의 열화와 같은 성원 속에 진행되었다. 몇 년 전에 있었던 '21세기 디지털 팔만대장경을 만듭시다' 캠페인을 떠올리게 된다. 어린애의 코묻은 후원금에서 해외 교포들의 성금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에서 성원이 쇄도하지 않았던가! 이 행사를 통해서 우리는 고려대장경이 한국인의 문화적 자긍심을 지켜주는 정신적 보루임을 새삼 확인할 수 있었다.

고려대장경 디지털화 사업은 비단 불교계만의 불사(佛事)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적 사업임을 알 수 있었다. 이번에 출간되는 고려대장경 CD-Rom에는 이렇게, 불교도의 원력뿐만 아니라 남북 한민족의 문화적 염원이 알알이 새겨져 있는 것이다.

고려대장경 CD-Rom 발간을 통해 고려대장경 원형을 디지털 상태로 보존하는데 성공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고려대장경 CD-Rom 사업을 그동안 성원해 준 온 국민의 바탕을 볼 때 앞으로 남아있는 불사가 산적해 있음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다. 대표적인 보완점으로, 한글대장경과의 연계 작업, 일본의 대정신수대장경과의 대교 작업, 한문 표점 작업을 들 수 있겠다.

고려대장경연구소 측은 '통합대장경'의 기치 아래 기존의 빨리대장경, 산스크리트어 불전, 티베트 대장경을 연계하면서 이 모든 문제점을 극복해 나가겠다고 하니, 그 성공적 전도(前途)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다시 한번 고려대장경 CD-Rom 발간을 축하하며, 온 국민의 변치 않는 관심과 애정이 지속되기를 바란다.

불교여성개발원 향후 과제

불교여성개발원이 27일 마침내 그 힘찬 출발을 선언했다. 그리고 불교여성학 연구, 여성불자 교육, 가정 바로세우기 등의 사업계획도 제시했다. 양성평등의 사회를 이룩하며, 자연과 더불어 상생하는 세계를 구현한다는 불교여성개발원의 목적에 동의를 표한다. 당당하면서도 겸손한 여성불자 지도자를 양성하겠다는 말에서는 불교의 희망을 보는 듯하다.

여성불자들은 그동안 한국불교를 떠받치는 버팀목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 한국불교신도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물적인 토대를 맡아오기도 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치마불교'라는 곱지않은 이름으로 불리어왔던 것도 사실이다. 불교여성개발원이 창립취지문에서 지적했듯, 가부장적인 사회구조 속에 안주해왔던 결과다.

우리 불교사에 큰 사건으로 기록될 불교여성개발원의 창립에 즈음해 몇 가지 당부의 말을 전함으로써 축하를 대신한다.

우선 사업을 집행하기 위한 재원확보를 스스로의 힘으로 해내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교계 내의 여러 단체가 있지만, 재정자립도는 극히 낮다. 행사를 한번 치르기 위해서는 종단 등에 후원을 요청해야 하고, 임원진이나 몇몇 사람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이 현실이다. 수천명의 회원이 있다는 단체도 그러했다. 조계종 포교원의 지원이 있긴 하지만, 회원들의 회비 납부가 가장 이상적이다. 새로 출발하는 불교여성개발원은 재정면에 있어서도 교계의 모범을 창출하는 단체가 되길 바란다.

기존의 단체들과 조화로운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도 가벼이 여겨서는 안될 과제로 삼아야 한다. 때론 경쟁하면서, 때론 서로의 모자란 점을 메워주면서 불교여성운동의 지평을 넓히고, 나아가서는 한국불교 발전에 큰 보탬을 주는 불교운동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또한 남성들도 함께 할 수 있는 불교여성개발원이 되길 바란다. 남녀는 함께 수행하고, 부처를 이루어가야 할 도반이다. 여성운동 일부에서 한때 남성을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삼아 오히려 운동의 퇴보를 가져왔던 전철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직 전근대적이고 의타적인 일부 여성불자들의 의식을 일깨우는 교육에 힘써 수행하는 불자, 불교발전에 일조하는 여성불자를 양성하는데 주력하길 바란다.

"불사 관리위 설치 하자"

무분별한 개발따른 수행환경 훼손 방지

9개 불교단체 토론회

"신축 예정인 조계종 총무원 청사를 친환경적으로 건축하고 '사찰환경 의제 21'을 제정하는 등 불교계의 환경의식 제고를 위한 의식전환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조계사 회의실에서 지리산댐백지화를 위한 범불교연대 불교환경교육원 등 9개 불교단체가 공동주최한 '사찰의 환경문제를 생각한다' 주제의 불교시민단체 연석토론회에서는 사찰환경의 내부적 훼손과 그에 대한 성찰의 목소리가 쏟아졌고, 한국불교의 환경보호를 위한 역할도 모색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수도암 주지 법응스님은 "사찰 안팎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분별한 확장공사와 잘못된 원형복원으로 전통사찰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면서 "전통성이 부재한 마구잡이 불사를 방지하기 위한 종단산하의 불사관리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응스님은 "신축 예정인 총무원 청사를 친환경적으로 건축하고 사찰을 중심으로 한 백두대간 환경네트워크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등 불교환경운동의 실천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사찰불사의 환경개념 도입, 교구본사급 사찰의 환경관련 소임자의 배정, 관람료사찰의 전면적인 환경 재정비, 전국 사찰의 환경지도 제작 및 환경분쟁백서 발간 등을 제안했다.

이어 이병인 밀양산업대 교수는 "사찰환경 훼손에 대한 불교 내부적 성찰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불교 환경윤리의 정립 및 생활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사찰환경의 보전과 관리방안으로 △산주(山主)정신 및 전통적 수행방식의 회복 △사찰환경위원회의 내실화 △사찰환경기본계획 수립 △환경시설의 설치 및 관리 △유관기관·단체와의 협력·유대 강화 및 전문가 양성 △폐사지·유적지 등 문화재 현황 및 지표조사 등을 제시했다.



◇23일 열린 사찰환경관련 시민단체 연석회의는 교계의 환경의식 제고를 위한 의식전환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토론자로 참석한 지리산살리기범불교연대 집행위원장 현응스님은 "불사심의 관리·감독 제도의 도입이 내부적인 자체 정화의 의미에서 필요하다"고 말하고, "전반적인 환경의식 제고를 위한 출·재가 대상의 환경교육은 물론 불교 제단체가 참여하는 불교환경운동단체 결성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조계종 총무부장 원택스님은 "각계 전문가의 허심탄회한 의견을 종무회의에 적극 반영하겠다"면서 "주요 본·말사 및 관람료 징수 사찰을 대상으로 한 환경강의에 환경단체가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조계종사태 관련자 징계 낮춰

현호스님등 3명 제적에서 공권정지 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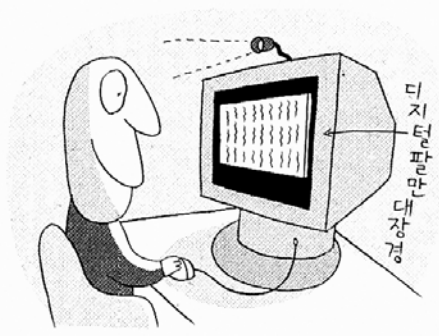
조계종 특별심사위원회(위원장 월서 호계위원장)는 22일 총무원 4층 회의실에서 6차 심사회를 열고 현호, 법일, 선광 스님 등 3명의 징계를 공권정지 10년으로 경감한다고 결정했다.

현호스님 등 3명의 스님은 98, 99년 조계종사태로 제적의 징계를 받았으며, 지난 해 10월 제정된 해종행위특별법에 따른 징계자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징계의 재심을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서 특별심사위원회는 열빈자에 대한 재심은 특별심사위원회의 심사 대상이 아니므로 심사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우, 성문, 현근, 원학, 현소 스님에 대한 심사는 진행하지 않았다.

회의에 앞서 총무원장 정대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합께 일할 수 있도록 선처해주기 바란다"며 징계의 경감을 요청했다. 또 "종헌 개정안은 내달 5일 열리는 중앙종회에 다시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성운 기자

현 대 만 평 박구원



부처님과 화상채팅

사고사찰 접수는 불법(?)

수원지검 "용화사 가택침입죄" 조사
조계종 "종교단체 인사권침해" 반발

종법에 따른 사고사찰 인수인계에 대해 검찰이 불법가택침입 등의 형법 적용을 주장하고 나서 조계종총무원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조계종총무원은 지난 해 4월 당시 용화사 주지 상덕스님이 안양 용화사 토지와 건물 전체를 불법매각하자 멸빈의 징계를 내리고, 배임 및 사기혐의로 상덕스님을 수원지검에 고소했다. 이 사건으로 상덕스님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총무원은 이어 지난 해 10월 용화사 주지로 덕문스님을 발령하고 검수인계(인수물품 등의 확인 절차)를 마쳤다.

그러자 전 주지 상덕스님이 덕문스님을 불법가택침입 및 공금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안양경찰서는 무혐의 의견을 붙여 검찰에 이송했으나, 수원지검 박모 검사가 덕문스님을 소환해 조사하고, 검수인계를 지휘했던 호법국장을 소환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계종은 이에 대해 총무원장 정대스님 명의로 16일 검찰총장과 수원지검장 앞으로 항의서한을 보내 "우리 종단의 고유한 운영과 체계를 무시하고 납득되지 않는 사회법 적용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며 우려의 뜻을 전했다.

조계종은 서한에서 "검수인계는 종단의 사찰주지에 대한 인사권을 실현시키는 방안으로 총무원법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검수인계를 불법으로 보는 것은 종교단체의 인사자율성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며, 국가사정기관이 종교단체 내부의 자율적인 행위에 개입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검 박모검사는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 검사의 의견을 언론에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조계종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조계종이 이 사건에 대해 총무원장 명의로 강력히 항의한 것은 이후 발생할 수도 있는 사고사찰에 대한 검수인계가 수사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성운 기자

승가대학원장 혜남스님



조계종 승가대학원장에 혜남스님이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은 17일 종립 승가대학원장에 혜남스님(중앙승가대 불전국역연구원장)을 임명하고, 12월 8일 은해사에서 열리는 추대식에서 위촉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신임 승가대학원장 혜남스님은 "승가대학원은 강사스님을 배출하는 곳인 만큼 강의보다는 논강과 토론 등을 통한 연구풍토를 조성하겠다"며 "가을학기제를 봄학기제로 바꾸고, 둔호를 개방하여 다양한 특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혜남스님은 63년 창녕 관룡사에서 출가, 67년 부산 대각사에서 월하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70년 고암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77년 대흥사 전강, 91년 해인사 강주, 92년 동국대 강사, 93년 법주사 강원 강주를 역임했다. 현재 중앙승가대 불전국역연구원 원장으로 재직중이다. 김원우 기자

"달라이라마 폄하발언 中대사에 주의 환기"
이정빈 외교통상 장관

이정빈 외교통상부 장관은 22일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새천년을 맞는 한미관계를 주제로 강연후 '달라이 라마 폄하발언'을 한 우다웨이 주한 중국대사에게 주의를 환기시켰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주한외교사절의 발언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외교관례상 적절치 않지만 우대사의 발언은 서울에 와있는 외교사절이 소속국의 이해관계를 증진시키고 입장을 밝히는 수준을 넘어선 것이라고 판단해 우리정부가 적절히 환기시켰다"면서 "정부는 달라이 라마 비자발급을 언제, 어떤 조건으로 하느냐의 문제를 한·중간 외교마찰을 최소화하는 시점으로 결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조계종 5일 임시종회
예산안 분담금등 다뤄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지하)는 내달 5일 149회 중앙종회를 5일 동안의 회기로 연다. 이번 종회에서는 불기 2545(2001)년도 중앙종무기관 예산안, 종헌과 분담금법 등 각종 종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종회 재정분과위(위원장 자승)는 22, 23일 총무원이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했다. 재정분과위는 내달 4일 본회의에 상정할 예산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성운 기자

한국불교태고종 제19대 총무원장
송종연 스님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전국종무원장협의회
종단사 발간 준비모임
전국교임협의회
백진결사
한국불교 청년회
총무원 임직원

한국불교태고종 태고회
전국 비구니회
보현도량
전국신도회
태고부인회
성주암 신도회

목어

개와 성보문화재

사람과 가장 가까운 동물은 뭐니뭐니 해도 강아지가 아닌가 싶다. 식구가 단출한 가정에서는 강아지도 가족의 일원이 된다. 특히 어린이에게는 더없는 친구가 되어 정서발달에도 한몫을 보탠다. 더러 털이 빠지거나 냄새를 풍기기도 하지만 조금만 손길을 주고 훈련을 시키면 그다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맛있는 먹이라도 줄 양이면 수없이 혀로 핥고 꼬리를 흔들어대는 품이 먹이를 먹기도 전에 그 먹이가 지닌 영양가를 모두 소진시키고도 남을 지경이다. 게다가 밤잠을 자지 않고 집을 지키는 충성심은 강아지를 사뭇 믿음직스럽게까지 한다.

요즘 사찰에서도 개를 키우는 곳이 많아졌다. 예전에는 사찰에서 개를 키우는 것을 금기시해 왔었다. 동물들의 소리나 냄새가 사찰의 고즈넉한 분위기와 걸맞지 않을 뿐더러 동물을 키우다 행여 죽게 되면 결국 살생을 방조한 것과 같은 셈이 된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태국의 사찰에서는 서성거리는 개들이 자주 눈에 띈다. 절에서 키우는 개들이 아니라 주인 없고 갈 곳 없는 개들이 먹이를 주는 절로 모이는 것이다. 달리 생각해보면 개들도 불쌍한 중생이다. 절에서 굳이 보살피기를 거부할 일이 아닌 듯하다.

얼마 전 호남의 한 사찰에서 성보문화재를 도난당했다. 다행스럽게도 범인을 잡아 성보문화재는 회수케 되었으나, 그 절의 주지스님은 적잖이 놀랐다. 키우던 개를 잃고만 것이 못내 가슴아팠다. 범인이 범행 며칠 전 절에서 키우던 개를 약을 놓아 죽였던 것이다. 절에 있는 많은 성보문화재가 돈이 된다는 사실이 성보문화재 도난 범들의 범행을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다. 예전에 스님들이 산의 나무를 지켜왔던 것처럼 지금은 성보문화재를 지키는 일이 보통 큰 일이 아니다.

사찰에 있던 수많은 성보문화재들이 제자리에 있지 않고 골동품점에, 부잣집이나 대학의 정원에, 호텔의 로비에 자리잡고 있는 것을 보면 안타까움을 이길 수 없다. 성보문화재를 사찰품으로 만들고, 남의 나라에 넘겨주고, 돈으로만 계산하는 우리가 정녕 문화민족이란 말인가.

이제 개라도 사찰에서 성보문화재 지킴이가 되어 주니 더없이 고마울 따름이다.

도수(정업도량 회주 · 본지 논설위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 · 편집인 : 김광삼
논설고문 : 고 은
인 쇄 인 : 김규석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 : 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 : 1개월 4천원 1년 4만원 영구 50만원

"공부하는 종단분위기 조성"

태고종 새 총무원장 종연스님

태고종 제19대 총무원장에 당선된 종연(宗演)스님(56)은 선출직후 종회의원들 앞에서 인사말을 통해 "1표차로 당선된 것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4년동안 물심양면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또 스님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천명했던 종무행정 개혁과 발전 방안, 교구종책 추진, 재정확보 방안들이 꼭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총무원장으로 선출된 직후 가진 일문일답.

-50대 총무원장은 태고종 사상 처음이다. 2차 투표까지 가서 1표차로 당선됐는데 소감을 말한다면.

▲어느 곳이나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과 시각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게 마련이다. 종단발전을 위해서는 모두 한마음이 되어 화합해야 한다. 나는 늘 흙처럼 살겠다고 생각해 왔다. 흙이란 것은 부드럽고 모든 의식주를 길러내는 원천이다. 위로는 종정스님, 승정스님, 대종사 종사 스님들을 잘 모시고 후학들을 잘 이끌어 화합된 종단을 만들어가는데 우선 순위를 둘 생각이다.

-태고종이 장기적인 침체에 빠져 개혁이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태고종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무엇보다도 공부하는 풍토가 조성돼야 한다. 그동안 태고종도들은 의식주에 주력해와 자신을 갈고 닦는 공부 분위기가 덜 돼 있었다. 수행자는 늘 상구보리 하화중생하는 자세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태고종립 동방불교대학의 정식 인가와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연수와 재교육으로 끊임없이 갈마해 나가야 한다.

"담당부장 책임제 도입"
"신뢰 쌓이면 재정 안정"

-태고종은 종단집행부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해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종도들로부터 신뢰를 얻으면 저절로 해결된다. 집행부는 착실한 종단운영으로 신뢰를 쌓아나가는게 급선무다. 앞으로 인선에 있어서도 참신하고 공심(公心)있는 인사를 발탁해 중용하며 담당부장 책임제를 도입, 각 부 부장들에게 권한과 책임을 많이 부여할 생각이다. 또 태고종을 운영해나가는 주체인 각 지방교구의 자율성을 극대화하고 특히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의 종무원이 모범을 보이도록 활성화해 나가겠다.



◇총무원장으로 선출된 직후인 24일 법륜사로 종정 덕암스님을 찾아 인사를 드리고 있는 종연스님(오른쪽).

-조계종과의 분규사찰 문제는 어떻게 풀 것인가.

▲불교분규는 타율적인 방법에 의한 정화라는 미명아래 종단밖에서 유발시킨 책임이 더욱 크다. 따라서 이제는 당사자 종단끼리 해결하기 보다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치적으로 결자해지 해야 된다. 따라서 '정화'라는 미명아래 불교재산관리법에 의해 불교가 부서졌으므로 종단신원(伸冤) 차원에서 '분규가 잘못됐다'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다.

-종단이 많은 일을 제대로 하려면 이를 뒷받침 해주는 재정확보가 급선무인데….

▲종단에 신뢰가 모이고 덕이 쌓이면 재정안정은 저절로 따라온다고 생각한다. 종도들의 중지를 모아 재정 개혁을 추진하고 재정에 대한 확보책이 마련될 때까지 본인이 화주를 할 생각이다.

종연스님은 이에 덧붙여 종단 위상확립과 홍보를 위해 현재 순간(旬刊)으로 발행되고 있는 기관지 〈한국불교〉를 곧 주간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종연스님은 1945년 충남 부여 生으로, 67년 법륜사에서 이남허스님을 은사로 득도했다. 67년 법륜사에서 용봉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수지했고, 74년 동국대학교 불교학과를 졸업했다. 75년 봉원사 금강계단에서 보살계 수지하고 80년 관악산 성주암 주지에 취임, 총무부장, 종무부장, 선암승가대학 부학장, 종정사서실장, 종회의원 등을 역임했다.

이경숙 기자 (gslee@buddhapia.com)

태고종과 50대 총무원장

'개혁' 공감대 확산

태고종도들의, 변화와 개혁을 갈망하는 원력들이 회오리바람이 되어 50대의 젊은(?) 총무원장 선출이라는 종단 사상 초유의 변화를 일으켰다. 전임 인곡스님과 역대 총무원장들의 세수는 60~70대가 대부분이었다. 교계는 이러한 세대교체가 침체와 답보상태에 있는 태고종을 쇄신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 종연스님은 보현도량을 주축으로 한 소장파 스님들에 의한 추대로 출마한, 비교적 새 인물이다. 태고종의 변화를 위해서는 종연스님과 같은, 참신하고 추진력이 강한 스님이 행정수반을 맡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젊은 스님들사이에서 팽배했다. "지방을 돌다보니 젊은 스님들 사이에서 태고종이 이래서는 안된다,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라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음을 곳곳에서 느낄 수가 있었다"는 보현도량의 한 스님의 토로는 태고종 젊은 스님들의 정서를 대변하고 있다.

'1표차 낙선' 운산스님
"결과승복 적극 협조"

종연스님은 이미 동년배급 부장들을 발탁, 담당부장 책임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추진력이 강하다는 평을 받고 있어 개혁지향적인 종책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 보수층의 도전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즈심스레 나오고 있다. 급격한 변화를 원하지 않는 보수층과 운산스님을 지지했던 일부 지방종무원장들을 어떻게 원만히 이끌어 종단행정에 적극 동참시키는가는 새 집행부가 풀어가야 할 숙제로 남았다. 그러나 운산스님이 선거직후 "선거결과에 승복한다. 종연스님이 종무를 잘 이끌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는 화합된 모습을 보여줘 앞날을 밝게하고 있다. 이경숙 기자

종단차원…가족법회 활성…문화공간으로

기획연재 신도시 포교

① 부처님 만나기 힘들어요
② 중산층 포교기점인데…
❸ 누가 어떻게 해야하나

지난 19일 경기 고양시 일산 신도시에 위치한 여래사(주지 정우) 대웅전. 관음재일을 맞아 600여명의 신도들이 법당을 가득 메웠다. 이날 법회에서는 다른 사찰과 달리 거사들과 자녀들이 많이 참석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이하의 자녀들이 부모들의 손을 잡고 가족법회에 나온 모습이 눈길을 끌었다.

지난 7월 2일, 착공 3년만에 문을 연 여래사는 이미 4,000여 세대의 신도를 확보, 일산의 신행요람으로서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와 문화공간으로 자리잡았다.

92년 종교부지 550평을 불하받아, 96년 허허벌관에 가건물을 짓고 법당을 마련한 후 4년만에 성공한 사찰로 자리매김한 성공비결은 신도시 조성시점에 발빠르게 대처한 것이 주효했다. 아울러 지상 5층, 지하 4층, 건평 3000평의 초대형 사찰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통도사와 구룡사의 재정적, 인적 지원이 큰 역할을 했다. 특히 청소년회관과 소극장, 시청각실, 인터넷방송국(예정) 등을 갖추고 지역사회를 위한 문화공간으로 개방, 시민들의 자연스런 관심을 유도한 것이 톡톡히 제몫을 했다.

이처럼 통도사 일산포교당인 여래사의 성공사례는 신도시 포교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되고 있다.

가족법회 활성화 신도시에는 30대 부부가 유치원~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중산층 가정이 많다. 일산 여래사처럼 일요법회에 가족이 함께 참여하거나, 탄현 원각사의 경우처럼 거사림법회가 신도회를 주도할 정도로 거사들의 법회 참석률도 높아 가족법회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신도시 포교당은 어린이법회 및 가족법회를 개최하면서 온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행사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아파트단지별로 구역법회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지식인층 포교 신도시 불자들의 또다른 특징은 초심자가 많고, 책을 통해 불교공부를 한 사람이 많다는 점이다. 따라서 불교에 대한 이들의 심적·지적 욕구를 채워주지 못하게 되면 그 다음주 법회 참여 인원이 격감할 정도여서 지식인층을 고려해 법문의 내용과 질을 준비해야 한다. 고승, 불교대학 교수와 유명인사를 초청해 합리적이고 수준 높은 법문을 할 경우 불사 참여율도 높아진다.

체계적인 불교교육 신도시 불자들은 교리적으로는 밝은 편이지만, 사찰 예절 등 신행에는 어두운 편이어서 기초적인 것부터 가르치는 데 어려움이 적지 않다. 때문에 초심자로부터 불교공부를 많이 한 거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층의 신행을 체계화하기 위한 (주·야간)불교대학이 필수적이다.

현재 7기까지 진행중인 여래사 불교대학의 경우처럼 불교대학(사찰예절 및 불교교리)-실천(자원봉사)과정-경전반 코스 등으로 나눠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주민 문화쉼터 신도시 사찰에 시민들이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사찰이 지역민을 위한 문화 쉼터가 돼야 한다. 꽃꽂이 사물놀이 서예 관소리 외국어 무용 연극 선무도강좌 등 일반인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문화프로그램을 갖추고 불교 음악공연, 전시회, 유적답사 등 문화 이벤트를 수시로 개최해 사찰이 친교의 공간이 되도록 한다. 이와 함께 결혼 및 장례식 공간도 제공해 경조사를 통한 자연스런 포교 효과도 극대화해야 한다.

상담활동 강화 지역민의 교육·가정·청소년문제 등을 상담하고 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구룡사의 진리의전화처럼 전화상담은 물론 인터넷을 통한 상담도 가능토록 해 상담 접근이 쉽도록 한다. 청소년법회 및 부설 유치원을 활성화해 맞벌이 부부가 많은 신도시 주민들의 고민을 해결하는 노력을 통해 지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종단의 포교원력 신도시 포교당의 이런 다양한 노력은 스님들의 용맹정진과 종단 내지 유력 사찰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송광사 일산포교당인 정혜사를 비롯 분당 장안사 및 연화사, 평촌 보림사, 중동 서래사 등 통도사의 10여개 신도시 포교당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교구본사급 유력사찰의 인적 물적 지원은 신도시 사찰의 성공요인임에 틀림없다.

이와 관련 조계종 포교원은 내년 초에 조계사 봉선사 용주사 등 교구본사가 참여하는 '수도권포교위원회'를 구성, 상반기내에 신도시 등 수도권 포교현황을 파악해 포교활성화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한명우 · 김재경 · 김주일 기자 (mwhan@buddhapia.com)

은사 응담스님의 다비를 모시고

제방의 원로 대덕스님을 위시로 한 사부대중께 송구한 마음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경진년 11월 14일(음 10월 19일) 원로의원이시며 은사이신 응담스님께서 세납 87세 법납 70세를 일기로 사바의 인연을 마감하시고 입적하셨습니다. 종단 원로의 위상에 따른 절차가 있음을 익히 잘 알고 있었지만 스님의 간곡한 유훈을 거역할 수 없어 경진년 11월 16일(음 10월 21일) 산중 안에서 조촐하게 다비를 모셨습니다. 저희들의 이러한 심정과 고충을 헤아려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스님께서 남기신 유훈과 자취를 간단하게 정리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일은 내가 알아 할 터이니 딴 생각하지 말라. 시주의 은혜를 입거나 신도와 상좌의 신세를 지고 싶지 않다. 내가 죽었을 때 사방에 알려 번거롭게 하지 말고 산중에서 조용하고 조촐하게 화장하여 흩어 버려라. 49제등 어떤 제사도 지내지 말라. 요즘 절 집의 다비가 너무 번거롭고 호화스러워 불조의 뜻을 저버리고 시주의 은혜를 망각한 짓이니 너희들이 내 상좌라면 내가 이야기한대로 반드시 지켜주기 바란다. 거듭 당부하니 소홀히 하지 말라." 스님의 한평생 살림살이는 본분 납자로서 매우 단순하고도 소박하셨습니다. 언제나 기쁜 마음으로 청빈한 삶을 즐기셨고 입적하시는 날까지 신도와 상좌의 시봉을 거절한 채 청소, 빨래 등 당신의 일상적 삶을 몸소 꾸려 가셨습니다.

스님께서는 그 동안 보시를 받으셨던 돈을 한 푼도 쓰지 않으시고 그대로 적금하셨다가 입적하시기 며칠 전 본사주지 법장 스님과 상좌 수경에게 부촉하시기를 이 돈은 소중한 시주의 돈이니 중생을 위하여 쓰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스님의 뜻을 너무나 잘 알고있는 저희들은 스님의 뜻에 따라 모아 놓으신 칠천만원을 생명살림의 불사인 '생명나눔실천 본부'에 이천만원, '인드라망 생명공동체' 이천만원, '사랑실은 교통봉사대(어린이 심장병 치료단체)' 천만원, '지리산 살리기 범불교연대'이천만원등을 기증하는 것이 조용하게 다비를 모시는 일이라 믿고 실천하였습니다.

저희들의 옹색한 처신으로 인하여 종단 원로 대덕스님을 위시로 한 사부대중께 큰 누를 끼치게 된 점 깊이 참회 드리며 스님의 뜻을 존중하고 따를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의 심정과 고충을 넓은 아량으로 헤아려 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해주신 종단 원로 대덕스님과 모든 사부 대중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고 상좌 수경외 문도 일동 합장

응담 대선사 다비를 마치고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인사를 올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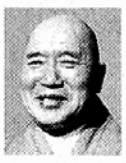
諸方의 元老大德스님을 위시한 四部大衆께 송구한 마음으로 우선 紙面을 通하여 人事를 올립니다.
지난 11월 14일(음 10월 19일) 宗團의 元老義員이시며 山中의 老德이신 應潭大禪師께서 入寂에 드셨습니다. 宗團의 元老會議 장의 절차가 있음을 익히 잘알고 있습니다만 禪師께서 남기신 간곡한 유훈을 거역할 수 없어 부득이 지난 11월 16일 (음 10월21일) 알려 드리지도 못한채 山中안에서 조촐하게 다비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禪師께서는 한평생 본분납자로써 매우 단순하고도 소박하셨으며 입적하시는 날까지 신도와 상좌의 시봉을 거절한채 손수 청소 빨래등 일상적 삶을 몸소 실천하면서 사셨습니다.
한날 갑자기 본사 주지인 저와 상좌인 수경수좌를 불러 유훈을 아래와 같이 남기셨습니다.
"내일은 내가 할터이니 절대 딴 생각 말라. 시주의 은혜를 입거나 신도와 상좌의 신세를 지고 싶지않다. 내가 죽거든 절대 부고하지 말고 산중에서 조촐하게 화장하여 흩어버려라. 49제 등 어떤 제사도 지내지 말라. 요즘 절집의 다비는 너무 번거롭고 호화스러워 불조의 뜻을 저버리고 시주의 은혜를 망각한 짓들이니 본사주지 법장스님이 내가 말한대로 반드시 지켜주기 바란다. 거듭 당부하오니 소홀히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간 보시받아 모아 두셨던 7000만원을 내 놓으시며 어렵고 고통받는 이웃이나 중생을 위해 쓰도록 하라고 당부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드라망생명공동체에 2천만원, 생명나눔실천회에 2천만원, 지리산살리기 범불교연대에 2천만원, 사랑실은교통봉사대(심장병어린이돕는단체)에 천만원 등으로 뜻을 받들어 드리는 것으로 대신하였습니다.

종단의 元老大德스님을 위시한 사부대중께 누를 끼치게 된점 깊이 참회드리며, 선사의 뜻을 존중하고 따를 수 밖에 없었던 본사 주지로서의 심정과 고충을 넓은 혜량으로 헤아려 주시옵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해와 용서를 빌면서 元老大德스님과 사부대중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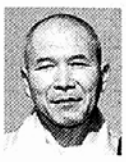
덕숭총림 수덕사 주지 金法長 합장

일주문



강릉 호국송학사 위문

정각 군불교 진흥회 회장은 19일 강릉 비행장 호국송학사를 방문해 염주와 단주 및 불서 등 위문품을 전달하고 군 장병들을 격려했다.



국난극복 방생법회

지명 법주사 주지는 28일 법주사에서 민족화합과 국난극복 및 통일호국청동미륵대불 개금불사의 원만성취를 기원하는 방생법회를 봉행했다.



청소년교육문화원장에

정각 부산 미륭사 주지(부산시민운동단체협의회 공동대표)는 16일 재단법인 청소년교육문화원 원장에 선임됐다.



조사전 신축상량법회

원행 두타산 삼화사 주지는 26일 자장율사, 범일국사, 탄허대종사 등 역대조사들의 영정을 봉안한 조사전 신축상량법회를 봉행했다.



실직자 심성수련회

법륜 한국JTS 이사장 스님은 22일부터 26일까지 문경 정토수련원에서 '실직자 심성수련, 나눔의 장' 행사를 개최했다.



광주사암련 새회장에

성호 광주 관음사 주지는 11일 무각사에서 열린 광주불교사암연합회 정기총회에서 제13대 연합회장으로 선출됐다.



독거노인 돕기 선서화전

묘각 순천 대각암 암주는 12월 5~11일 정각스님과 함께 창원 신세계백화점 아트홀에서 '독거노인 돕기' 선서화전을 갖는다.



'동아시아 불교문학' 학술회

임기중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장은 24일 동국대 다향관에서 '동아시아 불교문학 연구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학술회의를 열었다.

바로잡습니다 본지 295호 1면 '응담스님 원적' 기사중 불국사 주지 세민 스님을 해인사 주지로 고칩니다

또 1면 청년불자층 '흔들린다' 기사중 '한국대학생 불자연합회…'를 '한국대학생 불교연합회…'로, '171개 지회였던 것이 101개 지회로 감소했다'를 '현재 173개 지회가 등록돼 있다.'로, '서울지역 10여개 대학만이 월 1회 법회를 봉행하고 있다'를 '34개 이상의 지회에서 월 1회 이상 봉행하고 있다'로 바로잡습니다.

"여성불자 사회참여 유도"

불교여성개발원 초대 원장 이인자 교수



"중요한 시기에 어려운 중책을 맡게 돼 우선 걱정이 앞섭니다. 하지만 2년간 맡았던 창립준비위원장의 경험을 토대로 여성불교 연구와 교육 사업에 중점적으로 치중할 계획입니다."

27일 창립한 불교여성개발원의 초대 원장 이인자 교수(경기대)는 취임 소감을 이렇게 밝혔다. 현재 한국교수불자연합회 부회장이기도 한 이 원장은 여성불자들의 정체성 확립과 사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여성불교아카데미' 개설과 가정 상담 및 수련 프로그램 등을 운영 하겠다고 계획을 털어놨다.

"여성불교를 위한 문제점과 조직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도 막상 일을 추진하려면 마음을 내서 실행에 옮기는 여성불자들이 많질 않지요. 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것이 불교여성개발원이 해야할 가장 큰 역할 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원장이 불교여성개발원과 인연을 맺기 시작한 것은 99년 6월 창립 준비에 앞서 의견 수렴을 위해 봉은사에서 열린 워크숍에 참가하면서 부터다.

이날 회의에서 이 원장은 여성불자들의 체계적인 교리교육, 여성자도자 양성 필요 등 여성 불교의 발전을 위해 많은 의견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길 조직이 없음을 안타까워 했다. 그래서 창립 준비위원장직을 맡아 2년동안 기구조직과 사업계획 연구 등을 통해 준비 작업을 착실히 해왔다.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극진한 기도에 감화를 받아 불자가 됐다는 이 원장은 젊은 여성들이 마음놓고 법회나 사찰 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신행활동 시간동안 아이들을 잠시 맡길 수 있는 사찰내 탁아시설 설치 운동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년의 임기동안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복지, 인권, 대외협력 등 5개 조직위원회를 유기적으로 연계시킬 생각입니다. 또 타종교의 여성단체와도 활발히 교류해 여성불자들의 위상 강화를 위한 견고한 주춧돌을 쌓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원장은 자신에 찬 어조로 많은 여성불자들의 조언과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주일 기자(jkim@buddhapia.com)

"여성·소외계층 권익향상 노력"

불교여성회 초대회장 성법 스님



"부처님의 가르침에 입각해 여성의 자아실현, 남녀평등의 실현, 소외계층 문제의 극복을 위해 출·재가가 함께 하는 불교여성운동을 펼치겠습니다."

20일 불교인권위원회 창립 10주년을 맞아 '불교인권위 여성분과위원회'에서 독립, 새롭게 구성된 불교여성회의 초대회장에 선임된 성법 스님(전 청량사 주지)은 침체된 불교여성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내실있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10년전 불교인권위 창립과 함께 인권여성운동에 관심을 갖게 된 성법 스님은 불교계에 YWCA와 같은 영향력 있는 여성단체가 없다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던 중 불교인권위 진관스님의 권유로 불교여성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됐다.

조만간 서울 부산 김해 광주 등에 지회를 구성하겠다는 성법스님은 일회성의 보여주기식 행사를 지향하는 알찬 여성단체를 꾸려나가겠다고 말했다.

성법 스님은 앞으로 일본근위안부, 기지촌 및 직장내 성폭력, 가정 폭력, 농어촌·도시빈민, 여성근로자 탁아 등 여성·소외계층 문제를 비롯해 남녀고용평등 과 같은 사회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

65년 혜은스님을 은사로 득도한 성법스님은 서울 청량사에서 불우청소년들을 키워오면서 여성 및 청소년문제의 심각성을 몸으로 느껴왔다. 김재경 기자(jgkim@buddhapia.com)

"연기 가르침 바탕 친환경 교육"

실상사 '작은학교' 대표 이경재 교사



"실상사 작은학교는 생명의 존엄성을 자각하고 공존하는 삶의 방식을 가르치고 배우는 터전으로 가꾸고자 합니다."

내년 3월 개교하는 불교계 첫 대안학교인 실상사 '작은학교'의 대표교사 이경재(42·법명 향산) 선생은 "연기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자연친화적·자립적 정신을 배우는 생명살림학교,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창의력을 존중하며 성숙한 인격 갖춤의 터전이 되는 학교를 지향하겠다"고 학교 운영방침을 밝혔다.

이 대표 등 6명의 교사들은 이미 1년전부터 준비모임을 꾸려왔으며 6개월과정의 공동체 연수기간 동안 좌선과 명상, 공동체이론과 녹색사상 공부, 실상사 농장일에 함께 참여하면서 교사들의 역량과 자질을 갖추기 위해 노력했다.

비인가 과정의 대안 중학교인 '작은학교'는 중학교 3년과정의 일반교과 이외에 체험교과와 주제교과 과정을 둔 것이 특징이란 게 이 대표의 설명.

체험교과는 실상사 농장에서 농사일을 해보는 자치살림, 음식 만들기 등 기능익히기, 연극 풍물 태껸 기천문 등 특기 살리기, 봉사활동 공동체체험 역사문화기행 지리산종주 등 세상보기 과정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이 대표는 이런 다양한 교과과정도 재정 지원 없이는 실현이 어렵기에, 학교설립운영기금(3억원 예정) 확보에 불자들의 아정어린 관심을 당부했다.

20명 정원인 '작은학교'의 1차 서류전형은 12월5일까지. (063)636-3369 〈295호 2면 참조〉

김재경 기자

■ 사찰음식점 '다경' 낸 이여영씨

"건전한 식생활 기대"



"일반인들에게 사찰음식을 널리 보급시켜 건강한 몸과 맑은 정신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인사동에 사찰음식전문점 '다경(多慶)'을 낸 이여영씨(사찰음식연구소장). 30여년동안 사찰음식을 연구해온 이 소장은 서구화된 식생활로 인해 비만과 성인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을 우려해 사찰음식의 대중화에 발벗고 나섰다.

'다경'을 연지 두 달이 채 안됐지만 외국인들도 입소문을 듣고 많이 찾아온다고 자랑을 늘어 놓는 이 소장은 신선한 야채 등 좋은 요리 재료를 고르기 위해 남보다 일찍 일어나 매일 새벽 4시 경동시장으로 향한다.

"음식점 문을 열기 전에 항상 먼저 부처님께 좋은 음식을 만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올립니다. 음식점에서 남는 수익금의 일부로 고아원이나 양로원에 사찰음식을 보시할 계획입니다."

다경에서 이 소장은 주방에서 손수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서 버섯구이, 도토리묵 샐러드, 호박들깨 된장국, 버섯탕수이, 연꽃밥, 연자죽 등 30여가지의 다양한 무공해 요리들을 매일 바꿔가며 손님들에게 제공 하고 있다. 또 매주 목요일 오후 3시부터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사찰요리 강좌'도 열고 있으며, 12월말에는 사찰요리책도 출간할 예정이다. (02)725-5754

김주일 기자



부산종교인평화회의 통일세미나

부산종교인평화회의(공동대표 정각)는 17일 부산YMCA 대강당에서 '남북정상회담과 종교인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통일세미나를 개최했다.

상임대표 정영문 목사, 감사 월강스님 등 2백여명이 동참한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념과 지역 종교를 넘어 화합하자는 내용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선언문'을 채택했다.



정휴스님 전집 10권 출판기념회

조계종 종회의원 정휴 스님의 '전집 10권 출간 기념 출판기념회'가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 스님, 총무부장 원택 스님 등 2백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22일 한국일보 송현클럽에서 열렸다. 이날 정휴 스님은 인사말에서 "전집 출간이 불교문학 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재소자 100여명 대상 독경대회

한국불교교화복지선도회(이사장 혜철)는 17일 성동구치소 강당에서 재소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독경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11명의 재소자 불자가 결선에서 평소 갈고 닦은 불심을 펼쳐보였다. 한국불교교화복지선도회는 독경대회와 함께 불교의식집과 생활필수품을 성동구치소측에 전달했다.



부천 경찰서 순직경찰 위령제

부천경찰서 경승실(실장 성인)은 18일 경승법당에서 제10주기 순직경찰 위령제를 봉행했다. 산천 불국사 주지 보각스님 등 6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위령제에서 경승실장 성인 스님은 "나라를 지키다 순직한 경찰들의 넋을 위로하고 그들의 영혼이 부처님의 품 속에서 편안히 쉬길 발원하자"고 말했다.

제 30차 전국어린이 지도자 연수회

깨어있는 지도자 슬기로운 어린이

모시는 글

반갑습니다.
부처님 나라를 위해 힘찬 정진을 하고 계시는 지도자 여러분!
15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순수하게 어린이포교에만 앞장서온 본회가 제30차 전국어린이지도자연수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연수회는 30번째라는 큰 의미 속에서 지나온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고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대처하기 위해『깨어있는 지도자 슬기로운 어린이』라는 슬로건 아래 올바른 불자상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지도자들의 자질 향상과 신심고취를 위하여 친목 및 화합의 장을 마련하였으니 어린이포교를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함께 모여 새해 새날의 아침을 열어 가시기 바랍니다.

불기 2544년 11월 좋은 날

■ 총 재 : 정관 ■ 부총재 : 혜총 철오
■ 회 장 : 덕진 ■ 상임부회장 : 정여
■ 부회장 : 운성 원혜 해관 영조 심산 성형 인성
■ 감 사 : 지광 박창식

주최 : 대한불교조계종포교원
주관 :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언제 불기2544년 12월 30일(토) 오후 5시
~ 익년 1월 1일(월) 오전 11시(2박3일)

장소 속리산 유스타운(법주사)

- 참가대상 : 어린이 지도법사 및 교사, 어린이포교에 관심 있는 모든 분
- 동 참 금 : 1인 5만 5천원 (미리접수 5만원) 군종녕/도서벽지 지도자 3만원 (2박 6식, 연수회자료집, 2만원상당 도서, 기념품 지급)
- 신청방법 : 실명인 관계로 송금 후 전화 / 당일 접수도 가능
- 신청기간 : 11월 27일부터 12월 27일 까지
- 보내실곳 : 우체국 601310-0037877 예금주 - 대불어
- 접수담당 : 장수정
- 준 비 물 : 간편한 복장, 장갑, 세면도구, 필기구
- 접수문의 : 본회 사무국
  ☎ 051)808-4569, 4570 FAX 051)808-4571
  홈페이지 : www.sesag.or.kr
  e-mail : webmaster@sesag.or.kr

각 지역 문의처 〈차량 및 교통편 문의〉
- 서울·경기 : 02-433-1506, 7 / 유지선 사무국장(선재마을)
- 부 산 : 051-852-5414 / 부산지구 사무국
- 대구·경북 : 016-505-3143 / 김형중 사무국장
- 광 주 : 011-719-5550 / 정수보 사무국장
- 대전·충남 : 016-446-5955 / 김선형 사무국장
- 경 남 : 055-242-0108 / 천명숙 사무국장
- 제 주 : 016-691-4728 / 김봉현 사무국장

연수내용	강사
초등교육의 특성과 아동지도의 방향	허승희 (부산교육대 교육학과 교수)
우리지구 최고야!	
우리 법회 짱! 짱! 짱!	사례발표
어린이포교를 위한 발원법회	수계식 삼보일배
N세대를 위한 찬불가와 율동	풍경소리
필상성도의 교육적 재조명	박보리성(전 부산시 장학사)
천진불들과 함께 꾸며요!	천명숙(경남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강사)
선생님 이게 뭐죠?	김영란(청소년 성 문화센터 관장)
어린이법회 과학 탐방교실	조오근(부산 충렬고 물리교사)
GO.27C.COM!(새해를 맞이하며)	해원스님(한국참선체조수련선원장)
법회에 활용할 수 있는 선 체조	
불교 미술의 세계	박찬수(목아 불교박물관 관장)

직장법회보는 '불심 배달부'

'반야' '감로수' 등 10여종

설법·현장소식등 담아

회원확대·연대감 심어

법회 활성화에도 기여

성북승무사무소에 근무하는 정찬연씨는 매달 10일경이면 우편함을 기웃거린다. 철도청불자회 연합회보인 '법우회보'를 조금이라도 빨리 보기 위해서다. 스님의 법문은 물론 불자들이 갖춰야 할 지식과 다른 직장불자들은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기에 정씨는 '법우회보'를 보면 신심이 생긴다고 말한다.

한국전력불자연합회 총무를 맡고 있는 홍기성씨는 한전연합회보 '반야'를 받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빼놓지 않고 읽는다. 또한 '반야'지가 나오면 본사에 근무하는 불자들을 일일이 찾아가 회보를 전달하며 서로의 친목을 키운다.

최근 개별 직장 단체의 소식과 스님의 법문 등을 담은 〈직장법회보〉가 직장불자들사이에 좋은 반응을 얻고있다.

〈직장법회보〉는 직장직능 불교신행단체에서 열심히 정진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 개별 직장직능 불자회의 소식을 공유하여 연대감을 형성한다는 취지에서 지난 4월 처음 발간됐다. 회보는 '반야', '풍경소리', '법우회보', '밝은소식', '감로수' 등 각각 이름이 다르다. 그러나 각자의 활동소식과 함께 지상법문, 불자칼럼, 경전이야기, 신행수기, 직장직능법회를 찾아서, 건강상식 등 조계종 포교원이 제공하는 기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회보를 통해 자신들의 활동뿐만 아니라 다른 직장불자회의 활동까지도 한눈에 볼 수 있다. 운불련 박영조 회장은 "평소 책읽기를 싫어하지만 회보는 얇고 스님법문, 경전이야기 등이 재미있어 손에 들고 다니며 읽는다"며 "회보는 경전이나 다름없다"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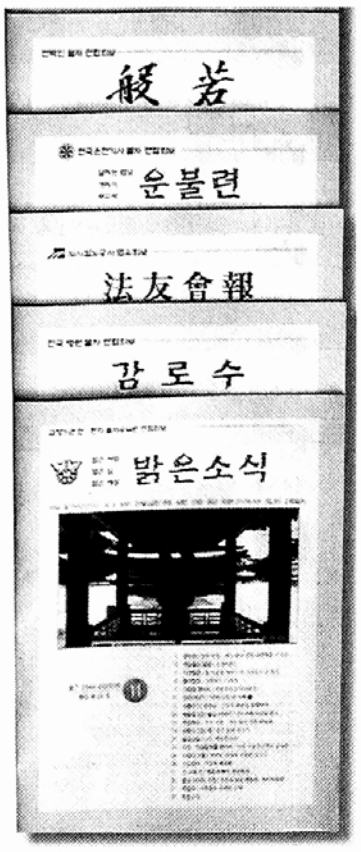
지난 6월부터 'KBS불교연구회보'를 발행하는 KBS불교연구회(회장 박영석)는 바쁜 업무로 법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회원들이 많았다. 그러나 매달 회원들에게 회보를 보내고 난 이후 불자회 명단에 이름만 올라와 있는 법우들이 다시 법회에 나오기 시작했고, 지난 5일에 실시한 가족야외성지순례 법회에 200여명이 참석하는 등 회보로 인해 법회가 생기를 띠기 시작했다.

대우종합기계 KAI불교법우회(회장 정진한)는 지난 14일 정기법회에서 회원들에게 처음으로 직장회보인 '풍경소리'를 배포했다. 법우회원들은 지난 달까지만 해도 A4용지 4장으로 된 회보를 받아보다가 이날 30장이 넘는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된 회보를 받고 매우 기뻐했다.

정진한 회장은 "회보가 회원들간의 유대감이 키워고 불자로서 자긍심을 키워주고 있다"며 "불교를 믿거나 관심을 가지는 직장동료들에게도 불교포교 효과도 크다"고 말했다.

현재 회보를 발행하는 단체는 전국연합회와 개별 직장불자회를 합해 모두 10곳으로 매월 6천부가 제작 배포된다. 아직까지 많은 단체들이 회보를 발행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포교원은 회보 발간이 어려운 개별단위 불자회를 위해 전국직장직능 연합회보인 '직장불교'를 발행해 전국 220여개 직장직능 신행단체들에게 배포하고 있다. 또한 개별 단체소식만 알려주면 단체가 요청하는 이름으로 회보발행을 대행해 준다. '직장불교'를 받아보는 보건복지부 불교신행회 총무 강인준씨는 "회보가 불자회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회원수도 늘리는 효과가 있어 불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돕고 있다"며 "앞으로 회원들의 의견을 모아 보건복지부만의 회보를 발간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두식 기자(doobi@buddhapia.com)



◇현재 발행되고 있는 회보들.


◇한나라당 불교신도회는 21일 조찬법회를 봉행하고 국가발전을 기원했다.

한나라당 국가발전 조찬법회

정련·운덕스님·이총재부부등 2백명 참석

'전사법' 개정 등 약속

한나라당 불교신도회(회장 함종한·이회창 총재 특보단장)는 21일 당사 10층 대강당에서 '국가발전을 위한 조찬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정련 조계종 포교원장, 운덕 천태종 총무원장, 도후 불교방송 이사장 등 10여명의 스님과 이회창 총재 부부, 하순봉 부총재, 김태호 한나라당 국회의원불자회장을 비롯해 불교신도회 회원 200여명이 참석했다.

97년 대선 이후 한나라당 불교신도회가 법회를 가지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독실한 천주교 신자인 이회창 총재 부부가 참석한 것을 두고 차기 대선을 겨냥한 불심잡기가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정련스님은 법문을 통해 "한나라당 불교신도회 회원들이 국민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아는 부처님의 보시를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법회 이후 스님들과 환담을 나눈 이회창 총재는 "앞으로 불교계 현안인 전통사찰보존법, 경내지 그린벨트 등 여러 가지 법적 문제를 개선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새천년민주당 김현미 부대변인은 22일 논평을 내고 "한나라당이 대선 캠페인의 일환으로 불심잡기에 들어간 것 같다"며 "성급하게 대통령 선거운동을 할 것이 아니라 국회에 들어와서 구조조정과 경제개혁에 힘을 합쳐 나라경제를 살리자"고 주장했다.

김두식 기자

우리모임에선

강남구청불심회 법흥사 참배

강남구청 불심회(회장 김경석)는 19일 사찰 순례법회를 다녀왔다. 30여명의 회원들은 이날 영월 법흥사에서 사시예불과 금강경을 독송한 후 원주 구룡사를 참배했다.

법륜 불자교수회 직지사 순례



법륜 불자교수회(회장 배동호)는 19일 직지사로 성지순례를 다녀왔다. 40여명의 회원과 가족들은 이날 직지사 성보박물관장 흥선스님으로부터 박물관 소장 문화재에 대한 소개와 100여점의 고승진영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사진〉

직지사 참배이후 회원들은 중암을 방문, 관응큰스님과 환담을 나누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석불문화硏 천안마애불 답사

한국석불문화연구회는 19일 충남 천안일대로 석불친견법회를 다녀왔다. 20여명이 회원들은 만일사, 성불사, 극락정사, 삼태산 마애불을 참배하며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삶을 살겠다고 서원했다.

대구운불련 창립14돌 법회

운불련 대구지역회(회장 김주본)은 23일 혜림원에서 창립14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대승원 설호스님, 운불련 박영조 회장 등 사부대중 80여명이 참석했다.

승만부인회 보문사 수련회

성북승무사무소 부부동반모임인 승만부인회는 강화 보문사에서 수련대회를 가졌다. 교대근무를 하는 기관사의 업무특성상 수련회는 22~23일, 23~24일로 각각 나누어 1박 2일씩 2회에 걸쳐 개최됐다. 30여명이 참석한 이날 수련대회는 입제식을 시작으로 석모도 일주, 정기총회, 1080배 정진, 낙가사 및 혜명산 등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게시판

알림

▲김장나누기=길음종합사회복지관 재가복지 봉사센터는 30일~12월 1일까지 복지관 1층 앞마당과 2층 로비에서 관내 무의탁 독거 어르신, 실직자, 저소득 가정, 장애인 가정을 위해 김장나누기 행사를 펼친다. (02)985-0161

▲보현의집 노숙자위한 일일찻집=시립 근로자 합숙소인 보현의 집은 실직 노숙자에게 힘과 용기를 주기위해 12월2일 일일찻집 행사를 펼친다. 장소는 영등포 명화극장 옆 '목씨네 오후'이며 정오부터 22시까지 영업한다. (02)78-4992

강좌

▲겨울불교학교를 위한 지도자 강습회=조계종 포교원 불교레크리에이션포교회는 12월 9일~10일 조계사에서 겨울불교학교를 위한 지도자 강습회를 개최한다. 이번 강습회에서는 노래, 춤, 만들기, 놀이 등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된다. (02)738-7860

▲무료 한문 교실=부산 경덕사 문화교실에서는 매주 토요일 2시~4시까지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료 한문교실을 운영한다. (051)746-6341

모집

▲유급 가정봉사원=송파재가노인복지센터는 송파지역의 무의탁 어르신들에게 말벗, 생활상담, 가정방문을 통한 가사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유급 가정봉사원을 모집한다. 20세이상 50세 미만의 여자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02)2203-3677

▲장애인 컴퓨터 교육 자원봉사자=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은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정보사용기술 향상과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해 실시하는 컴퓨터 교실의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02)989-4215

▲후원자 및 후원단체=무의탁 및 결식 어르신들에게 무료 중식제공 사업을 펼치고 있는 마포재가노인복지센터는 정기적인 후원자 및 후원단체를 모집한다. (02)365-3677

▲유급 자원봉사자=한솔종합사회복지관은 무료정보센터에서 근무할 유급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근무시간은 16시에서 20시까지이며 약간의 보수가 지급된다. (031)716-4215

청정심 살려 '깨침의 방송' 다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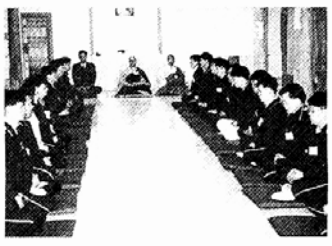
불교방송직원 산사수련

"일상에서의 걱정, 근심 등 속세에서 갖고온 모든 짐들을 잠시 벗어 버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0일 불교방송 직원 사찰수련회가 열리고 있는 백담사 설법전. 수련회에 참가한 24명의 직원들에게 지도법사 정외스님(천관사 주지)이 참선에 들기 전의 마음가짐에 대해 설명한다. 가부좌를 틀고 앉은 직원들은 무념무상에 빠져든다.

10월 6일부터 12월 7일까지 열리고 있는 불교방송의 이번 수련회는 산사체험을 통해 승가의 청정한 수행정신을 배워 불교방송인으로서의 확고한 정신자세를 확립하기 위해 개국이후 두 번째로 마련된 것.

입제식 후에 열린 특강을 통해 김규칠 사장은 "이곳에서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단기 출가했다는 마음으로 용맹정진을 한다면 다시 방송 현장으로 돌아가 신심있게 방송 포교에 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수련회 개최의 취지를 설명했다.



3박4일 일정으로 5차에 걸쳐 실시되고 있는 이번 수련회는 좌선 및 강의, 포행, 대승경전 공부, 방송발전 토론 및 특강, 1080배 철야정진 등의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마지막날 1080배 철야 정진시간에는 구슬땀을 흘려가며 한 명의 낙오생도 없이 전원이 1080배를 마치는 불심으로 법당안은 후끈 달아올랐다.

이번 수련회에 참가했던 박관우 보도국 기자는 "오랫만에 산사에 와서 정진을 하니 심신이 모두 맑아 지는 것 같아 좋았다"며 "이런 수련회가 매년 정례화 됐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백담사=김주일 기자

백고좌 백일 기도 대법회

불지명산 신어산 은하사에 나투신 金花(부처님꽃)를 봉축하기 위하여 여러 고승대덕 스님들을 모시고 백고좌 백일 기도법회를 봉행하고자 하오니 두루 동참하시어 불심이 충만하여지고 신심이 불퇴전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나이다.

※법회 동참후 金花(부처님꽃)를 친견할 수 있습니다.

■ 입 재 : 불기 2544년 11월 26일(음 11월 1일) 오전 10시(매주 일요일)
■ 장 소 : 김해 신어산 은하사 보제루
■ 법사스님 : 지유, 능가, 화엄, 고산, 덕명, 정관, 백운, 무진장, 벽파, 일미 홍교, 무비, 성오, 관조, 선래, 홍선, 통광, 지혜스님 등
■ 문 의 : (055)337-0101~5
※ 차량관계 : 매주 일요일 8시 30분 인제대 맞은편에서 은하사까지 차량 운행합니다.

♦ 찾아오시는 길
신어산 은하사 ← 가야랜드 방면 경부고속도로 동김해IC 인제대학교

신어산 은하사 주지 대성
신어산 은하사 사부대중일동 합장

김재일법사와 함께하는
알기쉬운 불교교리 강좌

본회에서는 불교를 처음 찾는 분이나 불교기본교리를 알기쉽게 공부할 제 12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 강의개요

1. 강의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시(겨울반)
2. 교육장소	동산법당(안국동 로타리)
3. 개강일시	2000년 12월 13일(수) 오후7시
4. 교 과 목	불교의 정의, 불교의 특징, 불교의 분류, 삼보설, 삼과설, 삼법인설, 연기설, 사제설, 수도론, 번뇌론, 반야심경, 불교상식 및 사찰예절
5. 지도법사	김재일 법사
6. 교 재	수강신청자에게 입학당일 제공 (불교의 기본교리, 교리노트)
7. 입 학 금	30,000원(반명함판 사진2매)
8. 지원자격	제한없음

※ 문의 : 사무국 ☎ 02)732-1206~8
FAX 02)732-1207
서울 종로구 견지동 13번지
http://www.dongsanbud.org

대한불교 조계종 동산반야회

송찬우 교수의
관무량수경 대강좌

무량광 무량수인 아미타부처님을 신행하는 정토행자를 양성하고자 전국염불만일회에서는 정토법사 3년과정의 제4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강의개요

1. 강의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2. 교육장소	동산교육회관(안국동로타리)
3. 입학일시	2000년 12월 7일 (목요일) 오후 7시
4. 교 과 목	연종집요 관무량수경 무량수경 아미타경 미타예참법 왕생론 인도정토사 중국정토사 한국정토사 반주삼매경 정토미술
5. 모집인원	정규반 30명 동산반 30명
6. 지원자격	불교를 적극 신행하고자 하는 자
7. 제출서류	입학원서1통, 주민등록등본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8. 원서교부	2000년 11월 12 - 12월 7일 입학금 (150,000원)

※ 특전사항
· 상기과정을 이수한자는 졸업장수여
· 졸업자는 소정의 고시를 거쳐 정토염불법사 수여

※ 문의 : 본대학 사무국
☎ 02)732-1215~17 FAX 02)732-1207
우)110-170 서울 종로구 견지동 13번지

전국염불만일회 아미타정토대학

이불봉사 10년…"믿음도 부풀어요"

신행현장 | 봉천동 소림선원 보현회 자비활동

"내 이불은 제일 이쁜 걸로 만들어 줘" 한 할머니가 솜이불을 바닥에 펼치려고 하는 임지오심(65 · 서울 봉천동)보살에게 재촉을 한다.

"알았어요, 옆에 와서 자꾸 보채지 말고 밖에 나가 노시고 계시면 이쁜 이불을 만들어 드릴께요."

임 보살이 할머니를 달래보지만 할머니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싱글벙글 웃기만 한 채 꼼짝도 하지 않는다.

16일 오전 9시. 82명의 의지할 데 없는 어려운 노인들이 모여 사는 성남 자광원. 10여명의 보살들이 바쁜 손놀림을 하고 있다. 후원자들이 보내온 솜이불을 어르신들이 사용하기 편하도록 개인 요와 이불로 다시 만들기 위해서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라며 금강신심을 자랑하는 보현회 회원들은 서울 봉천동 소림선원(주지 동진) 불자들. 이들은 매월 셋째 주 일요일이면 비가오나 눈이오나 10년간 어김없이 자광원에서 이불 손질 자원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보현회원들이 이불손질 자원봉사를 하게 된 것은 어르신들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해 이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기저귀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솜까지 젖으면 버릴 수밖에 없어 자광원에서도 이불 봉사가 제일 절실하다.

자원봉사자 가운데 유일한 거사인 백운익(49 · 서울대 교직원)씨. 솜이불을 방바닥에 깔고난 후 바늘귀에 실을 넣고 있다.

"남자가 무슨 이불 손질을 하냐구요? 재래식 솜이불이 무거워 이불 옮겨주고, 눈이 잘 안 보이는 보살을 위해 바늘귀에 실을 넣어 주고…,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백 거사의 환한 웃음 속에서 유마거사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진다.

백 거사에게 실뀐 바늘을 건네



◇소림선원 보현회 회원들이 자광원 할머니 할아버지를 위한 이불을 만들고 있다.

매월 셋째 일요일
100여명 자광원行
솜이불 손질 '구슬땀'

받은 민 관도심 보살은 한올한올 바느질을 시작한다. 71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남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게 기쁘다는 민 보살은 능숙하게 요와 이불을 만들어 낸다.

"솜을 뜯으면 재채기가 날 정도로 먼지도 많이 나고 하루 종일 앉아서 바느질을 하다보면 몸은 피곤하지요. 하지만 할머니들이 내가 만든 이불을 덮고 어린아이처럼 좋아하는 모습을 생각하면 피곤이 절로 사라져요" 민 보살은 이마에 송글송글 맺힌 땀을 닦는다.

한 할머니가 솜을 뜯고 있는 전정심사(61 · 서울 화곡동)보살 옆에서 물끄러미 가위질을 구경하고 있다. 전 보살은 잠시 가위를 놓고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엄마, 내가 만든 이불 덮고 자니까 좋아?" "응."

친딸처럼 대해주는 전보살의 따뜻한 마음 때문인지 할머니의 눈가에 어느새 눈물이 번진다. 전 보살은 웃음을 지으며 할머니를 잡은 손에 힘을 준다.

보현회 회원들은 봉사뿐만 아니라 신행활동도 열심이다. 매주 소림선원에 나가 일요법회를 보고 있으며 매달 8일 방생법회, 초하루 법회, 18일 지장법회에 꾸준히 나가 열심히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있다.

보현회장 최 심성화(55 · 서울 성수동)보살은 "회원들 가운데 직장인이 많아 일요일이면 쉬고 싶고 가정일도 해야할텐데도 절에 열심히 다니고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는 것을 보면 부처님이 따로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할머니 · 할아버지들이 우리를 필요로 할때까지 이불 봉사를 계속 하겠다"고 바늘 끝에 손보다 더 따뜻한 마음을 심는다.

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생활속의 불교 — '내것' 놓으면 찾아오는 행복

누구나 행복해지길 원한다. 누구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행복을 내것으로 만들려 한다. 심지어는 제 힘으로 벅차면 남의 힘을 빌려서라도 손에 넣기를 바란다.

그런데 웬일인지 행복은 쉽사리 손에 잡히질 않는다. 언제나 때이른 봄소식처럼 먼발치에서 가물거리는 경우가 더 많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원치 않는 손님처럼 고통과 불행이 불쑥 덮쳐들기도 한다.

때로는 꽉 잡았다 싶었던 행복이 어느 틈엔가 손가락 사이로 모래알 빠지듯 사라져 버리기도 한다. 어찌 보면 행복과 불행은 낮과 밤이 갈마드는 모습을 닮은 듯하다. 왜 그럴까?

언제나 행복감에 젖어 지낼 수는 없는 것일까? 늘 편안하고, 즐거운 삶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늘 안전하고, 풍족하고, 사랑이 가득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있다! 누구에게나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듯이 누구에게나 행복의 길은 열려 있다. 그렇다면 그 길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고통과 불행은 '탐진치' 즉 삼독심에서 비롯되고, 행복과 즐거움은 집착을 버리는 데서 시작된다고 하셨다. 결국 행 · 불행의 열쇠는 내 마음에 있다는 말씀이다.

'나'를 앞세우고 '내것'부터 챙기려 하면 행복 대신 불행이 밤도둑처럼 소리없이 찾아온다. 반면에 '나'를 죽이고 '내것'을 놓으면 행복은 봄기운처럼 나를 감싸안는다.

행복해지고 싶거든 받기 전에 먼저 주어라. 행복하지고 싶거든 남을 먼저 생각하라. 행복하지고 싶거든 나를 위해 만들지 말고 나눠주기 위해 만들어라. 행복해지고 싶거든 나를 위해 땀을 흘리지 말고 모두를 위해 땀 흘려라.

행복이란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라 '나'라는 개체의식이 사라질 때 다가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완전한 방하착은 완전한 행복이다. 가장 에서든 직장에서든 사회에서든 그것은 진리다. 부모와 자식, 상사와 부하 또는 애인 사이에서도 그렇다. '나'를 내려놓고 남의 무거운 짐을 들어 주는 것에서 행복은 시작된다. 그리고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마음 먹기에 따라서.

龍眼

주제가 있는 법문

생태적 삶의 출발선
'생명의 진실대로 사는 것'



도법스님
인드라망 공동체 대표

요즘 대안운동에 대한 관심들이 늘어나면서 새로운 인간, 새로운 삶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온 세월을 되짚어 보면 어느 한때도 대안운동을 안했던 적이 없습니다. 새로운 길, 대안을 붙잡고 마련한 결과가 바로 오늘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도 새로운 길,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특히 자연, 환경, 생태, 생명이 화두가 되는 시대인 오늘날,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환경 생태 생명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아니할 때 우리는 그 삶에 대해 불만족해 왔고, 그래서 고도의 경제사회를, 산업화된 거대 도시사회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을

진실은 무엇인가
끊임없는 자기성찰

찾는 것만이 마치 시대 구원의 길인 것처럼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갖고 있는 발상과 사고 이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삶에 대한 수많은 문제와 물음들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문제들은 모두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본질을 짚어서 보면 사실 하나의 물음입니다. 바로 '나는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나는 무엇인가, 세계는 무엇인가, 존재는 무엇인가 하는 물음으로 귀결됩니다. 이 물음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못 찾다 보니 온갖 물음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이 물음에 진지하지 않습니다.

존재의 진실에 대해 무지한 것이지요. 달리 표현하면 세계(존재)의 실상(진실)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무명이라고 하고, 〈반야심경〉에서는 전도몽상이라고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의 토대 없이는 어떤 것도 이뤄질 수 없습니다. 끝없는 생사고통의 윤회만 되풀이 할 뿐입니다. 진실은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 물음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기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성찰을 통하지 않고서는 진실에 눈뜰 수 없습니다. 진실에 눈뜨지 않고서는 진실에 맞는 길을 갈 수 없고, 진실에 맞는 길을 가지 않고서는 그 어떤 길도 길이 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나는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의 토대가 구축되면,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대답은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에 맞게 생명의 진실대로 사는 것이 바로 그 답입니다.

부처님의 탄생게에 이 두가지 내용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하늘위와 하늘 아래 나홀로 존귀하다)'은 생명의 진실(실상)에 대한 불교적 대답이며, 어떻게 살것인가에 대해서는 '삼계개고 아당안지'(삼계가 다 고통스러우니 내가 반드시 편안케 하리라)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어떻게 살것인가에 대한 불교적 응답은 자비롭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존재의 진실에 대한 눈뜸이 없는 한 자비행은 나올 수 없습니다. 존재의 진실에 일치하지 않는 행위는 아무리 선행이라 하더라도 깨달음을 자기완성을 실현하는 수행으로서의 자비행이 될 수 없습니다. 존재의 진실에 대해 무지하고, 진실의 정신에 대해 어긋난 상태에서는 고도의 경제성장, 고도의 기술성장, 고도의 지식사회라 하는 것들은 또다른 모순과 혼란을 가중시키는 도구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날 직면한 현실입니다. 성찰과 섬김의 문화를 통해서만 진실에 눈뜰 수 있습니다. 존재의 진실은 본래의 길입니다. 새로운 길이 아닙니다.

신행캘린더

11월 29일 (수)

■ 무적태풍부대 호국 석림사 낙성식=무적태풍부대 돌풍연대 군법당 호국 석림사는 오후 1시 도봉산 도선사 주지 광림스님을 모시고 부처님 점안 및 낙성법회를 봉행한다. (031)835-8184

■ 천태종 재가자 동안거 입제식=천태종은 저녁 10시 총본산 구인사 5층 법당에서 재가자들을 대상으로 동안거 입제식을 봉행한다. 동안거는 12월 29일까지 한달간 실시된다. (041)423-7100~8

11월 30일 (목)

■ 군승단 군승의날 기념법회=군승단은 오후 5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32주년 군승의 날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02)748-1728

■ 진주불교회관 불교음악 한마당=진주불교회관은 오후 7시 경남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불교대중화를 위한 제 7회 '불교음악 한마당'을 개최한다. (055)747-0108

■ 법륜종 창종 12주년 기념법회=한국불교법륜종은 오전 11시 충남 논산 지장암에서 창종 12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02)733-4445

12월 1일 (금)

■ 월정사 희찬대선사 추모기제=오대산 월정사는 오전 11시 제 17주기 만화당 희찬대선사 추모기제를 봉행한다. (033)332-6661~5

■ 봉림사 백고좌 법회=창원 봉림사는 오전 10시 30분 과계사 율원장 철우스님을 모시고 백고좌 법회를 봉행한다. (055)267-6336

12월 2일 (토)

■ 한국불교학회 국제불교학술발표대회=한국불교학회는 오전 9시 동국대 학술문화관 덕암세미나실에서 제34회 추계국제불교학술발표대회 및 2000년 정기 평의원총회를 개최한다. (02)2260-3121

■ 불교음악협회 '붓다' 공연=불교음악협회는 오후 7시 국립국장 해오름극장에서 사단법인 발족을 기념하는 국악 교성곡 '붓다'를 공연한다. (02)904-5763

■ 갓바위 철야정진=조계사 신도회는 오후 6시 팔공산 갓바위로 철야정진법회를 떠난다. (02)720-1390

■ 한전반야회 사찰순례법회=한전반야회는 오후 4시 서울 옥수동 미타사 정수암에서 사찰순례법회를 개최한다. (02)3456-5784

12월3일 (일)

■ 감사원불자회 성지순례=감사원 불자회는 여주 신륵사로 성지순례를 떠난다. 오전 8시 30분 서초구민회관 앞에서 출발한다. (02)721-9226 안홍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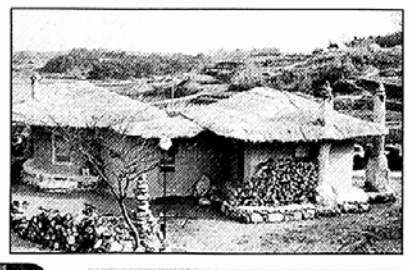
12월4일 (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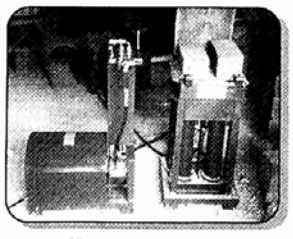
■ 동방불교대학 동방인의 밤=동방불교대학은 오후 5시 서울타워호텔에서 제 4회 동방인의방 행사를 개최한다. (02)763-0229

황토 흙벽돌 기계 실용신안 의장등록

▌건강, 장수주택 황토흙집에 희소식!!

황토를 물에 반죽하지 않고 생흙을 벽돌로 찍어 바로 건축이 가능한 흙벽돌기계를 생산 판매합니다.





▣ 황토 흙벽돌 기계장점
- 생산량 1일 600~1,000장
- 누구나 사용가능
- 벽돌기본규격 : 30×14×14
- 가정용 전기사용 및 엔진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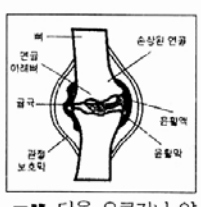
·모델 A : ₩3,800,000
B : ₩4,300,000

▶ 온라인구좌 (우체국) 400077-02-021769 봉송황토마을

황토관련 전문회사 황토마을에서는
◐ 황토 주택 토굴시공
◐ 토굴 현장 출장감독
◐ 황토흙집 동호인 모임운영

봉송황토마을 전북 남원시 운봉읍 장교리 929번지
전화 : 063)634-0223
팩스 : 063)34-1237

골다공증 관절염 류마티스
'물렀거라, 상어연골정제로 완전해방'
퇴행성 류마티스성 통풍성 관절염 자연추출미생물 이온화 '코랄샤크골드' 복용 1개월만에 확연한 회제만발



계단을 오르거나 약간의 활동만으로도 무릎이 쑤시고 저리는 경우(관절염) 관절이 벗뺏해지면서 심한 통증이 오는 경우(퇴행성 관절염), 여기저기 곳곳이 붓고 아프고 힘들며 물이 고이는 경우(류마티스성 관절염), 엄지발가락이나 팔꿈치가 붓고 움직이기 힘든 경우(통풍성 관절염). 이 모든 증상으로부터 완전해방될 수 있는 건강식품이 수입돼 화제다.

최근 뉴질랜드에서 수십년간에 걸친 연구결과끝에 개발된 '상어연골정제' 상어에서 추출된 특수갈슘과 마그네슘, 세레늄 등 기타 자연에서 추출된 미생물을 복합이온화하여 인체의 흡수율을 높여주는 원리로 이루어진 '상어연골정'은 닭아 없어지는 물렁뼈가 생성되고 골이 빈 곳에 인이 채워져 골다공증을 잡아주며 몸에 나쁜 물이나 균을 잡아 정상인으로 회복시키는 효과가 탁월해 세계적으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다.

코랄샤크골드는 불치의 병으로 여겨졌던 관절염, 류마티스, 통풍, 퇴행성 환자들에게 희소식으로 여겨지는 '상어연골정'은 국내 삼일양행(02-790-8200)에서 독점 시판하고 있으며 부작용 없이 1개월 복용부터 확실한 효과가 검증되고 있어 연일 주문이 쇄도하고 있다. 〈코랄샤크골드〉

한달분 22만원,
두달분 40만원

IMF다이어트 인기급등

만인들의 희소식. 최근 삼일양행에서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가격을 공장도 가격으로 인하하였고 또한 효과를 최대한 증대시킨 것이 바로 IMF 다이어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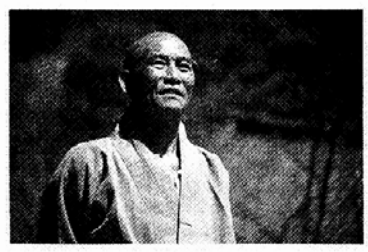
이 다이어트의 특징은 한방에서 추출된 특수성분이 함유되어 부작용없이 자연스럽게 몸에 흡수된다는 것. 현대인들의 운동부족과 영양섭취로 인하여 누적되는 지방분과 기존의 체지방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식전복용이 더욱 효과적이며 단기간 감소요법 보다는 꾸준히 몸에 무리가 가지않는 효과를 가지며 3-4개월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한다.

남성과 여성, 출가를 원하는 여성 출산후 오는 비만 등 많은 분들로부터 희망을 주는 다이어트로 거듭태어났다고 한다. 비만인들의 희소식은 틀림없으며 한방성분의 10여가지 조화가 균형을 잡는 비법이라고 한다. 삼일양행측은 IMF 졸업할 때까지 현재가격을 고수하겠다고 하여 화제가 되고 있다.

IMF다이어트
1개월분 88,000원
■ 문의 : 삼일양행
서울(02)790-8200

각종 성인병과 부인병에 탁월한 효력이 있는
약사여래원 거룡 범주스님의
선식 검정콩 '金단花화'





"왜 콩을 통째로 삼키느냐, 한번 보세요. 염소 배설물처럼 자그마하죠? 그런데 이게 항문을 통해 나오는 것을 보면, 4~5배 불어나 어른 손톱만큼 불어납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 분석해본 것은 아니지만, 위 대장 소장을 거치는 동안 각종 노폐물과 세균을 흡착하는 것 같아요. 내가 대변으로 배출된 콩을 씻어서 씹어보았더니 아이고! 소태보다 더 쓰더라니까"

지극정성 93일 인간의 건강이 금괘처럼 차곡차곡 쌓여 꽃처럼 만개하라는 범주스님의 소망이 담겨 지어진 검정콩의 이름이다. 선식콩 금단화를 만드는 방법은 스님의 비방으로 만든 액즙에 검정콩을 깨끗이 씻어 말린뒤 액즙에 20여일간 담그어 두었다가 꺼내어 10여일을 말린다. 이 과정을 거치는데 걸리는 시간은 한달. 이렇게 3번 반복해 검정콩 금단화가 완성되기까지 무려 93일이나 소요된다. 콩은 '속퍼랭이콩'이라 부르기도 하는 서리태콩을 사용한다. 이 모든 과정들이 정성을 다해야만 하는 고달픈 작업이지만 그 과정자체가 죽어가는 생명을 되살릴 수 있는 희망을 품게 한다는 신념때문에 힘든 줄 몰랐다고 범주 스님은 말했다.

"선식 검정콩은 특히 변비, 다이어트에는 빠른 효과를 보이며"
3개월 복용한 "분당"의 한 주부는 4kg이 빠지고
더부룩하던 증세가 1달만에 깨끗이 없어졌다고 자랑이 대단하다.
7월 29일 MBC TV 「고향은 지금」 오전 8시 30분 방영!
"꾸준한 금단화 복용은 어떤 병이라도 치유해 낼 수 있는 인체의 자생력을 길러 주어 병에 대한 면역력을 강화시켜 준다."

효능 당뇨병, 간장병, 부인과, 피부과, 변비, 치질, 다이어트용, 위장병, 정력, 장청소, 혈압, 치매, 관절염, 신경통, 혈액순환, 체질개선

◐ 상담문의 ☎ (02) 3437-8282 ◑



박태원 교수의 14

불교로 보는 인생

생각, 삶의 내용 채운다

국가 도박장 개설하곤 경제행위(?)라 강변

관상(觀相)은 심상(心相)이라던가. 얼굴 표정에는 그 때 그 때의 마음 상태가 반영되곤 한다. 좀처럼 마음의 변화나 상태를 표정에 실지 않는 사람도, 긴 시간을 두고 보면 그의 마음의 성향이나 개성이 표정에 담겨 나온다. 그런데 천변만화하는 마음 상태를 얼굴 모습으로 일일이 관독할 수는 없다. 수백, 수천 가지 마음을 각기 읽어낼 수 있는 표정들을 일일이 구분한다는 일은 불가능하다. 웃는 표정만으로는, 그 웃음이 사기꾼의 전술 표현인지 순수한 우애의 표현인지를 관가름하기 어렵다. 눈물 흘리는 모양만으로는, 감동 받고 있는 것인지 원통해 하는 것인지 분명치 않다. 그러나 인간은 같은 미소에서, 그 미소의 원천이 음흉함인지 아니면 자애로움인지를 판독해 낸다. 감동의 눈물인지 슬픔의 낙루인지를 정확하게 읽어낸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무엇이라 딱 부러지게 지적하기는 어렵지만, 상대편 생각의 내용이 어떤 형태로든 전달되기 때문이다. 눈빛의 미묘한 변화, 같은 표정이지만 순간 순간 얼핏 비치는 미세한 기운의 변화들, 모양이든 색깔이든 아니면 기운이든 간에, 그 어떤 변화의 기미들이 구체적인 느낌으로 전달된다. 특히 목소리까지 겹치면 느낌은 더욱 분명해진다. 그 느낌을 통해 우리는 한 표정에서도 수많은 마음과 생각들을 읽어내곤 한다.

어쨌거나 형상 없는 생각이 구체적인 형상에다가 그 작용과 흔적을 남긴다는 점이 주목된다.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생각이지만, 그 작용과 힘과 영향력은 명백하고 엄청나다. 생각의 힘과 작용을 기(氣)라는 언어로 설명하든 아니면 다른 언어로 설명하든 간에, 생각은 분명 몸과 사물에 구체적으로 작용하여 영향을 끼치고 있다. 좌파 이념의 정치적 열정이 불타 오르던 시기, 계급적 적개심이 흔히 정의와 양심을 대변하곤 할 때, 우리는 그 '타던 눈빛'을 생생하게 기억한다. 그 원천이 순수한 양심이요 정의감일지라도, 분노와 미움의 생각은 그의 눈빛을, 그의 관상을 바꾸어 버렸다.

살의를 품으면 살기가 몸에 배여 드러나고, 자비심을 품으면 그 온화한 기운이 표정을 바꾸고 눈빛을 변화시킨다. 생각은 그렇게 몸이 된다. 몸은 곧 삶이니, 생각이 삶의 속내용을 채우는 셈이다. 그리고 그렇게 몸과 삶이 되어버린 생각은 상대에게 전달되어 영향을 주고 그에 상응하는 반응을 이끌어 낸다. '관계(緣起)'인 이 세상의 내용물을 형성해 간다.

부처님이 해탈 수행법(팔정도)에서 '올바른 견해(正見)'에 이어 '올바른 생각(正思)'을 세운 뜻이 참으로 깊다. 인생과 세상을 보는 관점이나 견해가 무엇이냐에 따라 생각의 내용이 결정된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일단 내 본능과 욕심부터 채워야 성공한다는 인생관이라면, 그의 생각은 제어되지 않는 탐욕과 거침없는 공격의 기운을 가득 담는다. 그리고 그런 생각은 그의 몸이 되고, 삶이 되며, 사회 관계의 색깔을 형성한다. 한의학에서는 그 과도한 탐욕과 공격의 생각들이 어떻게 건강한 몸에 필요한 균형을 깨는지 잘 간파하고 있는 것 같다.

삶이란 사실상 순간 순간의 생각들의 총합인 셈이다. 지금 일으키는 생각 생각이 삶을 만들어 간다. 그러니 해탈된 삶을 이루려면, 해탈로 이어지는 생각들을 일으키려고 노력해야 하는 법. 지금 바로 이 순간, 그 생각의 물꼬를 해탈 쪽으로 터야 한다. 지금 일으키고 있는 생각이 지혜와 자비에 부응하는가를 살펴 그 쪽으로 옮겨 놓는 노력, 그것이 '올바른 생각(正思)' 수행의 요체라고 본다.

거금 걸고 도박판에 몰두할 때 일으키는 생각은 어떤 것일까. 들뜬 탐욕, 제동 걸 수 없는 이기심 따위로 채워진 생각들이라면 삶의 성숙과는 거리가 멀다. 체험으로 볼 때(나는 이미 초등학생 때 오곡이라는 도박성 게임에 몰두한 적이 있다), 도박판에서 발산되는 후끈한 생각은 허탈한 소모요 백해무익한 열정이다. 국가가 도박장을 개설해 놓고 당당한 경제 행위라며 강변한다. 자본주의 시장의 불가피한 비윤리성이란 말인가. 어떻게 합리화시킨들 생명 건강과 성숙의 길은 아니다. 비 내리는 겨울 어귀, 또 한 구석에서 우리는 그렇게 흔들리고 있다.

◙ 울산대 철학과 교수
(twpark@uou.ulsan.ac.kr)

참불자의 길 염불수행④ - 큰스님이 들려주는 염불이야기

보조스님〈1158~1210〉



극락세계 아미타불의 큰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열가지 염불수행을 해야한다.

그 첫째가 모든 악행을 버리고, 바른 몸가짐으로 하는 염불인 계신염불(戒身念佛)이다. 두 번째는 실없는 말, 속이는 말, 험한 말로 지은 업을 말끔히 없애고 입을 경계하여 마음을 다스리는 염불인 계구염불(戒口念佛)이며, 세번째가 욕심내고 화내는 어리석은 마음을 버리고 마음을 밝히는 계의염불(戒意念佛)이다. 네번째가 움직이고 오고 가는 한 틈 한 찰나에도 염불하는 동억염불(動憶念佛)이며, 움직이지 않고

"열가지 염불삼매의 힘 극락세계 이를 수 있다"

하는 정억염불(靜憶念佛)이 다섯번째다.

여섯번째는 일상사 속에서 수많은 말을 하면서도 안으로는 마음 흔들림 없이 행하는 어지염불(語持念佛)이며, 일곱번째가 말없이 하는 묵지염불(默持念佛)이다. 여덟번째는 부처님의 거룩한 모습을 그리는 관상염불(觀想念佛), 아홉번째는 염불하는 마음을 오로지하여 삼매의 경지로 향하는 무심염불(無心念佛)이며, 열번째는 부처님을 염하는 것으로 깨달음없이 까닫게 되는 진여염불(眞如念佛)이다.

몸이 맑고 깨끗하고 환희 밝지 않으면 열 가지 염불법을 오롯이 행할 수 없다. 마땅히 몸을 맑고 깨끗하게 한 뒤에야 진리의 온갖 보배들을 쌓고 모을 수 있으며, 계율의 거울을 환희 밝게 한 뒤에야 부처님 자비의 빛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청화스님〈성륜사 조실〉



염불은 부처님의 본원에 들어맞는 수행법일 뿐 아니라 삼세 모든 부처님들께서 한결같이 권장하는 수행법이기 때문에 다른 수행법에 비하여 불보살의 가피가 수승하다.

염불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특정한 방법으로 소리와 음률을 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지만 그 방법이 어떠한지 염불하는 그 자체로 이미 수행의 길에 접어 든 것이다. 소리를 내어도 좋고, 내지 않아도 좋으며,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언제 어디서나 좋다. 계행을 지켜서 염불하면 더욱 좋지만, 계행을 지키지 못하면 못한 대로 염불을

"염불 그 자체로 이미 수행 진여불성과 하나 되도록"

하면 된다. 장사할 때나 밥 먹을 때에도 항상 생각 념(念)자 부처 불(佛)자를 생각하면 되는 것이다.

부처님은 〈능엄경〉에서 "나는 일찍이 수행할 때에 염불로써 무생법인에 들었느니라"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염불은 진여자성을 여의지 않는 자성선(自性禪)이라고도 하고, 또한 모든 삼매의 왕이라 하여 보왕삼매(寶王三昧)라고도 하는 것이다.

일부에서 참선이 염불보다 수승한 수행법이라고 고집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마음을 하나로 통일시켜서 우주의 본 생명, 진여불성과 하나되는 것이 참선의 목적이듯이 염불 삼매도 결국 이와 같다. 산란스런 마음을 쉬어 우주의 본바탕인 진여불성과 하나되는 것이 염불의 목적이니, 기왕이면 가장 쉬운 방법인 염불을 통해 극락세계,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가 영원복락을 누리기 바란다.

설산스님〈정토사 주지〉



염불은 중생들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수행법 가운데 하나다. 경전을 보기 위해서는 한문을 공부해야 하고, 참선을 하기 위해서는 화두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염불은 오로지 '나무아미타불'이 여섯 자만 부르면 된다. 누구라도 쉽게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장소에 구애받지도 않는다. 〈아미타경〉에서 아미타부처님은 10만억 국토 밖에서 항상 설법을 하고 계시니, 아미타부처님을 염하면 항상 곁에 오신다고 하였다. 부처님과 항상 함께 있으니 그 자체가 바로 극락세계인 것이다.

누구나 "나무아미타불" 부처님의 가피 입는 인연

염불을 하면 수행의 가장 큰 장애중 하나인 수마를 능히 이겨낼 수 있다. 여러 신이 무섭지 않게 되고, 전파가 두루 퍼지듯 염불소리가 온 세상을 덮어 지옥, 아귀, 축생의 삼악도(三惡道)의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다. 제불(諸佛)이 환희하므로 큰 지혜를 얻어 왕생정토에 이르게 된다.

우주에는 언제나 모든 중생을 구제하는 부처님의 서원이 충만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아미타불이나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외우며 부르는 것은, 그것이 바로 부처님과 상통하고 부처님의 가피를 입게 되는 인연이 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염불은 진정한 자아로 돌아가는 성불의 계기가 되고, 또한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결정적인 선근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 부처님으로부터 베풀어지는 타력과 자기 수행의 자력이 어울려 감응하는 깊은 의의가 있는 것이다.

2000년 기획

禪과 21세기

연구 분담-결집 조화 선학 저변 확대

㊱ 선어록의 연구 (4)



송인성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연구교수 · 선어록언어

국내 선어록 언어 연구 현황을 전반적으로 살펴본다면, 관련 연구 수준은 최근에 와서 비록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이웃 일본이나 중국에 비교하면 아직도 미흡하다.

우리의 연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선학(禪學)의 저변 확대가 선결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몇 가지 방안과 더불어, 선어록(禪語錄) 언어(言語) 연구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함께 제시하기로 한다.

선학의 저변 확대는 어느 한두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선학회 등의 주도로 관련 연구자들이 연구를 분담하여 함께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된다. 제안이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 여부와 일의 순서를 염두에 두지는 않았다. 그러나 선 관련 연구자와 수행자들이 이러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대중공사 벌이듯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제안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선언어 연구는 선언어와 선, 선학만을 위한 작업이 아니다. 인문학 연구의 깊이와 폭을 넓히는 일이기도 하다. 또 선에 대한 관심에 부응하는 불교의 책무이기도 하다. 우선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사항이 추진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선학 입문서(入門書) 간행: 일본의 전중양소(田中良昭)가 편집한 〈선학연구입문(禪學研究入門)〉(1994) 수준의 입문서를 간행한다.

△〈선학논저목록(禪學 論著 目錄)〉의 기획, 출간 : 우선 국내의 관련 연구 논저 목록을 기획, 출간하고, 2차적으로는 일본, 중국 등지의 논저 목록을 출간한다.

△선학 관련 자료의 지속적인 확대: 한국선학회 등의 홈페이지를 적극 활용하여 선학 관련 자료를 수시로 수집, 정리하여 일반인과 학자들에게 제공한다.

△선학 관련 단기 강좌 개설: 기존의 단편적인 선학 강좌와 더불어 동·하계 방학 기간 중에 일반인 및 대학(원)생 등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과목과 강사진으로 단기 집중 강좌를 개설한다.

△〈선학대사전(禪學大辭典)〉 기획, 출판 : 일본의 〈신판 선학대사전(新版 禪學大辭典)〉(1985) 수준의 선학대사전을 장기적으로 기획, 출판한다.

△국내외 관련 기관, 연구소, 학회 등과의 교류: 우선 국내의 관련 기관, 연구소, 학회는 물론 외국의 관련 사이트를 연결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공동으로 관련 서적을 기획, 출판하거나 또는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상호 교류를 추진한다.

△선학 관련 국내, 국제 정기 세미나 개최: 우선 국내 관련 세미나를 1년에 1회 정도 개최하고, 어느 정도 기간이 경과한 후 일본, 중국 등과의 국제 세미나를 개최토록 한다.

위와 같이 선학의 저변 확대를 추진하면서, 한편으로는 선어록 언어 전공자 등이 중심이 되어 아래와 같은 사항을 추진한다.

△이미 출간된 선어록 번역에 대한 정확성 검토: 특히 〈한글대장경〉 및 〈선림 고경총서〉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선어록 언어 입문서, 독본 간행: 1차적으로는 중국, 일본 등에서 출간된 해당 문헌을 번역, 소개하고, 2차적으로는 국내 및 일본 선어록을 읽기 위한 별도의 입문서, 독본 등을 정리, 출간한다.

△선어록 역주본 출간: 우선 국내에서 출간된 선어록의 번역 현황을 파악한 후, 장기적으로는 원문(原文)을 게재한 대역본(對譯本)을 출간한다. 이 때 판본 등의 문제와 역주(譯註)를 상세히 첨부하여 학술적인 가치가 있도록 유의한다.

△선어록 언어 관련 사전 간행: 우선 어느 일종(一種)의 선어록에 출현한 모든 어휘를 풀이한 〈어휘 사전〉(예를 들면 〈육조단경 어휘사전〉)을 간행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선어록 허사(虛辭) 사전〉 〈선어록 언어 사전〉 등을 기획, 출간한다.

△선어록 언어 관련 국내, 국제 세미나 개최: 선학 관련 세미나에 언어(言語) 분야의 발표 및 토론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학계에 촉구하며, 또한 언어만을 주제로 국내 및 국제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도록 추진한다.

49재 및 영가천도 법보시용으로 매우 좋은 책

신간

남국선원장 혜국스님이 알기쉽게, 재미있게 엮은

천수경 천수신앙

신국판 / 값 5,000원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독송하는 천수경 심오한 뜻을 알고 기도하면 성취가 빠릅니다

관세음보살님의 대자비와 관세음보살님께서 깨친 진리를 문자로 표현한 천수경! 그 가르침을 '나'의 것으로 만들면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와 위신력이 언제나 함께하고, 능히 심중의 소원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일타큰스님의

생활속의 기도법

4×6판 / 값 3,500원

불교계 최대의 베스트셀러!

여러가지 상황에 따른 기도 방법은 물론 기도할 때 지녀야 할 마음가짐까지, 큰스님 특유의 자상한 문체로 예화(例話)를 섞어 쉽고 재미있게 엮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한 기도, 입시 합격을 위한 기도, 수행인의 기도, 영가천도를 위한 기도, 제사 때의 기도 등 일상생활에서 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도 방법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영가는 어떻게 천도하나요?"

우룡큰스님의

영 가 천 도

4×6판 / 값 3,500원

영가의 장애를 느끼십니까?
돌아가신 영가를 제대로
천도해 드리지 못하셨습니까?

영가천도의 필요성과 기본자세, 염불천도, 독경 · 사경천도법, 사십구재, 낙태아 천도 등 영가천도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우룡큰스님의 자세한 법문으로 풀어드립니다.

지장보살본원경

부록 / 지장보살예찬문



김현준 편역
신국판
값 5,000원

이 책은 지장기도를 하는 분들을 위해 특별히 만들었습니다. 지장경 독경 및 지장보살예참과 염불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엮은 이 책을 펼쳐들고, 각 장 앞에 제시된 기도법에 따라 기도를 하게 되면, 지장보살의 가피 속에서 틀림없이 영가천도 · 업장소멸 · 소원성취 · 향상된 삶을 이룩할 수 있게 됩니다.

감히 권하옵니다. 이 책에 의지하여 기도를 해보시기를!

지장신앙 · 지장기도법

Ⅰ. 지장보살, 어떠한 분인가?
- 대원의 본존
- 무한자비와 파지옥의 지장보살
- 현세의 행복과 지장보살

Ⅱ. 지장기도법
- 생활속의 지장기도
- 영가천도기도법
- 종합적인 지장기도



김현준 지음 / 4×6판 / 값 3,500원

대원(大願)의 본존(本尊)인 지장보살의 여러 측면과 영가천도기도법, 생활속에서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지장기도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이 책은, 지장신앙 및 지장기도의 훌륭한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 전화 : (02)587-6612 · 팩스 : (02)586-9078

평생 무소유와 청빈함을 지키며 살다 지난 14일 입적한 조계종 원로의원 응담스님의 삶이 세상에 회자되고 있다. 또한 스님은 모아둔 보시금 7천만원을 생명나눔실천회 등 불교단체에 내놓기도 했다.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더 많이 가지려고 아등바등하는 현대인들에게 스님의 이런 삶은 큰 가르침으로 다가온다.

부처님은 청빈과 무소유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경전을 통해 알아보자.

이렇게 들었다

청빈

"훔치려는 마음 끊게하라"

▨밝은 달이 이지러짐 없이 청정해 장애가 없듯이, 늘 참괴하는 마음을 갖출 것이며, 몸에 있어서나 마음에 있어서나 조금도 산란함이 없이 법도대로 하여 청정을 유지해 더러움에 물들지 않도록 해야한다. 〈월유경〉

▨나라를 위해 벼슬에 있더라도 탐욕하지 않아야 하고, 잔인하지 않아야 하며, 승진에만 매달려서도 안될 것이며, 오욕락에 빠지거나 청탁에 개입해서는 안된다. 그러한 마음으로는 벼슬에 있을지라도 올바로 국민들을 위해 일하지 못할 것이다. 또한 벼슬에 있으면서 다섯 가지 마음에 매달리면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불반니항경〉

▨너희들은 마땅히 알아야 한다. 한 올의 털과 한 개의 겨자알이라도 모두 중한 과보가 있나니 차라리 손을 끊을지언정 자기 재물이 아닌 것은 취하지 말고 항상 청렴한 마음을 갖고서 선근을 키워야 하느니라. 네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삼매를 닦게 하려면 더욱 훔치려는 마음을 끊게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여래선불세존께서 세 번째로 결정하신 청정하고 분명한 가르침이다. 〈능엄경〉

▨재물에 탐욕심을 내고 그 탐욕 때문에 더욱 미혹해져 미친 듯 날뛰면서 스스로를 알지 못하나니 그것은 마치 사냥꾼이 살생의 업이 쌓이는 줄을 마냥 모르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 〈잡아함경〉

▨작은 악을 대단치 않게 알아 재앙이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물방울은 작지만, 시간이 흐르면 차츰 큰 그릇도 채우고 만다. 〈열반경〉

▨간탐(탐심이 많음)의 마음 때문에 온갖 부정한 것을 탐하게 되니, 보시를 즐겨 행해야 청정한 과보를 얻는다. 〈제법집요경〉

▨신하와 관리들이 법답지 않게 행동하면 백성들도 법답지 않게 행동하며, 백성들이 법답지 않게 행동하면 군인들도 법답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된다. 〈증일아함경〉

▨청정한 마음으로 착한 행위를 하게 되고, 악한 마음으로 악한 행위를 하게 된다. 마음이 청정하면 온 우주법계가 청정해지며, 마음이 더러우면 온 우주법계의 세계도 더러워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불법에서는 마음으로 주(主)를 삼는 것이니, 모든 것이 마음에서 비롯됨을 알아 청정한 마음과 선한 마음, 그리고 바른 마음을 가지도록 항상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한다. 〈심지관경〉

▨차라리 도(道)를 지키다가 빈천 속에서 죽을지언정, 도에서 벗어난 짓을 하며 남의 것을 탐내고 부귀를 누려 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만일 그렇게 되면 무간지옥에 떨어지게 된다. 〈육도집경〉

불자 세상보기

무엇을 위한 생명공학인가



김상득
전북대교수
윤리학

어릴 때 옹고집전을 읽으면서 스님의 신통술을 기이하게 여긴 적이 있었는데, 이제는 생명공학이 신통술을 부리며 옹고집을 현실화하고 있다. 나아가 생명공학은 '옹고집'을 단순 복제하는 차원을 넘어 '옹고집'의 신체나 성격까지 조작할 수 있는 '신적' 능력을 우리 인간에게 부여하고 있다. 체세포 복제, 유전자 진단, 체외수정, 인간게놈 프로젝트, 유전자 치료 등이 바로 그것이다. 유전자 선택을 통해 미국에서는 괜코니 빈혈증이란 유전병을 앓고 있는 자식을 치료하기 위해 부모가 그 동생을 출산하고, 프랑스에서도 맞춤아기가 태어났다고 언론은 대서특필하고 있다.

이는 분명 유전병 예방 및 치료의 혁명적인 사건이다. 신체적 자율권과 행복추구권은 인간의 기본권이기에 불행의 원인이 되는 유전자를 치료하는 '소극적 우생학'은 허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끝 간 데 모를 인간의 욕망은 질병 치료를 넘어 자질 함양을 위한 유전자 조작, 즉 '적극적 우생학'으로까지 나아가고자 할 것이다. 일부 학자들은 성형수술의 자유를 내세워, 개인은 키나 몸매와 같은 신체적 조건뿐만 아니라 아이큐와 같은 정신적 능력의 함양을 위해서도 '유전자 성형수술'을 할 자유를 누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맞춤아기 탄생은 인간의 제품화

하지만 우리는 생명공학을 단지 질병 치료나 자율권의 관점에서만 바라볼 수 없다. 왜냐하면 생명공학이란 학문 자체가 신비의 영역인 생명의 세계를 과학 또는 공학으로 풀어보겠다는 야심이며, 생명공학 의술은 다른 의술과 달리 인간 자체를 선택 내지 조작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의술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명공학은 생명의 열쇠인 유전자를 조작하여 인간이 생명을 좌우하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하고 있다.

유전자 조작은 정의의 핵심인 공평성 원칙에 어긋난다. 올림픽 경기에서 약물 복용을 통한 운동실력 향상이 공정한 게임 규칙에 어긋나듯이, 유전자 조작을 통한 신체적, 정신적 능력 함양 역시 한 사회의 공정한 게임 규칙을 어기는 것이다.

착상전 유전자 진단법에 의한 '맞춤인간'은 '인간에 의한 인간의 선택'으로 '출생'을 '제조'의 개념으로 바꾸어, 인간 또한 하나의 '제품'으로 만들어낸다. 인간 존엄의 심각한 훼손이 아닐 수 없다. 그 어떠한 경우에도 한 생명은 다른 생명을 위하여 수단으로 이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유전자 조작은 고비용 '의술'이기 때문에, 오직 부자만이 이런 의술의 혜택을 받게 되어, 아예 생물학적 차원에서 우등 인간과 열등 인간으로 구분되어 새로운 신분사회가 도래할 수 있다.

'생명 살린다' 명목 또다른 생명 살상

우리는 지금 생명윤리 부재의 위기를 맞고 있다. 과학자들은 '현재적 이익'을 강조하는 반면에 "설마 그런 일이" 하면서 '잠재적 위험'을 외면하고 있다. 윤리학적 사회학적 성찰 없는 생명공학 연구 및 이용은 생명을 살리는 공학이 아니라 생명을 파괴하는 공학이 될 것이며, '게놈'은 '개놈'이 되어 인간 사회를 갈기갈기 찢어놓을 수도 있다.

따라서 생명공학의 안전 및 윤리에 관한 법률 제정이 시급하며, 무엇보다 생명공학자들에 대한 생명윤리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생명공학이 함축하고 있는 윤리적 사회적 의미를 통합학문적으로 연구하고 '윤리적인 과학 정책'이 입안돼야 한다.

열·린·마·당

군포교 제도개선 어떻게

군포교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가 20일 조계종 총무원 1층 불교회관에서 조계종 종회의장 지하스님, 포교원장 정련스님 등 종단 및 포교원 관계자들과 군종법사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군불교위원회 설치와 관련 위원장 선출 및 관리체계 문제 등 몇 가지 사안에 대해 포교원과 군승단의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다음은 공청회에서 발표된 양측의 입장이다.

"포교원내 군불교위원회 설치"

상운스님(조계종 포교원 포교부장)



현재 120여명의 군승이 500여 군법당을 관리하며 15만 군불자의 신행을 이끌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군포교가 정체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온 만큼, 미래 군불교의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해 '군불교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령'을 마련하게 됐다.

군승은 종단의 필요에 의해 국방부에 파송된 스님이다. 스님을 군대에 보낸 것으로 종단의 역할이 끝난 것이 아니라 전역할 때까지 관리가 필요하다. 그동안 종단이 불안정해 제대로 된 지원과 관리를 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종단이 안정을 되찾았고, 군불교 발전을 위해 정책수립, 군포교 방안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 후원단체 관리 등을 전담할 종단 공식 기구를 설치할 여건이 성숙되었다. 군불교위원회는 바로 이런 취지를 담고 있으며, 그동안 군승 선발 및 제반 업무를 전담해 온 포교원 내에 설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된다.

군불교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 역시 군포교에 원력을 가진 법랍 20년 이상의 비구로 포교원장이 임명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 이유는 스님이자 군인의 신분을 가진 군승이 위원장을 맡았을 경우 군내의 지휘계통상 군불교위원회를 대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군승의 진급, 전보 등에 문제가 많아 군승보다는 스님이 군승 활동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포상과 상벌권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포교원의 내년 주요사업 가운데 하나가 청(소)년 포교이다. 전국의 대학생, 청년활동이 거의 황폐화되고 있는 지금, 군포교는 바로 그 돌파구의 열쇠나 다름없다. 32년 동안 지원을 받았다면 이제 체계적으로 사회(종단)에도 회향시킬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한다.

"위원회 독립적 권한·책임 필수"

전창읍법사(군승단 제도개선위원장)



군불교는 미래의 거사불교를 개척하는 불사인 동시에 '포교의 황금어장'으로 가치가 크다. 그러나 군승의 수급 및 교육의 부재, 불자 신도의 조직 및 교육 부재 등으로 종합적인 군불교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가동되지 않는 상태다. 이에 군포교 제도개선을 위해 종단 내에 군불교를 전담하는 공식 기구를 설치하고 군승단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현행 군불교위원회령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종헌 9조 2항에 군승은 조계종 소속의 승려임을 밝히고 있다. 승려로서의 신분에 대한 통제는 총무원이 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포교원이 직접 군승단의 일반 행정업무까지 관장하는 형태는 사리에 맞지 않는다. 따라서 군불교위원회를 포교원 산하 기구로 두기보다는 독립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진 기구로 설치해야 한다. 물론 포교원의 후원금 지원과 군승단과 연계한 포교정책 수행도 필수적이다. 또한 '위원회' 자체의 기능은 지휘·통제기능이 아니라 조정·감독·지원하는 기능이므로 명칭도 문제다.

이에 군승단은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군불교위원회는 군승단을 지도·감독 및 군승 자원을 선발관리하며 모든 행정업무를 관장하되, 현재의 군승단 업무는 현행대로 군승총회를 거쳐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군불교위원장을 법랍 20년 이상의 군승출신으로 군승총회를 거쳐 포교원장이 임명하는 과정으로 선출되어야 하고 진급, 보직, 장기복무 등은 군의 고유한 기능이므로 군불교 인사조정위원회는 폐지되어야 한다. 특히 군불교 예산의 확보 및 시행 방안과 진각종 등 타 종단에 군승을 개방하는 등 수급문제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있어야 하겠다.

조계종 포교원과 군승단은 99년 8월 설치한 군포교 제도개선 위원회 활동의 성과물을 토대로 군불교위원회 출범을 위해 올해만도 5차례의 준비모임을 갖고 의견을 교환했다. 그러나 양측은 지금까지 군불교위원회의 위상과 위원장 선출 등 몇 가지 사안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일 열린 '군포교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도 서로의 입장차를 극명하게 드러냈다.

현재 서로의 입장이 뚜렷이 엇갈리고 있는 부분은 군불교위원회 위원장 선출문제다. 포교원은 군불교위원장을 군포교에 경험이 많은 법랍 20년 이상의 비구스님 가운데서 포교원장이 선임하도록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훼불사건 등 군내 종교편향이 일어났을 때 군승은 군에 소속된 신분으로 일 처리를 하는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고, 따라서 위원장은 군법사가 아닌 스님이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다.

군불교위원회 위원장 선출 포교원-군승단 입장차 뚜렷

그러나 군승단은 군을 잘 이해하는 법랍 20년 이상의 군승출신 비구를 군승총회에서 선임해 포교원장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위원장을 선출해야하고, 인사문제는 군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현재 설치령에 명시된 군불교 인사조정위원회를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조계종이 자신들을 휘어잡으려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군승단은 비구스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될 경우 결혼한 군법사들은 진급이나 인사에 불이익을 받을 것이 분명해 위원장 선임문제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군불교위원회를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포교원과 군승단의 입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는 부분이다. 포교원은 그동안 군승 선발에 대한 업무를 관장해 왔고, 조계종 포교업무를 전담하는 성격상 당연히 군포교도 포교원에서 담당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군승단은 군불교위원회를 포교원 산하에 두려는 것은 군승을 포교사로 간주하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여기고 있다. 따라서 군승단은 군승도 조계종 승려인 만큼 군불교위원회가 총무원 산하에 설치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5사단 김창무 법사는 이날 공청회에서 "군포교의 중요성과 군승의 위상을 고려한다면 군불교위원회를 총무원 산하에 설치하던가, 아니면 군승특별교구를 설치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외에 군승을 다른 종단에 개방하는 문제, 군불교 후원금 확대, 전역한 군승에 대한 신분보장과 활용방안 등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어 군불교위원회 설치를 위한 양자간의 합의점 도출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김두식 기자

레이키(Reiki)법이 왜 화제인가?

드디어 『박회준식』 레이키(Reiki)법을 확립해 국내외에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 누구나 그날부터 氣치료능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

레이키(Reiki)는 우주 창조와 만물의 조화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 근원적인 사랑의 생명 에너지이며, 이것을 질병의 치료와 생활의 다방면에 이용하는 법이 레이키법입니다.

이법을 처음으로 발견하고 개발한 사람은 일본의 우스이 미카오(1865-1926년)씨인데 현재는 미국을 거쳐 세계로 보급이 확대되어 전세계에서 1억명 이상의 인류가 이미 이것을 경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세계 1백개국에 보급되고 있는 21세기 「氣의 과학」이기도 합니다.

레이키법에는 어튜먼트라는 비법이 있기때문에 누구나 그날부터 氣치료 능력자(레이키 요법가)로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박회준)는 동양의 天人相應의 원리를 이용하고 특별한 방법으로 마음 수련에 힘쓴 결과 이 능력을 더욱 높여 세계 굴지의 어튜먼트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무슨 병이나 잘 나을 정도로 힐링 파워(치료 능력)도 높아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공수련을 했어도 氣치료 능력자가 되지 못했던 분이나 더욱 치료능력을 보강하고 싶은 분은 주저말고 오십시오.

교육대상 : 의료 건강 분야 종사자, 호스피스 봉사자, 환자나 그 가족, 일반 국민
교육단계 : 제1-제3단계, 3일정도 소요
어려운 국민 경제 상황을 고려해 50만원으로 가격 인하 단행!

현대생활 레이키연구회
전화 : 02)720-5682/725-2311 팩스 : 725-2312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89-27 피어선빌딩 809호실
인터넷 홈페이지 http : // www.Reiki.co.kr

- 매장과 화장, 그리고 명당에 대한 정확한 지침!

불꽃속의 명당

대대로 이어 내려온 묘지문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더 이상 매장풍습이 사라져야 하는 이유를 우주의 이치와 영혼의 세계 그리고 인과법칙에 따라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만성스님 지음/값7,500원

- 매장과 화장했을 때의 득과 실
- 매장을 했을 때의 열 가지 나쁜 일
- 화장을 했을 때의 열 가지 이익
- 명당과 혈을 잡기 어려움
- 천도를 해야 하는 이유
- 죽음 뒤에 무엇이 오는가

잘못된 묘지문화로 인한 영가가 주는 피해, 그 이유가 어디서 오는지를 쉬운 문체로 엮고 있다.

도서출판 초롱
주소: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146-2
전화:02)738-5791, 730-0235
팩스:02)722-8114
http://www.chorong.com

아미타불은 광명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염불문은 정토를 서방에 두고 그 곳을 가리키니 상(相)을 세운 것이요, 마음을 모아 정토의 경계를 취하고, 명호를 부르게 하니 이는 생각을 떠나지 않는 것이다. 염불문은 번뇌구족의 범부가 무상무념의 도를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유상유념의 방편으로 일체중생을 제도하고자 펴보이신 최후의 가르침이다.

정토신앙은 철학을 바탕으로 신심으로 일으켜 아미타불을 염(念)하는 자는 누구든지 광명과 진리와 영원한 생명의 세계 정토로 인도한다.

염불행자는 현세에는 일체의 고통으로부터 안심을 얻고 복과 지혜가 증장되는 창조적인 삶이 보장되며 내세에는 결정코 성불에 이른다. 생업에 종사하면서도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 길은 오직 염불수행 한 길 뿐이다.

정토신앙은 인류 종교사에 동서고금을 관통하며 죄악으로 신음하는 사회를 구원하고 천만년 역사를 창조해 나아갈 희망의 종교이다. 정토신앙의 부활을 염원하는 정목스님이 염불수행의 이론과 실천체계를 정리하여 널리 보급하며 권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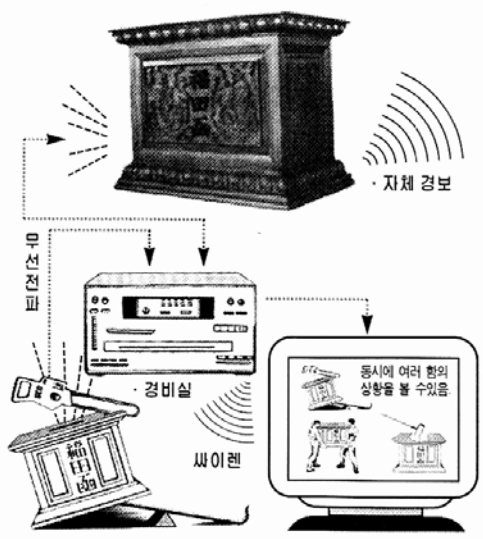
제1권 정토에 태어나 성불합시다. (조양 6,000원)
- 출판부 (051)462-9121
- 영업총판 삼장원(051)248-3582

제2권 염불신행의 원리와 비결 (근서원 7,000원)
- 출판부 (02)733-3345

염불신행 상담 : (052)269-8056 • (033)254-5397

법당 경비 전용 불전함

도난방장치 ◆특허 2000-0011559◆



- ◆ 특수 전자 장치가 내장된 철재 금고에 외부는 통판조각으로 접합 했습니다. (리모콘으로만 개폐 됨)
- ◆ 법당內 한정된 지역을 침입하면 함의 요란한 경보와 함께 경비실 및 원하는 타 장소에 무선으로 침입 사실을 알려 줍니다. (옵션)
- ◆ 주·야 감시 센서가 항시 자동 작동되며, 전원 플러그를 빼거나 절단하면 개폐기능은 마비되고 경보는 계속됩니다.
- ◆ 가격은 70만원부터 있습니다.

서원기전 ■ 문의:043-647-2378, 011-467-1472

사·부·대·중

"스님을 찾습니다"



주경
조계종 포교원 포교국장

지난 여름, 중국 북경의 불자 몇 명이 포교원을 찾은 적이 있었다. 지도법사 스님을 구하는 데 도움을 달라는 요청을 하기 위해서였다. 유학중이던 한 스님이 법회를 이끌어왔는데, 그 스님이 학업을 마치고 귀국하게 되어 법회를 봉행할 수 없을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그간의 현황에 대한 설명도 덧붙였다.

막대한 물적 인적 투자를 통해 고급호텔 등을 빌려 예배를 보는 개신교와는 달리, 현지 사찰의 법당을 잠시 얻어 법회를 보다가 중국공안에 체포되는 일을 겪기도 하였지만 간절한 신심으로 법회를 계속해온 가슴 찡한 사연이었다. 잠시 포교를 위해 외국생활을 체험한 바가 있는 까닭에 북경에 거주하는 불자들의 어려운 현실과 고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그리고 몇 달, 잊고 있지는 않았지만 바쁜 일정 속에서 조금씩 북경불자회의 일이 묻혀갈 즈음 북경불자들이 다시 포교원이 들렸다. 내년도 군승임관자 모집을 위해 바삐 다니고 있던 때였다.

스님이 계시지 않은 지난 몇 달 동안 법회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며, 불자들의 신심이 어떻게 부서져가고, 소임을 맡은 불자들의 심정이 어떠했는지 그 동안의 사정을 털어놓았다. 그리고 소중히 가져온 듯한 서류봉투를 열어 한뭉치 서류를 내놓았다.

빨리 스님을 구해달라는 북경불자들의 서명용지 묶음임을 확인하곤 차마 민망하여 고개를 들 수 없을 지경이었다. 그리 길지 않은 세월을 불가에 몸담아 왔지만 법사스님을 구해달라는 서명을 보기는 처음이었다.

그저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란 확신할 수 없는 대답으로 배웅을 하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 다시 북경불자회장님의 방문을 받았다. "스님이 머무는 동안 편의는 저희들이 힘을 모아 돌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에 광고를 내보면 어떨까요?"

신학대학을 마친 젊은 목사들은 군종장교로 가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치른다. 일부 외국에서는 교민회를 하면 참석자의 절반은 선교를 나온 목사와 전도사라고 한다.

그런데 왜 우리는 군장병을 위한 스님도, 해외불자를 위한 스님도 이렇게 구하기 힘든 것인가?

"스님을 찾습니다."

목탁소리

황당한 지리산댐 계획

김 재 경 〈취재1부 기자〉

지난 16일 영국 런던에서는 지난 2년 6개월 동안 세계의 대형댐 건설정책이 초래한 사회·환경적 비용과 효과를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해온 세계댐위원회(World Commission on Dams)의 최종보고서 발표가 있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대형댐은 세계적으로 4천만 내지 8천만명의 주민을 고향과 삶의 터전에서 이주시켰다. 이로 인해 이주민들은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으며, 지역공동체가 붕괴되고, 정신적·신체적 건강상태도 악화되었다. 홍수조절 및 발전·용수용 다목적 대형댐은 거대한 환경재앙을 초래하여 수많은 어류 및 수생동식물이 멸종하고, 광대한 숲과 습지, 농토가 파괴되었다.

이러한 사실에 입각해 세계댐위원회는 "피해지역 주민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댐도 건설되어서는 안되며, 어떠한 신규 개발계획을 진행하기 이전에 기존의 물과 에너지 공급체계의 효율을 최대화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며 "이제 댐 건설의 시대는 끝났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국내의 수자원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는 느낌이다.

22일 한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지리산댐 개발계획이 이미 5년 전 문민정부에서 검토한 뒤 부산까지의 송수관 매설 등 기술적인 한계, 막대한 개발과 관리비용 등 타당성이 희박해 폐기했던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그간 조계종을 비롯한 종교·시민·환경단체의 공개질의에 침묵으로만 일관해 온 건교부와 수자원공사의 수자원 정책의 단면을 보는 것 같아 허탈하기까지 하다.

정부는 지난 8월 '낙동강 물이용 조사단'을 만들어 연말까지 조사를 벌인 뒤 내년 6월 함양 문정댐과 산청 덕천강댐 등 2개의 지리산댐 건설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는 그간의 수자원 정책 결정과정을 미루어 볼 때 지역민과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시간벌기라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

정부는 '댐 해체, 생태계 복원'이란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추어 수자원 공급위주의 댐건설 정책을 지양하고, 수요관리 위주의 친환경적인 수자원 관리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고은 칼럼



고은시인의 불교계와 사회에 대한 날카롭고 따뜻한 칼럼을 매월 1회 연재합니다. '고은 칼럼'은 고은시인의 문학과 불교사상과 삶을 통찰한 글로 깊은 메시지를 전할 것입니다

시인 · 본지 논설고문

운문사 은행나무와 한국불교

올해는 너무 몸이 탔다. 그래서 이제야 제 정신이 드는 것 같다. 6월에는 평양의 남북정상회담에 가 있었고 8월에는 일본에 가 있었다. 9월에는 뉴욕 UN총회장의 세계평화 정상회의에서 '평화의 노래'를 읽어야 했다.

돌아오자마자 스웨덴 스톡홀름과 요테보리에서의 시 낭독과 강연을 한 것이 10월이었다. 11월은 폴란드의 '2000 크라카우예술축전'의 시인축제에 참가했다. 이것은 그곳 시인 미워쉬와 쉼보르스카가 상금의 일부를 출연해 만들어서 시인 10여명을 초청해서 1주일 동안 숨막히게 꽉 찬 일정을 다하는 일이었다. 이런 중에도 대산문화재단의 국제모임, 포럼에 참가했다. 그 행사에 온 시인 개리 스나이더와는 공동으로 시 낭송을 하고 함께 경주와 운문사 지리산 등지를 떠돌았다.

스나이더가 떠나자 이번에는 스웨덴 문예지 편집장이 그곳에서의 두차례 인터뷰에 더할 것이 있기도 해서 한국에 왔으므로 그와 함께 경주 석굴암을 찾고 해인사에 가고 운문사에도 다시 갔다.

내가 운문사에 간 것은 43년 전이었다. 그때는 청담스님과 동행이었다. 비로전 등의 당우가 없는 것은 아니었으나 경내는 실컷 황폐해진 채 였다. 거기에 별로 신심이 있어보이지 않는 비구스님이 머물고 있었다. 나는 그곳에서 하룻밤도 보내지 않고 대구로 나와버렸다.

그런 처량한 기억 밖에 없던 곳이었다. 그러다가 내 친구 유흥준 교수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에서 운문사를 반갑게 만났고 이따금 풍문으로 운문사가 크게 중창된 일을 알게 되었다.

운문승가대학장 명성스님은 50년대 정화운동 당시 묘엄스님과 젊은 비구니 쌍벽으로 여러 승니대회에 참석했을 때부터 지면이었다. 그러고 보니 그 세대 위에는 비구니 대표로 인홍, 수옥 스님도 있었고, 한 두번은 수덕사 일엽스님도 선학원으로 나를 찾아온 적이 있다.

> 옛과 오늘 지키고 있는
> 운문도량서의 하룻밤
> 오랜만에 넋이 맑아졌다

시간은 썩 잘 흘러감으로써 그런 일들을 지난 날 저쪽의 흐릿한 풍경의 하나로 만들어 주고 있다.

그런 나에게 웬일로 올해 두번이나 찾아간 곳이 운문사였다.

그곳을 찾은 까닭이 있다. 그것은 내가 지난 해 1년을 미국 하버드와 버클리에서 보낼 때 한국불교의 실상이 조계사에서의 불상사로 세계도처에 알려진 뒤여서 그곳 교수나 여러 인사들을 만날 때마다 한국불교의 어이없는 난동이 화제가 되는 곤혹을 맛보았기 때문이다.

운문사! 이곳이야말로 한국불교의 청정세계인 것을 세상에 알림으로써 종단의 탐욕적인 패권주의로 더럽혀진 인상을 씻어내고 싶었던 것이다.

과연 호거산중(虎踞山中)은 때마침 운무가 가득했고 경내는 경건했다. 새로 배치된 가람의 여러 당우와 요사채들이 격조를 뿜어내고 있었다.

지금 여러 사찰들이 앞을 다투어 건물자랑을 하고 있는데 그것들의 상당한 부분이 천박한 물질과잉을 드러내기 십상인데, 운문도량의 품위는 뜻밖에 자못 높은 것이었다.

나는 여기 저기 안내하는 스님을 따라다니다가 긴 창고 안의 한 곳을 살펴보았다.

그곳에는 대중들이 울력 때 신는 장화와 비옷, 작업화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벽에는 호미들이 대중 수대로 걸려있었다. 어디 하나 흙을 묻힌 데 없이 연장을 잘 간수하고 있었다. '빈 손인제 호미를 들었도다!'라는 선방의 한 구절이 떠올랐거니와 이와 함께 내 눈에서는 왈칵 눈물이 났다.

아, 여기야말로 정법이 살아있는 곳이다! 여기야말로 1천6백년 한국불교의 갖은 오욕을 다 녹여주는 곳이다. 살아있다! 살아있는 곳이다!

이런 감탄이 절로 나왔다. 오랜만에 절집에서 쓰는 '여법하다'는 말이 이 도량에 해당되고 있음을 알았다.

나는 외국 친구들에게 이런 청규의 운문사를 보여준 것이 열 번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다음 날 아침 학인 2백60명의 강당에서 그이들에게 절을 하고 강연을 한 것이다. 나는 속으로 빌었다. 이를테면 앞으로 비구니 8경법 따위 푹 쉬게 하고 총무원장도 비구니 속에서 나오는 것과 향후 60년쯤 뒤에는 여성 종정도 나올 만한 시절인연 말이다.

운문사는 지난 몇 십년 동안의 지칠 줄 모르는 정진으로 수많은 학승을 배출해 내면서 하나 둘 당우의 장엄도 어디 하나 소홀함 없이 이루었다.

연등불 석가모니불 미륵불로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대웅전 세 주세불의 배열도 놀라운 발상이었다. 도량은 방금 비질한듯 쓰레기 하나 보이지 않았고 후원벽에 밧줄로 걸려있는 칫솔들도 질서정연했다.

마루밑 댓돌위의 가지런한 흰 고무신들 자체가 예불뒤의 안행과 더불어 실로 법열에 가까운 절경이 아니던가.

나는 아직 경기도 화성의 묘엄스님 도량에는 가보지 못했거니와 이들 비구니승가대학이야말로 그동안 공염불에 그치기 쉬웠던 도제양성의 허세를 능히 탕감해 준다고 믿지 않을 수 없었다.

운문사에는 몇 백년 나이의 은행나무 한 그루가 그곳 도량의 옛과 오늘을 지켜주고 있다. 한 그루라고 하지만 한 그루에서 두 줄기로 나뉘어져 솟았으니 불현듯 옛 천축의 사라쌍수를 생각나게끔 한다.

그 은행나무 쌍수 밑에 유리 탁자를 두어 거기에 은행나무 잎새들이 그림자로 되살아나며 멀리 앞산 뒷산의 산 그림자들도 내려와 함께 있으니 그것이 또 하나의 승지를 만들어 내고 있었다.

그 나무를 바라보며 명성스님의 다실에는 솔차와 우전차가 은은한 차내음을 풍기고 있는 것이다.

이곳을 거쳐간 사람이나 지금의 산중 대중이 함께 이루어낸 청정도량임에 틀림없으나 거기에 명성스님의 오롯한 힘 없이는 오늘의 운문사와 운문승가대학의 장관은 결코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그곳에서 한 마디 인사를 했다. "진작에 조주의 차를 실컷 마셨는데 운문의 떡은 먹어보지 못했소이다. 그래서 오늘 그 떡을 얻어먹으러 여기에 왔소이다"라고.

장차 이곳에는 여봐란 듯이 선방살림도 차릴 것이다. 그러고 보면 승가대학의 치열한 내전(內典) 학습과 함께 컴퓨터와 영어, 서예, 음곡, 꽃꽂이 등에도 만만치 않은 수준을 이루는 한편, 장차 그 맞은편에서 성성적적의 임제선이나 묵조선, 또는 염불선의 화엄삼매가 있기를 바란다.

나는 운문사의 늦가을 하룻밤으로 오랜만에 넋이 맑아졌다. 새벽 3시 예불로 나만이 아니라 내 외국 친구들의 지친 넋도 맑아져서 그곳을 떠날 때는 함께 한소식을 누릴 수 있었다.

> 벽엔 대중수만큼 호미
> 댓돌위 가지런한 고무신
> 실로 절경이 아니던가

요즘 세상의 신심이라는 것이 건달의 이웃일 때가 있고 어딘지 삿된 얼굴인 경우가 없지 않다.

이렇듯이 세상이 온통 혼탁한 중에도 운문도량과 같은 곳이 있어 그곳의 청정한 기운이 스멀스멀 세상의 여기저기에 뻗어나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곳의 메주뜨는 냄새와 종소리 뒤의 하염없는 고요를 두고, 그리고 그 푸른 눈빛들을 두고 떠나며 나는 몇 십년 전의 만행 시절로 돌아가 보았다.

天然 토종 오가피의 신비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성 광 수 氏



— 재배자가 직접 만들어 화제 —

舊소련에서는 국가대표선수들에게 오가피를 복용시켜 올림픽 및 각종 국제대회에서 놀라운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용했던 소련산 가시오가피는 그 유효성분이 우리나라 토종오가피의 25%에 불과했습니다. (노벨수상자인 독일 와그너박사의 논문에서…) 왜냐하면 오가피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입니다.

◐事得一把五加 不用金玉滿車
(영득일파오가 불용금옥만차)
하줌의 오가피를 얻으니 한마차의 금옥보다 낫구나…
(本草綱目)

◐延年 不老 仙經業也(연년 불로 선경약야)
(오가피를 먹어) 수를 더하고 늙지 않으니 실로 신선의 약이로구나…
(東醫寶鑑)

◐Acanthopanax (오가피의 학명)
'아칸토'는 가시나무를 뜻하며 '파낙스'는 만병을 치유한다는 뜻으로 만병을 다스리는 가시나무란 이름을 가지고 있다…
(공주교대 조선행박사)

■흉내낼수 없는 것이 있다!
수신 토종오가피는 TV건강문화(i-TV 2000년 1월15일) KBS "6시 내고향", "나의 영농체험"에 출현한 17년간 오가피를 키워온 재배자 성광수씨가 직접 재배한 100% 국내산 토종오가피로 만듭니다. 가오가피나 수입 오가피로 만든 제품과 비교하지 마십시요.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전화주시면 오가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오가피 건강상담 : 02)447-9114

뜻대로 사는 길
아 봐 타 코 스

Avatar.

당신은 먼 길을 왔고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세계는 변화하고 있으며
당신이 깨어나길 재촉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신의 모든 갈등과 고통·구속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창조해낼 수 있는 도구와 방법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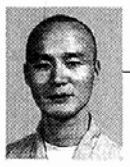
단 9일간의 시간으로
당신 자신에게 생애최고의 선물을 안겨 주십시오.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자료를 보내드립니다.
◇ 코스일정에 관하여 언제든지 마스터와 상담할 수있습니다.
◇ 12월 9일부터 8일간은 용인 원불교 수련원에서 연합코스가 열립니다.

소정 아봐타 센터 / 마스터 소 정
제주시 화북 1동 1932번지 보덕사
전화 : 064)756-3604 / 016-575-2741
www.avatar@sjavatar.pe.kr

밝은 길 아봐타 센터 / 마스터 김희균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45 번지
전화 : 02)396-2736 / 016-228-2358
www.avatarcenter.co.kr
E-mail : bokbat@kornet.net

모든 분들이 깨어나길 사랑으로 염원하며 아봐타 마스터/워저드 김희균 · 소정 두손 모음



승오스님의

경전읽기

유마경 ①

대승불교는 재가신자를 중심으로 하는 불교개혁운동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운동은 종래의 출가교단의 권위주의와 보수주의에 대한 비판이었으며, 재가의 생활과 유리되지 않는 새 불교의 지평을 열어 가려고 하는 사상의 주창이었다.

대승불교가 펼친 사상은 공(空)의 실천이념인 반야바라밀(지혜의 완성)이다. 기원전 1세기경에 시작된 대승불교운동은 점차로 내용이 증폭되었고 종류도 다채롭게 되어서 반야경전군(般若經典群)을 이루게 되었다. 대승불전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경전의 하나인 〈유마경(維摩經)〉은 반야경전군의 영향을 받아서 성립된 것이다.

〈유마경〉이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전파되었다고 하는 시점으로부터 이 경전이 성립된 장소가 어디인가를 추정할 수가 있다. 대략 경전이 서술하는 장소는 갠시스 강 북쪽의 상업도시 바이샬리(vaisali)로 보고 있다. 바이샬리는 리차비(Licchavi)족이 건설했고, 이 종족은 일찍부터 불교신자가 많았으며, 진취적이고 자유로운 기풍을 가지고 있었다.

부처님께서 돌아가신 후 100년이 지나서 교단은 분열을 가져오게 되고, 다시 둘로 갈라지게 되는데 그 분열의 가운데에 바로 리차비 종족 출신의 승려들과 재가불자들이 있었다. 이들은 개혁을 강조하게 되고, 개혁의 흐름이 뒤에 대승불교로 발전한 것이다.

〈유마경〉은 바로 이와 같은 진보적인 시·공간을 배경으로 성립되었으며, 〈유마경〉의 자유스러운 정신 역시 이러한 토양 위에서 생겨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유마경〉의 주인공인 비말라끼르띠(Vimalakirti)도 이 도시의 주민이며, 리차비족 상인이었다. 비말라까르띠가 실재했던 인물인지의 여부는 알 수 없지만, 현장삼장(玄裝三藏)의 여행기에서 비말라킬티가 거주했다고 하는 집이 바이샬리의 망고 밭에서 동북쪽으로 3리 쯤 되는 곳에 있었으며 '불이(不二)의 법문(法門)'으로 유명해진 방도 남아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유마경〉은 그 원전이 현존하지 않지만 원전의 명칭은 전해지고 있기에 그것을 통해 유추해 볼 때 비말라끼르띠니르데샤(Vimalakirti nirdesa)라고 할 수 있는데, '비말라끼르띠의 설교'라는 의미가 된다.

한문으로 번역한 책은 모두 '경(經)'이라는 문자를 붙였는데 앞에서 말한 것처럼 원전에는 수뜨라(Sutra)라는 말이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것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뜨라라는 말을 붙일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한문으로 번역한 스님들이 비말라끼르띠는 부처님의 화신(化身)이라고 생각했기에 '경(經)'으로 불렸던 것으로 생각된다.

〈유마경〉의 주인공 유마거사(維摩居士)는 속가의 사람이며 '거리의 도인' '거리의 철인(哲人)'이라 불리었고, 재산가였으며, 정치 법률에도 정통하였고, 모든 이들에게서 존경을 받았다. 그는 처신을 잘하여 주위의 사람들을 어느 틈엔가 바른 길로 인도했고, 어디에 있던지 더러움에 물드는 법이 없었고 악에 동화되는 법이 없었다.

이처럼 훌륭한 유마거사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부처님께 공양하고 보시하여 선근(善根)을 심고, 신통력을 얻어 뛰어난 기억력을 가졌고, 어떤 일에도 흔들림이 없는 자신을 가졌으며, 모든 일에 대처할 수 있는 방편력(方便力)을 가진 인물이다.

대승불교도의 종교적 이상형이 〈유마경〉의 주인공이다.

〈유마경〉은 재가불자가 어떻게 불교를 배우고 익히며 선근을 심어 부처를 이루고 보다 넓고 크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 해인사 승가대 교수

대승불교 이상적 인간형

자유롭고 진취적인 재가불교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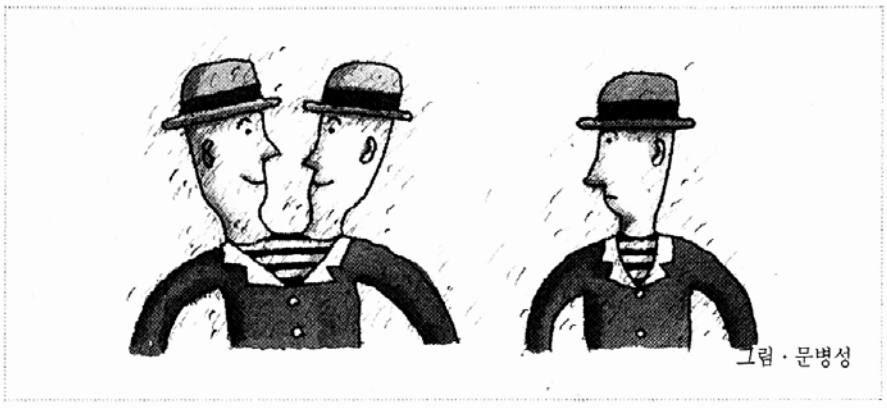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양자-인드라망 '동일상태'

불교와 과학 〈8〉

일상성 - 3

1935년 아인슈타인과 그의 두 등료는 하나의 획기적인 논문을 물리학회지에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은 동상태에 대한 양자역학의 기술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는 것이었다. 그 당시 발표한 실험내용은 실제로 이루어진 실험이 아니라 가상적인 일종의 사고실험이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광양자와 같은 소립자들은 전하를 띠고 있는데, -2/1 e 와 +2/1 e 의 짝을 이루는 에너지보존 상태인 e1, e2 의 두 입자를 서로 다른 방향으로 쏜다고 하자. 이 경우 한쪽 방향으로 날아가는 입자 e1에 대하여 전자석을 걸어주면 그 입자는 전기를 띠고 있으므로 당연히 자석의 힘에 의해 휘게 된다. 그런데 다른 방향으로 날아가고 있는 입자 e2에 대하여 전자석을 걸어주지 않았는데도, e1이 자력에 의해 휠 때 자석을 걸어주지 않은 e2도 따라서 제가 알아서 동시에 휘는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이러한 양자세계의 운동상태는 전통 물리학의 세계관을 뒤흔들어 놓는 일이었다. 물리학은 인과율을 기반으로 하는데 e1의 입자는 분명히 인과적인 물리현상이기는 하지만, e2의 동시적 휨 현상은 전혀 인과적이지 않은 사태이다. 이는 마치 두 쌍둥이 중 한 명이 들에 맞아 머리에 혹이 난 순간, 같은 시간에 돌에 맞지도 않은 다른 쌍둥이 한 명이 동시에 머리에 혹이 나는 해괴한 사건과 같다. 아인슈타인은 이러한 비인과적 사태가 텔레파시에서나 가능한 것이라 하였고, 그런데 텔레파시는 당연히 물리학의 연구영역이 아니므로 물리학의 인과율에 거스르는 e2의 사태를 기술한 양자역학의 기술방식은 잘못되었다는 주장이 바로 이 논문의 요지였다.

그러나 4달 후 닐즈 보어라는 물리학자는 아인슈타인 주장에 대한 반박논문을 게재하였다. 양자역학자로서 보어의 기본 입장은 아인슈타인이 두 개의 개체라고 보았던 e1과 e2는 실제로 독립된 두 개체가 아니라 분리되지 않은 하나의 입자상태라는 것이다. 여기서 아인슈타인의 동역학과 보어의 동역학이 보여주는 세계관의 차이를 주목한다. 아인슈타인에게서 미시세계의 개체는 그 외형적 조건처럼 하나, 둘, 셋으로 셀 수 있는 분리적인 상태를 의미한다. 그래서 분리된 두 개가 서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물리학적으로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보어에게서 미시 입자의 개체들이 외형적으로는 셀 수 있는 분리된 개체처럼 생각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모두 연결된 하나의 비분리적 상태에 있다는 것이다.

아인슈타인과 보어의 논쟁 이후 50년 넘게 후대의 수많은 물리학자들로 하여금 인과성의 범위 안에서 물리현상을 국한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통적 인과율에 맞지 않는 비분리의 물리상태를 인정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격렬한 논쟁이 있어왔다. 아인슈타인 진영과 보어 진영의 논쟁은 1970년대 들어와서 사고실험이 아닌 실제적인 실험결과에 의해서 보어 쪽으로 기울게 되었다. 문제는 여전히 양자상태의 입자들의 통일성, 비분리성을 기존의 인과적 언어로 표현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더욱이 그런 양자상태의 입자운동은 고전역학에 길들여진 이성적 사유에서 벗어나는 다른 물리적 지평에 있는 것이어서 더더욱 이해하기 어려웠다.

지난 두 번의 연재를 읽은 독자라면 이 이야기를 어디로 연결시킬 것인지를 눈치챌 수 있다. 즉 양자차원의 입자운동의 상태가 바로 인드라 망의 구조에 유비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유비는 매우 조심스런 전제가 필요하다. 무경계의 마음을 다루는 불교의 언어와 경험세계의 경계를 인간의 이성으로서 파악하려는 자연과학의 언어를 그 외형적인 유사성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일은 매우 위험한 또 하나의 인간의 오만함을 보여 주는 일이기 때문이다.

양자상태와 인드라 망의 상태가 같다는 말은 현대 양자역학의 이론이 이미 불교에 다 들어 있었고, 따라서 그런 이유 때문에 불교의 사상이 위대하다는 주장을 한다면 불교 스스로의 폭을 좁히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개별이 아닌 전일적이고 비분리 상태를 유지하는 양자상태의 세계와 인드라 망의 세계를 유비하는 일을 통하여 오히려 불교가 바라보는 열려 있는 세계의 다양성을 확인하고 나의 마음을 열어 놓는 계기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나아가 자연을 설명하는 길 그리고 마음으로 깨닫는 길은 무한할 수 있지만, 자연은 하나이며 깨달음도 하나라는 점을 아는 일도 중요하다.

▣ 최종덕 / 상지대 교수
(jdchoi@chiak.sangji.ac.kr)

과학 양자는 분리되지 않은 하나의 입자

불교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된 '不二관계'

여성·환경 등 사회문제 불교관점서 해법 찾기

지구촌 불교 / 美 스님·법사대회

2천 5백여 년 전에 이루어진 부처님의 가르침이 현대 서양인의 마음에 뿌리내릴 수 있었던 주된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달 7일 미국 캘리포니아 우드에이크레 시(市)에서 열린 제6회 스님·법사회(The Conference of Network Buddhist Teachers) 대회는 이러한 궁금증에 답하는 대회였다.

북미주와 유럽에서 전법에 힘쓰고 있는 스님과 법사 2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인 이 대회는, 서구의 불교 열풍은 서양인 스스로 동양의 가치에 관심을 두는 상황 탓도 있지만, 그보다는 그들 가까이에서 '열린 불교'를 보여준 아시아계 스님과 법사들의 노력에서 비롯된 것임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삼발라선(Shambhala Sun)〉지에 따르면, 5일간의 대회 기간 동안 스님과 법사들은 서양인 불자들이 불교를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하고 있는지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이번 대회의 주제로 '아시아의 종파주의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내세운 것 역시 이러한 관심에서 비롯되었다.



◇명상 관련 저술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조셉 골드스타인이 달라이 라마에게 질문하고 있다.

93년 달라이 라마 제창…2년마다 열려

북미·유럽 거주 스님 등 2백여명 참가

현재 북미주와 유럽에는 일본·티베트·대만·스리랑카·한국·태국 등 아시아의 여러 불교가 진출해 있지만, 서양인들은 이들 불교를 구분하는 일에는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 대신 서양인들은 자신을 닦는 수행과 불교의 사회적 실천 즉 여성, 기아, 환경, 동성애, 질병 등 지구촌 전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적용할 수 있는가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 가장 큰 반향을 일으킨 스님은 탄나산티(Thanasanti) 비구니. 스님은 "미국인 여성불자들은 부처님 가르침에 과연 여성을 폄하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지에 대해 무척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며 "북미주와 유럽에서 포교하고 있는 아시아계 스님과 법사들은 이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탄나산티 스님은 달라이 라마에게 "아시아불교지도자대회(International Meeting of Asian Buddhist Leader)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북미주와 유럽에 진출해 있는 태국, 티베트,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스리랑카 불교는 아직도 여성의 출가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외에도 조안 메시(Joanna Macy)는 '불교생태학의 모색', 랄프 스틸(Ralph Steele)은 '서구 사회에서 백인 승단 출범 의미', 로버트 서만(Robert Thurman)은 '무지와 탐심을 끊는 수행', 페마 쵸드론(Pema Chodron)은 '여성과 승단' 랩게이 롭상(Rapgay Lobsang)은 '공동체 개발' 등을 발표해, 아시아를 떠나 북미주와 유럽에 새로운 터전을 닦고 있는 불교를 어떻게 지키고 발전시킬 것인가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또한 이번 대회에서 스님과 법사들은 포교 현장에서 만난 서양인과의 경험을 공유하는 데에도 적잖은 노력을 기울였다.

스님·법사회 대회는 1993년 티베트의 정신지도자 달라이 라마의 제안에 따라 인도 다람살라에서 조직돼, 2년 주기로 대회를 열고 있다. 미국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샌프란시스코 선원과 스피리트 락 명상원에서 주관했다.

오종욱 기자(gobaoou@buddhapia.com)

불국토 홈페이지 : www.bulgukto.or.kr

불국토의 밤 2000

제8회 보리방송문화상 및 자랑스런 불자상 시상식

올해도 어느 해 못지 않게 열심히 수행하고 포교했습니다. 이제 한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때에
불사의 주역들을 한자리에 모셔 포상하고 그 뜻을 널리 알리고자하오니 축하와 격려를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8회 보리방송문화상 공모

보리방송문화상은 방송을 통한 불교문화 계승창달과 불교사회발전을 목표로 1999월 11월 1일~
2000년 11월 15일까지 방영된 불교관련작품을 대상으로 포상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추천기간 : 2000년 11월 15일 ■제출서류 : 추천서, 작품개요서
■추 천 작 : VHS 녹화 및 녹음테이프 1개
■시상내역 : 1. 일반 TV부문 / 작품상
대상 : 상패 및 연구지원금 2,000,000원 우수상 : 상패 및 연구지원금 1,000,000원
2. BBS부문 / 개인상 : 연출상 : 상패 및 연구지원금 1,000,000원
진행상 : 상패 및 연구지원금 1,000,000원 지역방송상 : 상패 및 연구지원금 1,000,000원
■문 의 처 : 보리방송모니터회 (02-712-5813)
■역대수상자안내 : 제1회 : 마애석불의 미소(대전 MBC), 오백번째 나한(교육방송) / 제2회 : 선찰대본산 범어사(부산 MBC), 한국의 불교(한진영상 KBS) / 제3회 : 인간기행 보리(현대방송), 직지〈直指〉(청주 MBC), 고승열전(서울 BBS), 사라진 개화승 이동인(서울 BBS) / 제4회 : 대륙으로 간 신라왕자(대구 KBS), 팔공산 백홍암(대구 MBC), 자비의 전화(서울 BBS), 물같이 바람같이(부산 BBS) / 제5회 : 팔만대장경(서울 KBS), 천재 서예가 김진민(전주 KBS), 한국의 명찰(서울 BTN), 자비의 천수천안(서울 BYN), 무명을 밝히고(서울 BBS) / 제6회 : 미소의 원류를 찾아 … (다큐서울 KBS), 만행〈卍行〉(KBS, 아리랑TV), 시장을 찾아서(서울 BTN), 천태종 3부작(서울 BTN), 무명을 밝히고(서울 BBS), 다시 듣고 싶은 노래(서울 BBS), 지혜의 샘(대구 BBS) / 제7회 운주사 - 천불천탑의..(서울 KBS), 미륵사〈2부작〉(전주 MBC), 신행365일(서울 BBS), 우암산 풍경소리(청주 BBS), 특별상(서울 BBS)

제8회 자랑스런 불자상 공모

자랑스런불자상은 2000년 한해 동안 각 분야에서 국가와 사회발전에 가장 기여한
재가불자를 선정하여 원력과 신행생활을 널리 알리고 포상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추천기간 : 2000년 11월 18일까지 ■추천양식 : 이력서와 공적서
■포상내역 : 상패 및 부상(2,000,000만원)
■역대수상자안내 : 제1회 : 이문옥(전 감사관) / 제2회 : 황영조 / 제3회 : 용태용(변호사) / 제4회 : 공종원(조선일보 논설위원), 김홍국 / 제5회 : 최완수(미술사학자) / 제6회 : 백승완(부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현익채(금정중학교 교법사), 김원수(동호여상 교사) / 제7회 : 이하우(부산불교교육대학 학장), 유정길(불교환경교원 사무국장)
■문 의 처 : 불국토 사무국 (051-868-0951)

시 상 식

◆일시 : 2000년 12월 5일(화) 오후 5시 ◆장소 : 코모도호텔 1층 충무홀

주최 : 사단법인 불국토, 사회복지법인 불국토, 청소년법인 불국토청소년도량
주관 : 자랑스런불자상 운영위원회위원장 혜총스님, 보리방송문화상운영위원회위원장 수불스님(일반TV), 정여스님, 범산스님(라디오), 보리방송모니터회
후원 : 감로사, 관음사, 내원정사, 부산불교회관(여여선원), 안국사, 영주암, 장천사, 천성사, 청담선원, 개금사회복지관, 부산광역시양정청소년수련관, 용호종합사회복지관, 부산진구재가노인복지센터, 불국토한의원, 관음어린이집, 사이버스련관 POWER1318.com



◇산사의 겨울은 유난히 춥다 특히 현대식 난방시설이 안된 사찰의 경우 땔감을 많이 준비해야 한다.



◇겨울에 밑반찬으로 사용될 무말랭이와 시래기.

산사의 겨울채비

"알뜰…인내…소욕지족"

"올 겨울은 또 얼마나 추울까. 언젠가 겨울처럼 식수마저 얼어버리면 큰 일일 텐데…." 겨울나기를 준비하는 깊은 산사 스님들이 해마다 겪게되는 걱정거리다.

11월 22일은 소설(小雪). 이맘때면 기온이 뚝 떨어진다. 본격적인 겨울의 시작이다. 가을의 끝자락을 야멸차게 잘라낸 찬바람은 만물을 움츠러들게 한다. 서리 내린 아침의 쌀쌀한 바람이 옷소린 어깨를 시리게 할 때면 만물들은 저마다 온갖 지혜를 총동원하여 겨울나기에 들어간다.

선방이나 토굴로 안거에 들어간 수행자들에게도 겨울나기 준비는 큰일이다. 해마다 이 때면 선승들도 겨울채비에 나선다. 예전에는 선방마다 모든 대중들이 소임을 맡아 겨울 채비를 했지만 요즘은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하지만 문명 생활과 단절된 깊은 산사에서는 여전히 불가의 전통적인 방법에 따라 겨울채비를 한다.

대구 팔공산 환성사(주지 돈관)는 전형적인 산사종찰을 지닌 고찰이다. 지난 21일 해질녘에 찾은 산사는 겨울채비로 분주했다. 장작을 패는 소리가 산사의 정적을 깨고,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가 경내에 가득했다. 양지바른 곳에는 겨울 반찬거리로 사용될 무청과 버섯 등이 눈에 띈다. 이 사찰의 대중은 산내암자 성전암에서 독살이 수행을 하고 있는 스님을 포함 5명이 전부다. 대중들이 적은 만큼 겨울채비도 간단하다. 그렇다고 소홀히 할 수 없다. 메주, 땔감, 김장 등은 기본이고 그 이외 문풍지를 바르고 싸리빗자루를 준비하고, 텃밭에 심은 채소를 거둬들이는 것 등도 빼놓을 수 없는 겨울나기의 한 과정이다.

소욕지족(小慾知足)이라 했던가. 바로 절약과 알뜰한 살림살이가 산사 겨울채비의 근본이다. 환성사도 마찬가지다. 이 사찰에서 올 겨울을 나기 위해 준비하는 재료는 모두 자연 속에서 얻어진 것들이며, 갈무리하는 방법 또한 전통적이다. 산사의 겨울채비로 시간과 노력이 가장 많이 필요한 것이 땔감 마련이다. 늘 추위와 맞서야 하는 산사에서는 난방이 가장 큰 걱정거리다. 이 사찰의 대중들은 요즘 인근 산 속의 고사목을 산 속 중간 중간에 모으는 일로 겨울채비를 시작했다. 이렇게 모은 땔감의 일부는 다시 사찰로 옮겨진다. 그리고 스님들은 틈틈이 장작으로 만들어 돌담 옆에 만들어 놓은 나뭇간에 차곡차곡 쌓아 놓는다. 현재의 대중들을 위해서는 그리 많은 땔감이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혹시 폭설이 내리거나 객승이나 기도객들이 찾아오면 방방마다 불을 지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겨울철 땔감 준비야 당연한 일. 먹을거리 마련이야말로 중요한 일의 으뜸이다. 이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김장과 반찬류, 그리고 장류이다. 환성사의 경우 아직 김장은 담그지 않았다. 조금이라도 따뜻한 기운이 돌면 시거나 맥이 변해 보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게다가 젓갈류나 소금을 많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손발이 시리도록 추워질 때 김장을 담근다는 것이다. 반찬과 장류 준비는 공양주 보살의 몫이다.

고사목 모으기등 땔감 장만
문풍지 바르고 싸리비 준비
무청말리고 메주 매달고·
김장 담그고 식수도 충분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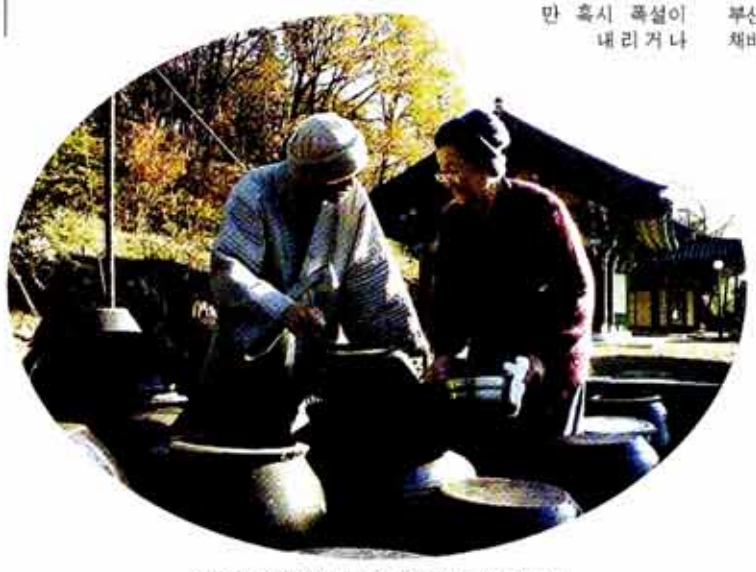
사찰에서의 생활은 대중생활이니 만큼 누구하나 겨울나기를 피할 수 없다. 기도를 하기 위해 사찰은 찾은 노 보살도 겨울채비를 거든다. 이처럼 산사의 겨울채비는 모든 대중들의 손에 의해서 이뤄진다. 공양주 보살은 20여 개의 장독에 담겨있는 새까만 된장과 간장, 그리고 고추장을 일일이 살핀다. 공양주 보살은 올해도 어김없이 메주를 만들었다. 사찰에서 메주는 감초와 같다. 국이나 찌개는 물론 대부분 음식에 장을 사용하고, 특별한 영양공급원이 없는 사찰에서 된장은 보약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콩을 삶는 일에서부터 목침 만한 메주를 만들어 추녀 밑에 달아 놓을 때까지 모든 대중들이 참여한다. 텃밭에서 수확한 무를 잘게 썰고, 여기에서 얻어진 부산물인 무청을 말리는 것도 겨울채비의 한 일환이다. 겨울산사에서 특별한 반찬거리가 없기 때문에 해마다 반복되는 일이지만 조금도 지겹지 않다.

성전암에서 올 겨울 독살이를 한다는 승우 스님은 점심공양을 마치고 산으로 향했다. 성전암은 환성사에서 1km 위쪽에 위치한 암자이기 때문에 항상 물이 부족하다. 봄부터 가을까지는 호스를 이용해 큰 불편 없이 물을 사용했지만 한겨울이 되면 세수물은 커녕 먹을 물조차 구하기 어렵다. 그래서 샘터가 얼지 않도록 늘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스님은 바위틈의 샘터에 수북히 쌓인 가랑잎을 거둬내고 작은 돌을 모아 지름 20cm가량의 우물을 만들었다. 2~3분을 기다려야 한바가지 정도 고이는 샘물이지만 스님에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다. 샘물의 양이 너무 적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스님은 "물이 없는 사막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작은 자연의 이치가 얼마나 큰가를 실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연은 그 은덕을 자랑하거나 시샘하는 일이 없습니다. 오직 평등하게 그 자신의 법칙에 따라 고루 베풉니다. 다만 인간들이 그 공덕을 모르고 있을 뿐이지요"라며 자연의 중요함에 대해 설명했다. 이처럼 산사나 토굴에서 정진하는 선승들은 자연 속에서 삶과 수행의 지혜를 터득한다. 스님은 샘터를 깨끗이 손질한 다음 잠시 쉬었다 가자며 반석 위에 앉아 가부좌를 틀었다. 겨울채비로 잠시 소홀했던 화두를 챙기기 위해서였다.

수행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먹고 사는 일이 최대한 간단해야 한다. 그래서 산사의 겨울 채비는 세간처럼 북적거리지 않는다. 그리고 이 모든 겨울 채비는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생명 본연의 질서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뤄진다.

식물이 살아남기 위한 기본 조건이 햇볕과 물, 따뜻한 기온과 소량의 광물질이라고 한다. 한겨울의 추위는 이들 조건을 빼앗아 간다. 그러나 식물들은 결코 겨울의 시련에 굴복하지 않는다. 하나의 알새마저 남기지 않고 떨구어 에너지를 최소화하여 겨울을 난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윽고 다가올 봄을 준비하고 있다. 이같이 일상의 번잡을 최소화해 용맹정진하는 선승들의 겨울나기는 깨달음을 향한 수행의 또 다른 과정일 것이다.

글=김중근 기자(gamja@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ybgo@buddhapia.com)



◇산사의 겨울채비에 빼놓을 수 없는 장 담그기.



◇장작으로 불을 지피고 있는 스님의 모습



정세채와 떠나는
선·식·기·행



작설차과

정신 맑게 심장 편안하게

초의 선사가 지리산 칠불사에 계실 때의 이야기다.

반야봉의 만병초(철쭉과에 속하는 꽃으로 7천3백만 개의 화분과 신비한 능력을 갖고 있고, 독이 있는 철쭉꽃)를 차로 쓰기 위해 산길을 오르고 있는데, 바람결을 타고 진한 차향(茶香)이 풍겨져왔다. 차향을 쫓아 계곡을 내려오니 맑은 옹달샘에 어리는 흰구름 사이로 관세음보살이 하늘로 오르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가! 아, 관세음보살님! 삼배를 끝내고 고개를 들어보니, 물 위에는 푸른 하늘만 비치고 있었다. 그런데 주위를 둘러보니 흰 넝쿨과 등나무가 얽혀있는 사이로 흰꽃이 핏고 있지 않은가! 참으로 신기한 일이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등나무와 흰넝쿨 주변의 차나무 잎이 바람결에 휘날리며 웃고 있는 것이었다. 초의 선사는 그 자리에 앉아 삼매에 들어갔다.

"내가 차를 안다고 하였으나 부끄럽구나. 차는 서로 얽힌 갈등도 풀어내는 것을. 어찌 내가 끓는 물에 찻잎을 담가야만 그 향을 느낀단 말인가." 3일 밤낮을 선정에 든 초의 선사는 차를 말하던 자신을 몹시 부끄러워했다. 성큼 다가선 겨울 추위를 녹이는 마음 속의 차 한잔이 따뜻하게 퍼지면 세상의 온갖 갈등도 녹여지지 않을까 싶다. 작설차과 한 조각을 입 속에 넣고 서로 어우러지는 세계의 깊은 맛을 음미해보자. 작설차과는 육류 섭취가 많은 어린이나, 과자를 좋아하지만 차를 잘 먹지 않으려는 사람들에게 별식으로 그만이다. 지리산 일대의 사찰에선 다식으로 애용되기도 했다.

■ 악선식 연구가. 〈산사에 가면 특별한 식단이 있다〉 저자

만드는 법(1~2인분)

재료 통밀가루 2컵, 작설차분말 20g, 천일염, 잣가루, 또는 볶은 참깨, 생강즙 20g, 계피가루 ½작은술, 황설탕 2컵, 물 2컵, 들기름 2큰술

요리법 ① 통밀가루와 차분말에 천일염을 약간 넣고, 고루 섞어서 고운 체에 내린다. ② 위 재료에 들기름과 생강즙을 넣고 반죽한 후, 비닐봉지에 넣어서 냉장고나 서늘한 곳에서 40분 정도 발효시킨다. ③ 칼국수처럼 얇게 밀어 원하는 색과 모양을 만든다. ④ 150도 정도의 기름에 밀을 넣어 노릇노릇하게 튀겨낸다. ⑤ 소스팬에 황설탕 2컵, 물 2컵을 넣고 젓지 말고 졸인 다음, 계피가루를 섞으면 시럽이 완성된다. ⑥ 작설차과를 예쁜 접시에 담아 그 위에 시럽을 붓고, 잣가루나 참깨를 고명으로 뿌린다.

효능 ① 머리를 맑게 하고 심장을 편안하게 해준다. ②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하거나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좋다.

다시 푸는 경서

정혜결사문(定慧結社文) ⑨

是以 無碍自在之行 方捨眞修
시이효무애자재지행 방사진수
非惟身口不端 亦乃心行迂曲
비유신구부단 역내심행우곡
都不覺知 或有執於聖敎
도불각지 혹유집어성교
法相方便之說 自生退屈 努修漸行
법상방편지설 자생퇴굴 노수점행
違背性宗
위배성종
不信有如來 爲末世衆生 開秘密之訣
불신유여래 위말세중생 개비밀지결
固執先聞 擔麻棄金也
고집선문 담마기금야
知解頻遇如此之類 雖有解說
지눌빈우여차지류 수유해설
終不信受 但加疑謗而已
종불신수 단가의방이이
何如先受信解心性本淨 煩惱本空
하여선수신해심성본정 번뇌본공
而不妨 依解熏修者也
이불방 의해훈수자야

이 때문에 걸림 없고 자유로운 행만 본받고 참된 수행은 버리니, 몸과 마음이 단정치 못할 뿐만 아니라 마음마저 구부려졌는데도 전혀 깨닫지 못한다. 어떤 이는 경전에서 말한 법상(法相)의 방편설에 집착하며 스스로 퇴보하는 마음을 내고, 점수(漸修)의 행에만 애를 쓴다.

그러니 성종(性宗:만법의 근원인 진실한 본성을 종지로 하는 선종을 뜻함)을 어기고 부처님이 말세 중생을 위해 열어 놓은 비밀한 말씀(오묘한 진리)을 믿지 않고 먼저 들은 것만 고집하니 이는 삼(麻)은 등에 지고 금덩이는 버리는 것과 같다.

나는 자주 이런 유의 사람을 만나 아무리 설명해주어도 그들은 믿지 않고 도리어 의심하고 비방할 뿐이었다. 다시 한번 '심성은 본래 깨끗하고 번뇌란 본래 없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 의지해 수행하는 것이 어떠한가.

外攝律儀而忘拘執
외섭률의이망구집
內修靜慮而非伏捺 可謂於惡斷
내수정려이비복날 가위어악단
斷而無斷 於善修 修而無修
단이무단 어선수 수이무수
爲眞修斷矣 若能如是
위진수단의 약능여시
定慧雙運
정혜쌍운
萬行齊修則豈非夫空守默之痴禪
만행제수즉기비부공수묵지치선
但尋文之狂慧者也
단심문지광혜자야

밖으로는 계율을 지키면서도 구속이나 집착을 잊고, 안으로는 선정(靜慮)을 닦되 억지로 생각을 눌러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이른바 악을 끊되 끊으면서도 끊음이 없고, 선을 닦되 닦으면서도 닦음이 없어야 참으로 닦고 끊음이 되는 것이다. 만약 이렇게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으면서 아울러 온갖 행을 닦아 나간다면 헛되이 침묵만 지키는 어리석은 선이나 문자만 찾는 미친 지혜에 어찌 견주겠는가.

且修禪一門 最爲親切
차수선일문 최위친절

선정과 지혜 닦기 전념하지 않고 본성만 믿고 안주할 수 있겠는가

能發性上無漏功德 若得意修者
능발성상무루공덕 약득의수자
於一切時行住坐臥 或語或默
어일체시행주좌와 혹어혹묵
念念虛玄
염념허현
心心明妙 萬德通光 皆從中發
심심명묘 만덕통광 개종중발
安得求道 恃本性而自安
안득구도 시본성이자안
不專定慧乎
부전정혜호

또 참선 수행은 가장 친절한 문이다. 성품에 갖추어져 있는 무루(無漏)의 공덕을 개발해주니 만일 뜻을 내어 닦는 자는 다니거나, 머물거나, 앉거나, 눕거나 또는 말하거나, 침묵하거나 언제고 간에 생각 생각이 비고 심오하며, 마음 마음이 밝고 오묘하여 온갖 덕과 신통 광명이 이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 도를 구함에 있어 어찌 선정과 지혜 닦기에 전념하지 않고 본성만 믿고 안주할 수 있겠는가.

김원각〈시인 · 역경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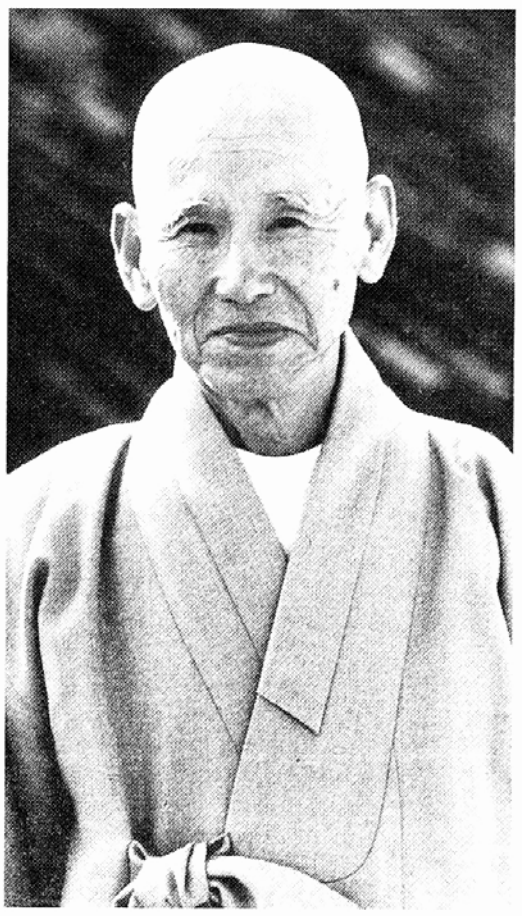
큰 스님과의 대화

호명스님

통도사 한주

붉게 물들었던 영축산이 속살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있다. 통도사의 우람한 소나무가 더욱 웅장하게 다가온다. 영축산에서 달려내려온 초겨울 바람이 솔숲에 이르러 이내 부드러워진다. 통도사는 그렇게 솔바람으로 사람을 맞아들이는 가람이다. 시탑전에 주석하고 계신 호명스님도 그렇다. 세수 87세의 노구에도 불구하고 공부모임을 이끌고 계신다. 참된 삶을 살겠다는 사람들을 이끄는 것이 스님들이 해야 일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스님은 수행을 하더라도 불교를 바르게 알고 수행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어려운 이웃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받아들이는 삶이 불자의 도리라고 말씀하셨다.

"이웃 아픔 돌봐야 참불자"



· 1914년 서울生
· 39년 포응스님을 은사로 출가
· 해인사, 통도사 강원 졸업
· 금강산 마하연, 상원사 등 여러 선방에서 참선수행
· 진주 연화사 주지 역임
· 87년부터 통도사 시탑전(侍塔殿)에 주석

—불교에서는 아직도 문자를 가벼이 여기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물론 알음알이에 빠지지 말라는 뜻일텐데요. 스님께서는 책을 보시고 출가하셨습니다. 불서의 중요성을 알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몸이 아파 금강산 장안사 부근의 토굴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불교의 정수〉라는 일본어로 된 책을 읽었어요. 일본 진종의 목진무암(木津無庵)이라는 사람이 쓴 작은 책으로 불교의 교리를 간단하게 적어놓은 것이었어요. 불교가 뭔지 알게 해주는 책이었지요. 〈반야심경〉을 보고서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세상의 좋다는 것을 다 얻어도 만족이 없겠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출가하기로 결심했어요. 책이 나를 종으로 살게 만들었죠.

경전을 놓지 않는 이유가 또 있어요.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출가한지 얼마 되지 않아 겨울 안거를 나려고 큰 선방에 들어갔을 때였어요. 화두를 받았는데, 나는 화두를 수학문제 풀 듯 하는 줄 알고 대들다가 머리가 빠개지는 것 같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조실스님께 올라가 여쭈었더니 '망상 피우지 말고 가서 앉아 있어라'는 말만 들었어요. 세 번을 그랬습니다.

그때 선방에서는 바랑에 책을 넣어다니면 방부도 받아주지 않던 때였는데, 나는 바랑에 〈선가귀감〉을 넣고 다녔어요. 참선방에 들어가지 않고 뒷방에 앉아 〈선가귀감〉을 읽어보니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은산철벽을 만나거든 휙 뛰어넘든지, 너죽고 나죽자는 식으로 주저앉든지 해야 하는데, 그냥 뚫으려고만 했었지요.

그 길로 선방에서 내려왔습니다. 막대기 법문만 있는 것에 회의가 들었던 거지요. 호통을 치던지, 차근차근 자상하게 일깨워 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이지요. 요즘도 그래요. 법문은 가려운 데를 꼭 짚어서 긁어주듯이 하는 효자손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니 몇 십년을 해도 장판에 때만 묻히고, 수행이라는 이름만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글과 내가 둘이 아니어야 합니다. 남이 써놓은 글도 결국은 내 것이 되어야지요. 선가에서 사교입선(捨敎入禪)이라고 말하는데, 글을 무작정 버리라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글을 보다보면 문득 수행으로 돌려야겠다는 때가 옵니다. 삶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것이지요. 그때 수행에 들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수행을 하면서도 책을 버리면 안 됩니다. 수행을 하면서 책을 보는 안목이 생겼으니, 책이 마냥 수행에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수행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수많은 겁을 거쳐오면서 욕심, 사심(邪心), 시기심, 질투 등을 유전하는 것처럼 이어받았어요. 이러한 유전인자를 버리기 위해서 반드시 수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수행을 하지 않고서는 마음 가운데 도사리고 있는 욕심을 떨쳐내지 못합니다. '나'라는 것을 무화(無化)시키는 것이 수행의 궁극입니다.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이 수행의 목적이 절대 아닙니다.

—최근 나온 책 가운데 신도들에게 한 권 권해주시지요.

▲글자가 모여있다고 해서 모두 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래 어떤 학자의 책을 봤는데, 말씀은 좋은데 자기 걸음 걸이가 없더라고요. 인생을 다듬는 데에 뿌리를 두어야 하는데, 가지만 잔뜩 벌여놓은 꼴이예요. 수행의 체험에서 나오는 책이라야 매력이 있는 법입니다.

며칠 전에 변상섭이라는 사람의 책을 봤는데, 잘 썼습디다. 눈을 열어주는 길이 있어요.

(스님은 교계신문의 애독자다. 법문 자료가 될만한 것들은 스크랩도 해둔다. 변씨의 책 〈선, 신비주의인가 철학인가〉는 교계신문 기사를 보고 부산의 서점에 가서 샀으며, "아마 내가 가장 먼저 이 책을 샀을 것"이라며 환하게 웃으셨다. 변씨의 책에 대해 스님은 "선에 대해 풀이할 때도 있고, 하지 않아야 할 때가 있다. 선을 하는 사람들이 살아있기 때문이다. 살아있는 것은 늘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촌평하셨다.)

—공부모임을 지도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모임인지요.

▲경심회(耕心會)라는 모임이 있어요. 경심회라는 이름은 내가 붙였지요. 예전부터 모임을 하면, 이 이름을 써야겠다고 은근히 마음에 두고 있어지요. 재가자들 모임인데, 한 3년 됐어요. 처음에는 청년들과 보살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보살과 거사들이 반반이예요. 왔던 사람들이 모임이 괜찮았다고 생각했는지 다음에 올 때는 친구들 손목잡고 와서 지금은 한 오십명 됩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여섯시에 모여 아주 진지하게 하고 있어요.

왜 이 모임을 하느냐 하면, 불교가 사람의 마음을 이끌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야심경에 '무색성향미촉법(無色聲香味觸法)'이라는 말이 있지요. 이 가운데 '무'자가 무서운 것입니다. 거울이라는 자리입니다. 또 공(空)의 뜻을 알아야 쉬는 도리를 알고, 그래야 세상살이에 걸리지 않습니다.

반야심경과 금강경을 내가 강의하고 함께 토론합니다. 반야심경은 끝났고 금강경 강의를 마치면 참선하는 법을 가르칠 생각입니다. 참선을 하기 전에 경전을 먼저 가르쳐야 합니다. 저기 기차가 있다는 것만 알려주지 말고, 궤도에는 올라가도록은 해줘야지요. 그래야 서울

입방안내

금강선원 선문장은 재가불자들을 위한 참선수행 정진도량입니다.

일년내내 개방하며,

수행일정은 수행자 본인의 자유의사대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입 · 출소가 자유롭고,

남 · 녀 구분 없이 누구나 수행하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혜거스님의 법문과 개인 상담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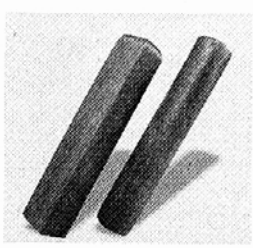
대한불교조계종
선수련원 禪門莊
강원도 홍천군 내촌면 화상대 1리
전화 033) 433-5845~6

순수한 경면주사로 쓴
운장(스님) 법사의 생필(眞本)
'五色光彩'의 氣를 발하는 신비의 기적 '용린佛字체'
"오복을 가져오는 세천년시대 용의 꿈을 꾸세요~"



꼭 소장하여 할 가장 고귀한 진품 명품
⊙ 신기 · 영기 발하는 佛자 달마(달마대사)그림, 龍자 그림(수맥파 차단) 특별보시!
정통으로 배우는 서예 사군자 달마 佛字, 梵字그림 전수자 수시모집!!
한국 수맥파 방지 총연합회 인증 100% 효과
복사품 및 유사품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대한민국 미술작품 화랑방 (korea art gallery) http://www.korea-art-gallery.org http://www.cmhouse.net
사업실패, 가정불화, 자녀문제,부부갈등 등 답답하고 고민 하시는 분 서슴없이 전화하세요!
▪ 생명의 전화 : (033)766-0057 · 0058
E-mail :unjang21@ kornet21. net
●주문 신청방법 우체국 013698-02-045909 조정순
※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원주 덕화산 운장사 달마선원

벼락 맞은
대추나무 벽조목 도장
벽조목은 옛날부터 우리 조상님들이 신비의 마력을 지닌 영물로 각종 패물 부적인장, 호신구를 만들어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벽조목을 지니면 살아가는데에 야기되는 모든재앙과 사악한 기운을 막아주며, 액운을 물리치고 운명을 길하게 하며 재물운이 강해 사업하시는 분의 성공을 지켜드립니다.
이 벽조목은 우연히도 1999년 추석에 충북 괴산군 연풍면 삼풍리에서 구입한 제품입니다. 수령은 300여년이 된 벽조목이 발견된 것을 구입 제재하여 현대감각에 맞는 도장 및 공예품으로 만들어 다양한 제품으로 공급하고자 합니다.



이 벽조목은 하늘이 주신 귀한 보물이므로 인연이 되시는 분께만 공급코저하오니 귀하의 출세와 부귀를 얻고 가정과 사업이 발전하여 소원 성취 하시길 기원합니다.
氣 印 當
031-315-7316(팩스겸용)
016-305-7316

EBS불교방송(길을 찾아서) 출연
특허에 의한 승복의 우수성을 설명
특허상품
국내 최초특허청에 의장등록 (제0246178호)
승복·법복·누비·바랑판매안내
행복을 기원하는 지회 기원섬유에서는 "수레바퀴"라는 상표로 승복 및 법복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특허청에 의장 등록 되었습니다.
특 징
1.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특허청에 연꽃·옴자·만자무늬를 의장등록함.
2. 원단에 무늬가 입체적으로 은은하게 들어 있어 아주 특수함.
3. 누비로 만든 저고리, 바지, 방한복에도 무늬가 들어 있으며, 특수하게 제작하여 소매끝에도 바람이 들지않게 고급스럽게 디자인함.
4. 바랑에도 여러가지 무늬가 있어 아주 세련되고 편리하며 100%방수 처리함.
5. 개량한복처럼 세련되게 디자인 되었으며 원가를 많이 절감함.



스님께 가사 불사 보시하면 十善을 지어 5가지 큰 공덕으로 삼재 팔난을 소멸함.

판매가격표

저고리 바지, 조끼	男女	130,000
누비 (上,下)	男女	180,000
누비방한복 (上)	男女	130,000
누비조끼	男女	60,000
누비동방 (두루막)	男女	180,000
바랑		30,000

▪ 유사품이나 모방할 경우 법적인 제재를 받음
· 부산, 경남 대리점 (051)556-8848
· 지역 대리점 모집 중
· 지역 판매점 모집 중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업체 "수레바퀴" 기원섬유
대구시 동구 신천 3동 74-1 (창신빌딩 1층)
상담전화 (053)764-4114/팩스 (053)741-4119
휴대폰 011)9850-4400

을 가든 부산을 가든 갈 것 아닙니까. 궤도까지 올려주는 것이 스님네들의 책임입니다. 우리 스님네들이 신도들과 후학들을 제대로 가르치고 이끄는 일에 더욱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것이 개탄스런 현실입니다. 스님들이 신도들에게 빚지면서 살지는 말아야지요.

앞으로는 경심회가 스님을 기르는 터전이 되어야 합니다. 스님을 길러내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전국적으로 공부하려는 사람 열 명만 모아서 하고 싶습니다. 제대로 된 스님을 길러내지 않고서는 포교를 아무리 잘 해도 뿌리없는 가지일 뿐입니다. 뿌리가 튼튼하지 않으면 큰 바람에 넘어지고 말지요.

며칠 전 서울 조계사에서 열린 간화선 토론회에 들렀다 포교원장에게 이 말을 해주려고 했는데 만나지 못하고 돌아왔어요.



◇통도사 시탑전 앞뜰을 거닐다 은행잎 몇닢을 줍는 호명스님. 추운 겨울날 노란 잎을 바라보면 마음이 포근해진다고 말씀하신다.

"마음 평정 중요…현재의 고통 걸림돌이 디딤돌 될수 있지요"

ㅡ스님 계시는 시탑전(侍塔殿)에서 바라보는 영축산의 초겨울은 여전히 푸근합니다만, 어느덧, 한 해를 어떻게 살았나 하고 돌아보는 때가 왔습니다. 후회없는 삶이란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화엄경에 보면 우리 몸을 소우주로 비유하는데, 딱 들어맞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화엄경에 '일모공중함시방(一毛空中含十方)'이라는 말이 있어요. 터럭 가운데에 우주가 있다, 몸도 아니고 터럭 한가락에 우주가 있다니 놀랍지 않습니까. 터럭 한 가닥 잡아당기면, 몸 전체가 '아야' 하고 소리치듯 터럭 하나가 곧 몸입니다.

자기만 잘 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잘 살아지지도 않습니다. 입이 음식을 먹는데, 입을 위해서 그러나요. 전체 몸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지요. 입이 먹으니 손톱도 나오고 머리털도 자랍니다. 팔다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그러니 어찌 입 따로 있고, 머리 따로 있는 것입니까.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어찌 나, 너 라고 할 수 있나요.

불자라면 인연법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쉽게 말해, 내가 누구를 때리면 아프고, 그 사람은 내가 왜 맞나, 언젠가는 갚아줘야지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지요. 인연법을 다 알지만, 인연이 언제 어떻게 오는지는 모릅니다. 언제, 어떻게 인연의 결과가 다가올 지를 모르는 것을 아는 것이 수행이 아닙니다. 모르는 것은 모른 채로 그대로 놔두는 게 깨치는 것입니다. 언젠가 알아질 때가 옵니다. 그러니 항상 겸손하게 하심하며 살아야 합니다. 나는 누가 내 이름을 물으면 그림 하나 그려 줍니다.

(이내 스님은 종이 위에다 가부좌하고 고개를 약간 숙인 모양의 그림을 그렸다. 그리고 이게 내 이름입니다 하며 기자에게 내밀었다.)

ㅡ인연법을 아는 데서 봉사하는 삶이 나온다는 말씀이군요. 저 사진도 그런 뜻에서 걸어놓으신 것이군요. (스님의 방 한켠에는 굶주려 가늘어진 팔다리, 뭔가를 찾는 듯한 휑한 눈, 임신한 것처럼 불룩 나온 두 어린이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 붙어 있다.)

▲내전 때문에 굶주리고 있는 소말리아 어린이들의 모습입니다. 터럭 하나도 우리 몸 전체라고 얘기했는데, 소말리아의 굶주린 어린이들을 가만히 놔둔다면 불교의 기본적인 가르침인 인연법을 모르는 것입니다. 저 어린이의 배고픔이 나의 고통입니다.

어느 스님의 법문집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타인을 위해 봉사하는 연을 맺는 것은 우리의 사회가 진보하는 사회인가, 아닌가를 측정하는 척도가 된다"는 말씀을 보았어요. 백번 지당한 말씀입니다. 앞서 화엄경의 한 구절에서처럼 남이라고 부를만한 게 없어요. 모두 나입니다. 또 나라고 내세울만한 게 없으니 나니, 너니 다질 일도 아니고요. 이웃의 고통에 자비를 베풀지 않는다면 진보를 논하기 이전에 사람이 사는 제대로 된 사회라고 부를 수 없는 것이죠.

저 사진을 복사해두고 헤프게 사는 사람들에게 '주방에 붙여놓아라' 하면서 줍니다.

ㅡ스님의 세수 87세입니다. 긍부모임도 이끄시니 여전히 '현역'입니다만, 노구이십니다. 건강은 어떻게 지켜가시는지요.

▲냉온욕을 자주 합니다. 단식도 참 많이 했어요. 한번 하면 닷새에서 열흘 정도 하는데, 지금까지 단식한 것을 날 수로 치면 이백일쯤 될 겁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건에는 나를 중으로 알기보다는 단식지도자로 알 정도였어요.

오래 사는 게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지만, 살아있는 동안만큼은 건강해야겠지요. 육조단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도 착하고 명(命)도 좋으면 평생 부귀를 누리고, 명은 좋은데 마음이 악하면 복이 화근(禍根)으로 바뀐다. 마음은 착한데 명이 나쁘면 화가 바뀌어 복이 되고, 마음과 명이 모두 나쁘면 재앙을 당하고 곤궁하다 단명한다. 마음은 명을 순탄하게 바꾸어 놓을 수 있으니, 인도(人道)를 따르도록 하라. 명은 실로 마음에 의해 창조되는 것이니, 길흉화복도 결국 인간이 불러들인 것이다. 명만 믿고 마음을 닦지 않으면 음양이 맞지 않고, 마음을 닦으면서 명을 따르면 천지가 서로 돕는다."

이렇듯 내가 생각하는 건강의 첫째 비결은 마음의 평정입니다. 우리 집이 서울에서 큰 부자는 아니었어도 제법 잘 살았어요. 어려서 인력거 타고 유치원 다녔으니까요. 그러다 집안이 갑자기 기울었어요. 장남인 내가 집안을 책임져야 한다는 중압감에 위장병과 폐병을 얻었어요. 병을 고치려 금강산에 들어갔다 출가했는데, 결국 나를 출가시키려고 한 뜻이었나봐요. 걸림돌이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것이니 마음 편하게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름 날 소나기 올 때 온세상이 떠내려갈 듯 하지만 곧 비가 그치고 언제 그랬냐 하고 햇살이 내리쬐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시간이 흐르면 어려움이 지나간다는 믿음을 가지세요.

> 수행하는 까닭은
> 무엇을 얻기위함 아닌
> '나'를 無化시키는 것

ㅡ최근 다시 기업 구조조정 등의 여파로 대량실업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서로 나누고 살아야 할 사람들이 나누기보다는 자기 것 찾기에 더욱 매달리는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서로 잘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욱 절실해지는 때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불교라는 여러 종교 가운데 한 종교의 지침만은 아닙니다. 정치사상이며, 경제사상이며, 사회사상입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불자들이 더욱 부처님 가르침을 받들어 살아야 할 때입니다.

〈광석보리심론〉에 나오는 이런 말씀을 올 겨울의 화두로 삼음이 어떨까 합니다.

"보살은 한 중생에게도 친구라는 생각을 갖지 않음이 없어서 누구에게나 차별없는 자비심을 일으킨다. 비심(悲心)이 작용하는 까닭에 온갖 중생의 괴로움을 없애고 대비(大悲)의 뛰어난 보살행을 성취하게 되는 것이다." 건강과 장수는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다는 가르침이지요. 나와 남이 서로 어울어져야 잘 사는 것이므로 선한 인연을 맺어 어려운 사람을 돕고 살라는 가르침으로 받아들이세요.

대담=정성운 차장
(swjung@buddhapia.com)

호산스님의 스님이야기 — 스님과 어머니



정리수(情離水)라는 말이 있다. 옛날 어떤 처자가 남몰래 스님을 사모하다 우연히 스님들이 공양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발우를 깨끗이 씻어 헹군 물을 마시는걸 보고 그만 정이 뚝 떨어 졌다 해서 생긴 이름이라고 한다. 그렇게 보면 스님네들은 삼시 공양 때마다 이 정떨어지는 물을 마시는 셈이 되는데 스님들 입장에서 보면 정떨어지는 물이라는 표현보다 정을 끊게 하는 물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 듯 싶다.

옛날 스님들은 정이 농후하면 도닦는 마음에 방해가 된다 하여 무척 경계하였다. 아마도 이미 출가하여 출격 장부가 되었으니 세속의 모든 인연을 끊고 하루 세 번 이 정리수를 마심으로 자신을 경책하고 수행에만 전념하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그럴지도 모른다.

그러나 태어나면서부터 본인에게 주어진 인연을 끊을 순 있다 하더라도 부모님의 살과 뼈를 받아 태어난 몸으로 어찌 부모의 연마저 쉽게 끊을 수 있겠는가? 혹 그것이 수행의 연장선상에서 도심에 방해가 된다 하여도 그것이 일도양단 할 수 있는 그런 일은 아닐거다.

스님들 중에서도 유난히 독한 마음을 가지고 세속의 정을 끊고 정진하는 스님들이 많다. 그러나 그 스님들의 내면속에 잠재된 의식은 아무도 알 수 없으리라. 내가 아는 어떤 스님이 있다. 많은 대중들속에서도 유난히 피부가 희고 고왔으며 항상 점잖고 넉넉한 성품으로 선 후배 스님들을 공경하고 잘 이해할 줄 알며 마음속 창공에 티끌마저 없어 보이는, 늘 푸른 눈동자를 지닌 해맑은 얼굴 모습을 한 스님이다. 원체가 조용하고 말이 없는 스님이라 있는듯 없는 듯 하면서도 언제나 얼굴에 미소를 잃지 않아 대중의 신뢰를 한 몸에 받는 그런 스님이었다. 오랜 시간을 그 스님과 지낸 후 우연히 알게된 사연 하나.

마주치면 그냥 합장반배 그리움 눈빛하나로 대신

해인사에 가끔씩, 아주 가끔씩, 잊혀질 만하면 보이고, 그렇게 한 며칠 보았다 싶으면 바람이 스친 듯 보이지 않는, 조용하고 부지런하며 단정한 노보살님이 계셨다. 작달막한 체구에 허리가 약간은 굽었지만 의젓함과 품위를 잃는 법 없이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보살님 이었다.

법당에서 기도하는가 싶으면 어느새 후원에서 채공일을 도와주시고 또 어느틈엔가 도량 청소를 하고 계시는, 무척이나 부지런한 노보살이었다. 도량에서 어쩌다 마주치면 깊게 패인 주름살 아래로 그저 한량없는 존경의 눈빛으로 합장 반배함으로써 스님들을 진심으로 공경할 줄 아는 그런 노보살이었다.

그 노보살에게 막내아들이 있었다. 그 막내아들이 출가 결심을 밝히자 잘 결심했노라고 격려해 주고 웃으며 보내 주었다고 한다. 그러나 불현듯 아들이 보고싶어지면 그렇게 바람처럼 왔다가 사찰의 이곳 저곳을 청소하고 일을 도와주고 기도도 하면서 먼발치에서라도 자랑스런 아들의 수행 모습을 지켜보다가 홀연히 떠나곤 했다.

그 보살의 막내아들이 그 스님이었다는 것을 우연히 누군가에게 들어 알게 된 것은 그 스님과 지낸 지 삼사 년이 지났을 때였다. 돌이켜보면 수많은 세월을 같이 부대끼며 살아왔는데 왜 우리는 몰랐을까? 그것은 두 모자의 성품이 너무도 올곧게 닮아 있어 서로의 수행과 기도에 방해가 되지 않게끔 마음의 고삐를 조이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의 눈에는 모자의 모습으로 비쳐지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우연히 도량에서라도 마주치면 그냥 합장 반배의 예만 올리고 마음속 절절한 그리움을 눈빛 하나로 대신하고 그냥 지나쳐야 했던 스님과 그 어머니.



깊게 패인 세월의 고통을 묵묵히 아들의 수행모습을 지켜보면서 혼자 삭여왔을 인고의 어머니. 그 어머니가 뒤에서 지켜봄을 뻔히 알면서도 한마디 말도 건네지 않고 힘든 수행의 길을 혼자만의 그리움을 안고서 이겨나갔을 스님. 그 모자의 모습을 보면서 새삼 인연의 정(情)이 얼마나 끈끈한 지를 느낄 수 있었다.

출가한 자식의 뒷바라지를 모든 스님들의 공경과 도량청소, 기도로 대신 하고 그 자식은 그 어머니의 사랑을 치열한 수행으로써 갚아 나갈 줄 아는 스님. 막내 아들의 수행이 깊어지면 질수록 정작 당신의 얼굴에는 주름살이 늘어가건만, 오히려 그 세월의 고통을 자랑스러워 할 줄 아는 노보살님과 연로하신 어머님의 모습을 지척에 두고 보면서 자신의 공부에 방해가 될세라 그냥 남남처럼 무심히도 지나치면서 그 어머님의 고마움을 가슴에 묻어두고 지내는 스님.

두 모자의 아름다운 수행의 모습을 보면서 새삼 인연의 소중함을 깨닫고 깊어 가는 계절의 초입에서 노보살의 무병장수와 스님의 수행공부가 일취월장하기를 가만히 빌어본다.

고려대장경연구소 기획실장



소장하면 소장할수록 가치가 높아지는 책

◆ 한국의 불화를 집대성하기 위해 전국의 사찰 및 국공립박물관, 대학박물관, 사립박물관 등 국내외에 산재한 불화를 직접 조사하여 수록하였습니다.
(현재 전국 11개 본말사 564개 사찰, 박물관 7개소, 1,621점, 3,674컷 수록)

◆ 원색도판을 풍부하게 실어 원화를 직접 대하는 느낌이 들도록 하였으며, 각 불화에 대한 해설과 함께 識記를 원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 이 불화집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의 가슴 속에 부처님의 자비심이 피어나고, 민족문화에 대한 새로운 자긍심이 싹트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 석정 큰스님–

◆ 한국불화의 전체적인 모습을 처음으로 집대성한 이 불화집의 간행은 신앙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문화사적인 측면에서도 큰 의의를 지닌다.
– 조선일보 –

原畵 그대로의 화려함이 살아 있습니다



○ 판형 : 가로 257×348㎜ (타블로이드판형)
○ 면수 : 각권 250쪽 내외
(원색화보, 해설, 논문, 화기 수록)
○ 장정 : 전면 컬러 · 양장제본
○ 발행처 : 성보문화재연구원
○ 가격 : 각권 90,000원

韓國의 佛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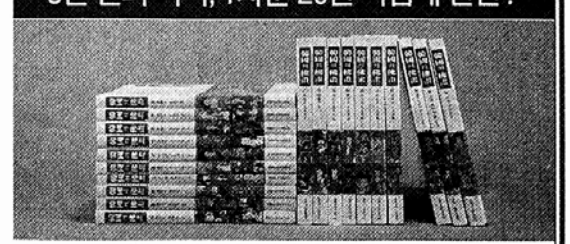
불교출판 사상 최대의 불사, 두 번 다시 하기 힘든 한국불화의 집대성

해를 거듭할수록 훼손으로 인해 친견하기 어려워지는 각종 불화들!
우리의 성보인 이 불화(탱화)들은 장엄한 불국토의 화현이요
신심의 결정체이며, 불보살님의 원만한 상호에서 우러나오는 복덕의 광명은
우리의 어둠을 없애주고 간절한 바람을 성취시켜 줍니다.
사단법인 성보문화재연구원에서는 10년의 조사와 촬영 끝에
『한국의 불화』 1차분 20권을 완간하였습니다.
아울러 완간을 기념하여 2개월 동안 특별 할인판매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부디 이 기회에 불화집을 구입하시어 불보살님과 함께하는
인연을 맺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보문화재연구원 이사장 범 하 합장

구입문의 / 성보문화재연구원 ☎ (02) 587-6612, 팩스 (02) 586-9078

5년 전의 약속, 1차분 20권 마침내 완간!



『한국의 불화』 1차분 간행목록(1996년~2000년)

제1권 통도사 본사 편(상)
제2권 통도사 본사 편(중)
제3권 통도사 말사 편(하)
제4권 해인사 본말사 편(상)
제5권 해인사 본말사 편(하)
제6권 송광사 본말사 편(상)
제7권 송광사 본말사 편(하)
제8권 직지사 본말사 편(상)
제9권 직지사 본말사 편(하)
제10권 월정사 본말사 편
제11권 화엄사 본말사 편
제12권 선암사 편
제13권 금산사 본말사 편
제14편 선운사 본말사 편
제15권 마곡사 본말사 편(상)
제16권 마곡사 본말사 편(하)
제17권 법주사 본말사 편
제18권 대학 박물관 편(I)
제19권 대학 박물관 편(II)
제20권 사립 박물관 편

『한국의 불화』 완간 기념 특별가 200질 한정보급
기간 : 2000년 11월 2일~12월 31일
보급가 : 1백만원(20권 1질, 현금결제에 한함)



◇이만익 作 '산사(山寺-청량사)'

불교의 세계관을 예술적 형식으로 담아내는 작업은 이제 한국문화의 큰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문학의 경우 멀게는 만해 스님에서부터 서정주, 구·까이는 황지우에 이르기까지 근현대사를 관통하며 양적·질적 부피와 성과를 축적해 왔다. 한 예로 가톨릭 신자인 소설가 최인호가 경허 스님의 삶을 〈길 없는 길〉이란 소설에 담은 걸 보면 종교적 범주마저 뛰어넘은 듯하다.

이런 흐름은 최근의 공연 예술 분야에서도 커다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바리데기 설화를 바탕으로 한 총체극 '두루왕', 세계최고 금속활자본 〈직지심체요절〉의 제작 과정을 오페라로 조현한 '직지' 등이 대형무대에 올랐고, 만해 한용운 스님의 작품을 바탕으로 한 '무애'는 올해 서울무용제(22회)에서 대상을 안았다.

미술 분야 역시 이러한 흐름에 원 고개를 젓지 않고 있다. 한국 현대미술의 주류에서 선(禪)적 분위기 또는 상생과 원융의 가치 추구는 특별한 일이 아니다.

왜 다시 '선'일까.

토속적인 소재로 한국적 화풍을 펼쳐온 이만익(62)씨와 80년대 민중미술을 대표하는 목판화가에서 90년대 이후 선적인 분위기가 짙게 풍기는 작품세계를 보여주는 이철수(46)씨. 단순·명쾌한 굵은 선과 색채로 대중적 공감을 얻고 있는 두 화가의 전시를 보면 이런 물음에 대한 답을 얻을 수도 있겠다.



◇이철수 作 '이렇게 좋은 날'

색으로 선으로 '상생과 원융'



이만익 '한국정서의 원형을…'

12월 17일까지 가나아트센터

300호 넘는 대작 8점 등 40여점

한국적 정서의 원형을 전설과 설화, 서민들의 삶에서 찾아온 서양화가 이만익씨의 '한국정서의 원류를 찾아서' 전은 12월 17일까지 서울 경창동 가나아트센터에서 열린다.

5년 만에 열리는 이번 전시회를 위해 이씨는 1천 호 짜리 '탈놀이', 500호 짜리 '석굴암 본존도' '새날' '무릉부감도' 등 300호가 넘는 대작 8점을 포함해 40여 점을 준비했다.

이번에 선보인 작품들은 예전의 틀을 이어 가면서도 주제의 폭과 표현 방법에서 변화를 꾀했다. 특히 '탑' '산사' '미륵반가사유상' '백제관음도' 등 불교 소재의 작품을 대거 선보이고 있어 눈길을 끈다. 불상이나 사찰풍경 등 불교적 소재가 작가 특유의 화법으로 재해석되어 나온다.

'삼불'은 미래불 등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소재지만 우리의 전통 한복을 입은 가족사진 같은 분위기의 삼존불로 재창조해 낸다. '행려관음도'에서도 한복차림의 관음보살은 다정다감한 '누이'와 '아낙'으로 새롭게 다가온다. 이밖에 한국 탈춤의 해학적 특성을 강렬하게 표현한 '탈놀이'에서부터 '하백일가도' '유화취적도' '주몽' 등 고구려 설화를 바탕으로 한 작품과 서민적이고 향토적인 '가족도' '도원취적도' 등을 선보인다. (02)720-1020



이철수 '이렇게 좋은 날'

22일부터 서울·부산 등 5곳서

짧은 잠언 투 문구 깊은 울림

충청도 박달재 비탈에서 땅 갈고 목관 깎으며 살기를 14년째. 목판화가 이철수씨는 1백34점이나 되는 '수확물'을 들고 22일 전국 5곳에서 동시에 전시회를 열었다. '이렇게 좋은 날'을 주제로 한 이번 전시는 서울 인사동 학고재와 소격동 아트스페이스서울을 비롯해 부산 공간화랑, 대구 예술미당솔, 전주 전북학생종합회관, 청주 무심갤러리에서 12월 16일까지 계속된다.

이씨의 판화는 무엇보다 곽차지절한 도시생활에선 맛보기 힘든 여백의 미를 담고 있다. 이번에 발표하는 신작들 역시 더 이상 보태고 빼기 어려울 정도로 단순화한 표현이 돋보인다. 게다가 그림 한 쪽에 자리잡은 짧은 잠언 투의 문구는 깊은 울림을 더해주기도 한다. 시서화가 한데 어우러지는 문인화의 전통을 판화에 도입한 이른바 '이철수식 판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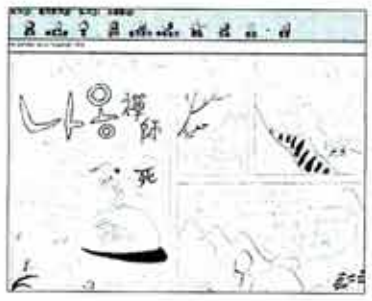
선화적 색채를 띠면서도 이씨의 작품은 고답적이지 않다. 논밭에서 일할 때, 큰길이나 시장에서, 지는 해, 떨어지는 낙엽 등 생활 속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지만 놓치기 쉬운 것들 속에서 작지만 소중한 깨달음을 끌어낸다. (02)739-4937

권형진 기자(jinny@buddhapia.com)

사이버 문화

깨달음으로 가는 길

만화로 보는 선사들의 삶



'깨달음으로 가는 길'(http://www.nestor.or.kr)에서는 선사들의 일대기 및 유명한 일화를 주로 그려온 만화가 윤승운씨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만화를 통해 선사들의 삶을 일반인들이 좀더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윤씨의 소망이다.

선사들의 치열한 구도행을 다루면서도 난해하기보다는 해학적으로 풀어내려 애쓰는 만화 '선사 일화'는 네티즌들에게 통쾌한 웃음을 선사한다. 나옹 선사의 일대기를 코믹 터치로 그려낸 '나옹 선사'는 어린이도 읽기 쉽게 천안하고 코믹한 어투와 표정을 담아낸 작품이다.

나옹 선사뿐만 아니라 경허·만공·동산 스님 등 역대 고승들의 탄생에서부터 출가와 수행과정 등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작품 16권이 올라와 있다. 불교교리를 일깨워 주는 '불가 일화'는 일반인들이 흔히 범할 수 있는 과오에 대한 경책을 담고 있다.

깨달음으로 가는 길에 수록되어 있는 윤승운씨의 만화 '선사 일화', '불가 일화'는 격주로 한 작품씩 업데이트된다. 이 홈페이지에서는 만화 외에도 선문답 코너를 개설하고 있다.

강지연 기자(jygang@buddhapia.com)

박봉현씨 '금상감 사천왕상 은제사리함'

전승공예대전 은상 수상

전통공예 분야에서 최고의 장인을 뽑는 제25회 대한민국 전승공예대전에서 박봉현(40)씨가 출품한 '금상감 사천왕상 은제사리함'이 은상을 수상했다.

'금상감 사천왕상 은제사리함'은 사리함으로는 보기 드물게 상감기법으로 제작한 작품으로 은으로 만든 사리함 겉에 사천왕상을 새겨 넣었다.

이밖에 조영희 씨의 '금니 108불'이 특별상을 받았고, 나혜안 씨의 '관음보살도', 김진철 씨의 '승무복', 이경노 씨의 '철제금은동입사담배함' 등이 장려상을 받았다.

한국문화재보호재단에서 한국무형문화재 기능보존협회와 한국중요무형문화재 총연합회 공동 주최로 바뀌어 열린 이번 대전에는 313명의 작가가 총 365종 749점의 작품을 출품했으며, 1·2차 심사를 거쳐 132명 143종 307명의 입상작을 냈다.

시상식은 12월 15일 오후 2시 서울 삼성동 서울중요무형문화재 전수회관에서 열리는 전시회 개막식과 함께 열린다. (02)569-2329

권형진 기자



◇은상을 수상한 '금상감 사천왕상 은제사리함'(박봉현 作).

문화소식

고려·조선 대장경 한자리 모였다

경북대 박물관 '고인쇄 展'

경북대 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내년 2월 20일까지 열리는 '고인쇄 유물 특별전'은 고려부터 조선 세조 대에 이르기까지 학술적 가치가 높은 고인쇄물과 전적 자료들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자리다.

이번 특별전에는 불교학, 서지학, 고문서학, 국어학, 민속학 등 여러 분야에 걸친 고인쇄 및 전적 자료 150여 점이 나와 있다. 이 대학 의과대학 동문인 김범구(52)씨가 25여 년 동안 모은 것이다.

개인 수집품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대장경 관련 자료들이 많다. 특히 눈길을 끄는 유물은 '자비도량참법해'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과 같은 활자로 찍어낸 것이다. 13세기 중엽 고려시대에 간행된 '합부금광명경'은 본문 옆에 구결이 달려 있어 한글 창제 이전의 우리말을 더듬어 볼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조선 세조 때 간경도감에서 펴낸 '반야바라밀다경소'도 인수대비의 발문이 붙어 있어 관람객들의 발길을 붙잡는다. (053)950-6536 권형진 기자

'한국 명무명인전' 하와이서 열린다

무량사-불은사 공동주최

하와이 무량사와 불은사가 12월 2일 오후 3시 하와이 마미아 극장에서 '새천년맞이 한국명무명인전'을 연다.

해외동포들에게 우리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마련된 이날 행사에서는 승무를 비롯해 살풀이, 태평무, 대금산조, 민요 등 전통무용과 음악이 공연된다.

출연진들도 화려해 양승희(중요무형문화재 제23호 가야금산조), 오은희(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이수), 김영애(무형문화재 제45호 대금산조이수자), 자은(무용가, 하와이 불은사 주지)스님 등 모두 중요무형문화재 이수자들이다.

오후 3시와 7시 두 차례에 걸쳐 열리는 이번 공연에서는 특히 20여 년간 불교 무용 포교에 힘써온 자은 스님이 '생로병사'를 주제로 한 무용을 선보여 해외에 한국 불교 무용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장고춤'과 '입춤', 전통민요인 '상주함창가'가 연주된다.

김주일 기자(jkim@buddhapia.com)

mahamall mahamall mahamall.co.kr www.mahamal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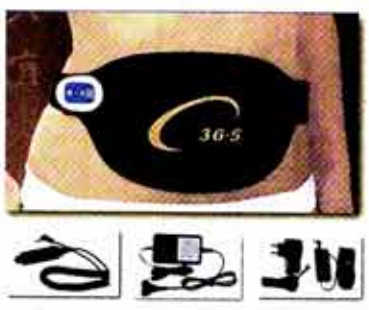
108나한단주



- 산복숭아씨를 조각한 100% 수공예 작품
- 염주 한 알에 6분의 나한님이 조각되 있음 (18알×6나한=108나한)
- 오래 소지할 수록 광택이 나며, 그 가치가 더해집니다.
- 고급케이스에 담겨 있어 선물용으로도 좋습니다
- 수작업으로 정성들여 직접 조각한 단주
- 재질 : 복숭아씨

가격 : 20,000원 (고급 케이스 포함)

죠온열 건강벨트



상품설명

죠온열 건강벨트는 건강회복, 뭉침, 쥐침, 기능을 원 터치로 가능하며, 원하는 온도조정(36.5°C~70°C까지)가능 그리고 매직벨트로 처리되어 허리사이즈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1. 동의대학교 한방생리학 연구팀과 한의사가 공동 개발한 제품입니다.
2. 온도조절기가 부착되어 피로회복, 쥐침, 뭉침 등 사용자가 원하는 온도로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3. 휴대가 간편하여 외출과 차량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특히 이런 분이 사용하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장이 약하신분, 소화불량자, 생리통 여성, 운전자, 수험생, 군인, 비만자, 산모, 배탈이, 연세드신 부모님

▷ 내용물 - 건강벨트, 온도조절기, 어댑터, 시가잭 충전기 / 밧데리(휴대용구입시)

색 상 - 검정, 그린, 베이지

가 격 : **가정용 105,000원 휴대용 180,000원**

아생참 인진쑥 액기스



상품설명

자연만을 고집하는 구생복지원 일행스님이 여러장의 고장 강원도 정선일대의 깊은 산속에서 자라는 아생 참인진쑥(茵陳蒿)을 여러 처사님들과 함께 직접 채취하여 고양산 자락에서 5년이상 자란 황기, 당귀, 자연산 복분자(산딸기)등 8종의 약초를 가미해서 강원남부생약농협 식품사업부에서 현대식 시설을 이용 위생적으로 추출 가공한 건강식품이므로 승려의 명예를 걸고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

※ 지금까지 시중에 유통된 인진쑥과는 다릅니다

상품 효능/효과

1. 변비에 좋습니다.
2. 피부를 윤택하게 해줍니다.
3. 피를 맑게 해 줍니다.
4. 손 발이 차거나 저린 사람에게 효과적입니다.
5. 오장육부를 따뜻하게 해줍니다.
6. 당뇨병 ? 신경통

- 내용량 : 80g × 60포 - 원산지 : 강원도 고양산
- 가 격 : 175,000원(2개월분)

CD 염불시리즈



영인스님 CD 염불 시리즈 20

1. 예불천수경
2. 석가모니불 정근
3. 관세음보살 정근
4. 화엄신중 정근
5. 약사여래불 정근
6. 천수경/아미타경
7. 장엄염불
8. 금강경
9. 장고가락 염불
10. 지장정근
11. 천도타령 염불
12. 회심곡
13. 부모은중경
14. 팔양경
15. 우리말 천수경
16. 지장경(상)
17. 지장경(중)
18. 지장경(하)
19. 신묘장구대다라니
20. 천도제 의식

가격 : 장당 10,000원

다량주문시 할인하여 드립니다 !

연옥 합장주



최상급의 연옥만을 엄선하여 만든 보석합장주는 14K 금자석에 부처님 또는 관자가 양각으로 아름답게 조각되어 있습니다.

상품 설명

금자석과 연옥을 함께 함으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하여 늘 긴장하고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모든 불자 분들, 직장인 특히 수험생에게 적합한 제품입니다.

※ 고급케이스에 대한 보석감정연구원의 감별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 연옥 합장주 : 90,000원
- 금자석 연옥합장주 : 150,000원

◎인터넷으로 접속하시면 더욱 풍부하고 다양한 상품과 정보를 만나실 수있습니다. Tel : 732-1522·732-1522



과연 그는 살아있는 부처인가

나의 아들 달라이 라마 — 어머니가 본 인간적 모습 생생
달라이 라마 이야기 — 누이가 적은 환생~망명 일대기
달라이 라마와의 대화 — '인간의식' 과학-불교입장 비교

히말라야의 한 언저리에 위치한 불교 나라 티베트. 어제는 세계인들의 정신적 안식처가 된 그곳엔 달라이 라마가 있다. 비록 그의 육신은 인도 다람살라에 있지만, 그의 사상은 지구촌 곳곳에 스며 있다. 많은 사람들이 달라이 라마의 법을 듣기 위해 그의 거처를 찾고 있다. 하지만 이제는 굳이 그곳을 가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책이라는 매체가 달라이 라마의 영혼과 교감을 이루게 하는 다리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달라이 라마의 설법이나 사상 등을 담은 책이 계속에 나오고 있는 가운데 최근 선보인 〈나의 아들, 달라이 라마〉(한언)는 어머니의 시각에서 달라이 라마의 인간적인 모습을 적고 있다는 점에서 새롭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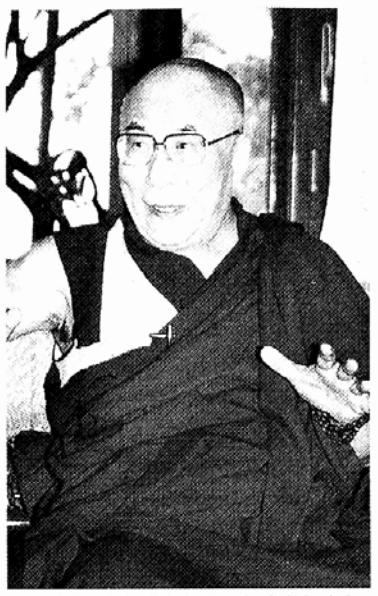
주민황(동국대 강사) 씨가 우리말로 옮긴 이 책은, 달라이 라마를 비롯 세 명의 환생자를 낳았던 티베트의 '위대한 어머니' 디끼체링의 일생을 담은 기록이다. 이 책은 달라이 라마의 탄생과 어린 시절의 불가사의한 행적들, 그리고 사절단들이 달라이 라마를 찾아와 그가 14대 달라이 라마로 인정되기까지의 과정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와 함께 이 책에서는 티베트의 문화와 관습, 그리고 사회상도 엿볼 수 있다. 글쓴이가 달라이 라마를 따라 티베트의 수도인 라사로 이주한 후의 생활, 그리고 티베트 정계의 내분과 중국 공산당이 티베트를 침공해 오기 시작해서 정권을 빼앗을 때까지의 과정 등을 상세히 적고 있기 때문이다. 눈밝은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티베트의 역사와 문화뿐만 아니라, 인도로 망명하기까지 티베트 사람들이 겪었던 고통과 지금도 중국치하에서 숨막히는 삶을 살고 있는 티베트인들의 고통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값 8천9백원.

또 달라이 라마 누이동생 젯슨 퍼마가 쓴 〈달라이 라마 이야기〉(김은정 옮김)는 글쓴이가 태어날 때부터 현재까지 듣고 본 달라이 라마 주변의 일들을 적고 있다. 이 책에는 달라이 라마의 환생부터 시작하여 현재 망명정부 티베트까지, 그리고 달라이 라마 주변의 사소한 일상에서부터 정치적 상황까지, 포탈라궁의 어린 시절부터 티베트 민족의 고유한 문화풍습까지 여러 측면에서 달라이 라마를 조명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달라이 라마가 어떤 사람인지, 그의 인격과 사상, 그리고 자유와 평화에 대한 의지가 어떠한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값 9천5백원.

〈달라이 라마와의 대화〉(이강혁 옮김)는 티베트 불교의 내면과 서구 문명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는 책이다. 달라이 라마는 2년마다 세계의 석학들과 함께 종교·철학·과학·환경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토론하는데, 이 책은 지난 92년 인도 다람살라에서 5일 동안 '인간의식의 문제'에 대해 논의했던 내용이다. 뇌와 수면과의 관계, 꿈과 무의식, 자각몽(自覺夢), 임사체험(臨死體驗)을 포함한 죽음의 문제 등을 현대 과학과 티베트 불교의 관점을 비교하면서 공통의 기반을 모색하려는 대화 내용이 담겨있다. 값 9천원.

시공사에서도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사진작가 게일컨 로웰이 티베트의 자연과 문화를 카메라에 담고 달라이 라마의 육성을 곁들인 〈달라이 라마 나의 티베트〉(이종인 옮김)를 내놓았다. 이 책은 '암도-북동쪽 국경지대', '유목민-고원에서의 전통적인 생활' 등 5부로 나뉘어 있으며 달라이 라마의 에세이 6편도 곁들여 있다. 값 9천8백원.

김중근 기자(gamja@buddhapia.com)


◇티베트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

'禪 철학인가…' 변상섭 지음

교학은 깨달음의 이론



선(禪)을 한다고 해서 누구나 내적 자유를 얻는 것은 아니다. 잘못된 수행법을 고집한다면 현실도피자나 신비주의에 빠지기 십상이다. 선 수행 과정에서 우연히 체험하는 신비로운 심적 상태를 궁극적인 깨달음이나 높은 수준의 정신상태로 착각하기 때문이다.

불교 철학자 변상섭 씨는 〈선 철학인가, 신비주의인가〉(컬처라인)를 통해 선을 설명하는 사람들이 교학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선이 대중화의 바람을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선을 신비주의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즉 교학이 선의 정신이론이란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는 이러한 문제점을 불교역사 속에서 찾는다. 선가에서 '교학을 버리고 선을 수행할 것(捨敎入禪)'을 주장함으로써 교학에 대한 연구가 소홀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사교입선은 경전만을 봐서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마음의 움직임을 끊고 해탈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한 것인데, 교학은 잘못됐고 선만이 옳다는 주장으로 곡해됐다는 것이다. 선의 본질에 대한 오해와 수행방법에 대한 논란이 적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란 주장이다. 글쓴이는 경전이나 논서들이 깨달음의 정신이론이라는 것을 하나씩 입증해 나간다. 값 1만2천원.

김중근 기자

티베트 불교가 전하는 인간완성의 길



미라래빠의 십만송 이정섭 옮김

1052년 티베트의 깡자짜 마을에서 한 사내아이가 태어났다. 그는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친척들에게 사기까지 당해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하게 된다. 결국 그는 원수를 갚기 위해 그 친척들을 모두 즉인다. 하지만 그는 그 충격으로 방황을 하다 마르빠라는 스승을 만나 수행자의 길을 걷는다. 20여 년 만에 깨달음을 얻은 후에도 동굴생활을 계속하며 틈틈이 마을로 내려와 보시자들에게 노래로 가르침을 전한다. 열반에 들 때까지 그는 수많은 중생을 웃기고 울리며 교화했다. 그가 바로 미라래빠(1052~1135)이다.

최근 시공사에서 샴발라 총서 일곱 번째 권으로 나온 〈미라래빠의 십만송 1·2·3〉(이정섭 옮김)은 미라래빠가 성취한 깨달음의 핵심을 담고 있는 책이다. 티베트불교의 정수를 담은 경전일 뿐만 아니라 문학적으로도 가치가 높다.

우리는 이 책에서 인생사의 온갖 모습을 볼 수 있다. 여러 도덕적인 교훈과 정신적인 가르침을 볼 수 있고, 우리의 관념을 초월하는 사건, 즉 기적의 시현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인간의 완성을 추구해 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길잡이들이 제시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책은 인생을 진지하게 살아가려는 사람에게 권하고 싶다. 한 번 읽고 버릴 책이 아니라 두고두고 되새기며 읽을 만한 책이기 때문이다. 각권 값 1만원.

김중근 기자

삶의 중심찾는 만다라 수행

만다라이야기 도열스님 지음



티베트 불교미술의 결정체인 만다라. 평소 만다라에 대한 궁금증을 가졌던 불자라면 도열 스님이 펴낸 〈만다라 이야기〉(맑은소리)를 읽어보길 권한다.

10년 동안 만다라 그리기를 수행의 호두로 삼아온 스님이 만다라의 모든 것을 그림과 함께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스님은 십 수년전 호암미술관에서 열린 '만다라 대전'을 접한 후, 그 우주적 메시지를 그림으로 표현하기에 매달려 여섯 번의 유화 만다라 개인전과 최근 컴퓨터그래픽을 통한 디지털 만다라 전을 갖기도 했다. 이 책에는 그런 스님이 만다라를 그리며 밀교이론을 새롭게 공부하고, 인도여행에서 느끼고 체험했던 내면의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제1장 '만다라'는 스님이 직접 그린 디지털화를 곁들여 만다라의 원리와 여러 상징들의 뜻, 만다라 명상법과 작법까지 세세하게 설명해 놓았다. 제2장 '순례기'에는 만다라의 원형과 석가모니 부처의 자취를 찾아 떠난 인도순례기를 사진자료와 함께 담았다. 값 1만3천5백원.

이은자 기자(ejlee@buddhapia.com)

새로나온 책



▲인터넷 시대, 종교는 사라지는가(도사마사키 지음, 송해숙 옮김, 한국학술정보)= 인터넷에는 수많은 종교관련 사이트들이 있다. 오랜 전통을 가진 종교뿐 아니라 이단시되는 신생종교들도 가상공간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 책은 인터넷과 종교의 관계가 내포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종교적 논제를 중심으로 조명한다. 그리고 사이버종교, 신종교논쟁 등에 대해서도 고찰한다. 값 1만원.



▲산중산책(법광 지음, 우리)= 참선과 함께 수행의 한 방편으로 글쓰기를 하고 있는 법광 스님의 수상집. 추사 김정희의 글씨에서부터 성문제까지, 캄보디아에서 캐나다·미국·프랑스까지 주제와 장소 시간을 초월한다. 그리고 스님의 수행처인 수덕사 운수암과 수행의 단상들을 적은 시(詩)는 이 책을 읽는 또 다른 재미다. 길을 잃고 방황하는 현대인들에게 따뜻함으로 다가오는 책이다. 값 8천원.



▲기도가 간절하니 가피를 입지(이동성 지음, 정우서적)= 10년 지장기도 원력을 세우고 7년째 정진증인 이동성 법사가 지장기도로 가피를 입은 사람들의 이야기 33편을 담은 영험록. 거룩한 믿음, 불국토에 피운 연꽃 등 네 가지 주제로 구성된 이 책은, 병원에서도 포기한 알 수 없는 병, 실직, 가족의 이산,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남, 영가천도, 진정한 보살의 임종 등 지장기도로 소원을 이룬 이야기들이다. 값 4천원.



▲사찰예법과 불자예절(성수 지음, 여래)= 처음 절에 온 사람들은 절의 여러 구조물이나 법구들이 어떤 의미를 간직하고 있고,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알지 못해 어리둥절해 한다. 불자들조차도 사찰예법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 이 책은 그 지침서로 삼을 만하다. 사찰에서의 예절과 사찰에 올 때의 마음가짐부터 절의 구조와 의미, 여러 전각의 주불과 석등 부도, 부처님의 생애와 여러 보살에 대한 설명, 참선과 염불, 그리고 주력 등 수행법 등을 사진과 함께 상세히 적고 있다. 값 5천원.



▲위대한 대통령은 무엇이 다른가(프레드 그린슈타인 지음, 김기휘 옮김)= 대통령학의 세계적 권위자 그린슈타인이 25년에 걸친 연구 끝에 내놓은 대통령 리더십의 결정체. 이 책은 리더십에 중요한 요소를 의사소통능력, 인식능력, 통찰력, 정치력, 감성지능이라는 5가지로 보고, 루스벨트부터 클린턴까지 20세기 후반을 통치한 미국 대통령들의 리더십을 심도 있게 분석한다. 값 1만5천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편자	출 판 사
1	선방일기	지 허	여시아문
2	원효의 금강삼매경론	은 정 희	일 지 사
3	단박에 윤회를 끊는 가르침	김 지 수	불 광
4	치문경훈	현 진	시 공 사
5	영가천도	우 룡	효 림
6	만행-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	현 각	열 림 원
7	이른 아침에 나를 기억하라	틱 낫 한	지혜의 나무
8	마음 하나에 펼쳐진 우주	정 화	법 공 양
9	전통사찰음식	적 문	우 리
10	빠빠지 면담록	데이비드 기든	탐 구 사

도서 안내:(02)737-0695

氣(마음)와 영혼의 신비한 세계

※ 본인들의 의식수준에 한해 개별적인 영가천도 능력 전수가 가능함

모습없는 모습으로 다가온 사람들



元極學 진여(眞如) 氣 수련원

진여氣 수련원 원장 윤정주著

신비한 기(氣)와 마음의 묘법을 밝힌 「모습없는 모습으로 다가온 사람들」(윤정주 著 도서출판 유림 펴냄) 우리에게 다반사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몸의 아픔과 우환이 우리의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영혼의 기(氣 : 에너지)체가 시공을 초월해 사람의 몸과 정신세계에 파장을 주기 때문에 비롯된다는 체험 이야기를 세계 역사상 최초로 그 이론을 누구든지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자세히 밝혀 놓았다.

저자는 독특한 초능력을 소유하고 나서도 저자의 능력에 관한 이론과 실체를 정확하게 세상에 밝히기 위해 오랫동안 중국을 왕래하며 원극학(元極學)의 이론과 실체를 배웠으며 또한 원극학의 진인(眞人)이신 장지상(張志祥) 교수와 장 교수의 모친으로부터도 한국인으로선 유일하게 그 실력을 인정받은 걸로 알려져 있다. 저자는 아무 곳에서나 어떠한 의식을 행하지 않고 그냥 1~2초에 영가들을 천도하며 동시에 상대의 아픔을 원격(遠隔)으로 해결하는 수행(修行)에서 얻어진 초능력을 본인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구사하고 있다.

현재는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에게, 또는 심한 정신적(정신질환)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게 그 원인과 이유를 설명해 주고 심신의 안정을 바르게 하며 살 수 있는 맑고 편안하고 깨끗한 자신의 기(氣 : 마음에너지)를 상대에게 주입시키면서 일상 생활 속에서의 자연스러운 수련 방법을 강조하고 있다.

- 매일신문, 영남일보 논평기사 중에서 -

지금도 우주공간에 떠돌고 있는 보이지 않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영혼들, 그러나 나는 그들의 천도(薦度 : 미흡한 무지에서 만들어낸 업(業)과 한(恨)의 의식 에너지를 전환시켜서 영계로 보냄)도 중요했지만 또 앞으로 그렇게 떠돌게 될 예비영혼들(현재 살아 있는 사람들의 마음자세)의 구제가 더 시급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글 솜씨를 마다하지 않고 이 책을 세상에 내놓았으며 또한 나름대로 한 사람이라도 더 빠르게 주어진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보다 차원 높은 사회를 위해서 진여 氣(마음) 수련원을 열었습니다.

- 책의 본문에서 -

우리 인간만이 가질 수있는 초월된 정신세계에 관한 아름다운 체험 이야기로 그에 뒤따른 아름다운 마음의 묘법을 누구든지 소유할 수 있다는 이치를 아주 쉽고 재미있게 밝혀놓은 도깨비방망이 같은 요술이 나오는 책입니다.

전국 유명 서점에서 절찬리 판매 중!

도서출판 유림 전화 : 02-736-7148, 723-3856

디지털 '고려대장경 2000' 시작에서 회향까지

7년-80억 투입 불사 내용입력 꼬박 1년 1백여명 작업 동참 후원자 2만명 '큰 힘'

표점작업 '현재 진행'

팔만대장경의 5천만여 한자를 수록한 디지털 대장경 '고려대장경 2000'이 완성됐다. 고려대장경연구소(소장 종림)가 93년 대장경 전산화의 첫발을 내딛는 데 의의를 찾자며 시작했던 '전산화 불사'가 회향한 것이다.

팔만대장경에는 고려인의 불심과 당대의 과학기술이 총체적으로 투영되어 있던 터라, 이를 CD롬으로 만들어 내는 일 역시 그만큼의 불심과 과학기술을 쏟아야 했다. 교수, 스님, 프로그래머, 오퍼레이터 등 1백여 명이 입력·교정·교감하고 이체자(異體字)를 찾고 해제를 만들고 새로운 폰트(컴퓨터용 글자)를 만드는 일을 7년 간 해왔다.

대장경 전체 내용을 입력하는 데만 꼬박 1년. 다시 입력된 글자를 경판 필름과 일일이 대조해 오·탈자를 찾는 데 10여 개월. 입력·교정·교감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완성된 교정본을 다시 읽고, 육안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것은 원판을 찾아가며 대조하기를 6차례나 반복했다.

연구소의 전산화는 의외로 교계 안팎의 열띤 호응을 얻었다. 타종교인까지 나서 후원자를 자처했고, 종단이나 정부 등 각계의 후원도 답지했다. 이 중에서 대장경 전산화 사업에 가장 큰 힘이 되었던 것은 2만여 명에 이르는 후원불자들이다. 연구소는 '고려대장경 2000'을 내놓기까지 10여 년 간 80여 억 원을 투자했는데, 이 중 50여 원은 후원불자들의 원력이다.

이에 힘입어 발간된 '고려대장경 2000'은 신수대장경이나 불광대장경을 제치고 '최초의 한역대장경 전산본'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이 시대의 가장 완벽한 전자 결집이자 한역대장경의 전산화 표준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교계는 벌써부터 "풍부한 철학적 정보를 가진 디지털 대장경이 한국불교의 미래를 밝힐 것"이라는 평가에서부터 "인문학 전반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는 전망에 이르기까지, 호의적인 반응과 기대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고려대장경 2000'에는 일자(一字)·용어·색인·목록 등 4종의 '검색'이 가능할 뿐 아니라, 1천514종의 경전을 해설한 '해제본(本)'과 이체자 2만9천478자를 수록한 '이체자전', '불교용어 사전', '유니코드 텍스트본'까지 제공하고 있어, 교계 안팎의 열띤 반응이 결코 과장이 아님을 스스로 증명해 보인다.

이체자전은 어느 사전과도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말 묶음이다. 대장경을 텍스트로 삼은 학자라면 웬만한 한문자전에서조차 찾을 수 없는 수많은 이체자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던 경험이 있던 터라, 이체자전의 완성은 이번 작업의 빛나는 성과 중 하나가 아닐 수 없다. 이체자란 말 그대로 '몸이 다른 글자' 즉 동음·동의어이지만 글자의 모양(形)이 다른 것을 말한다. 고려대장경에서 가장 많은 이체자를 가지고 있는 한자는 '뚫을 착(鑿)'자로, 무려 65종의 변형된 글자가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연구소는 '고려대장경 2000' 발간에 이어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다. 7년 간 미루어 왔던 '표점작업'이 그것이다. 한학의 대가라 하더라도 고려대장경과 같은 전적을 정면으로 돌파하여 해독해 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한 문장씩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게 하는 열쇠가 될 표점을 디지털 대장경에 적용한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분야의 다양한 연구자들이 경전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길이 열릴 것이다. 현재 연구소는 실상사 화엄학림과 함께 자체적인 표점작업을 진행해 오고 있는데, 2001년 하반기에 공개, 학계의 검증 과정을 밟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어, 또 한번의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고려대장경 2000', 고려대장경 연구소가 7년간 진행한 대장경 전산화의 결실.

"CD 15장에 대장경 담았어요"

인터뷰 고려대장경硏 소장 종림스님

"도반들은 경전이나 입력하는 하찮은 일을 더 이상 벌이지 말고, '창조적'인 일을 하라고 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대장경 전산화는 미래의 불교학 더 나아가 한국불교의 세계화를 이끌 수 있는 가장 창조적인 일입니다. 2만여 명의 불자들이 후원자로 나선 것도 이 때문이지요."

민족의 유산 팔만대장경을 15장의 CD에 담아낸 종림 스님. 대장경 전산화야말로 가장 창조적인 일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지난 7년 동안 고려대장경연구소를 이끌어온 스님에게 '고려대장경 2000'의 의미와 향후 계획을 들어보았다.

이제부터 '활용'이 문제

— 고려대장경 2000의 의미는.

▲팔만대장경은 1251년 완성된 이후 동북아 불교의 표준 장경의 위치를 지켜왔습니다. 적어도 활자본 신수대장경이 출판되기까지는 말이죠. 고려대장경 2000의 완성을 계기로 다시 그 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전산화에서는 먼저 개발한 쪽이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되는 데, 고려대장경 2000은 세계 최초 한역대장경 전산본입니다. 신수대장경에 대한 전산화를 진행하고 있는 대만의 CBETA(중화전자불전연구소)에서는 우리의 전산본을 저본으로 작업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동북아 대장경의 중심에 다시 서게 되는 것이지요.

— 대장경 전산화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는.

▲86년도에 해인사도서관장 소임을 맡고 있었는데, 당시 개인컴퓨터를 활용해 도서목록을 입력하면서 고려대장경의 전산화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일반도서관조차 컴퓨터가 없었던 터라 단지 꿈으로만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 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92년 혜묵 스님을 만나면서 세우기 시작했는데, 4년 뒤에 삼성문화재단의 도움을 받아 대장경 전산화의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 전산화 과정에서 학계의 지원은.

▲불교학계의 관심은 예상 밖으로 적었습니다. 그 분들은 기존의 고려대장경 인경본이나 신수대장경에 더 익숙해 있었던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애초 만들고 싶었던 한글과 한역경전을 함께 볼 수 있고 표점이 더해진 전산본을 만들지 못한 것도 이러한 사정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활용'의 문제입니다. 대장경의 대중화를 이루고 말 그대로 '대장경학'을 이룰 수 있기 위해서는 불교학자들의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고려대장경연구소는 학술대회나 워크숍에서 이러한 주제를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한편 '다언어 대장경'을 만드는 과정에서 불교학자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입니다.



— 국내 전산화의 방향은.

▲대장경 전산화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인터넷는 무엇보다도 통합환경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산화에 뛰어든 학자들이 여러 언어로 쓰여진 경전을 동시에 열람하고 비교·연구할 수 있게 하는 '다언어 대장경'에 적잖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통합환경을 위한 일정한 규약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문의 경우 SML(표준표기언어)라는 규칙을 만들어 통일되고 있지만, 한역의 경우 이러한 규칙이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한역대장경을 단락이나 문장부호를 사용해 의미별로 나누는 게 급선무입니다. 교계에서는 한글과 한문장경을 함께 읽을 수 있는 전산본으로 요구하는 데, 이런 규칙 마련이 선결 과제입니다.

불교학자들 관심 절실

— 고려대장경연구소의 향후 계획은

▲대장경 전산화의 국제 협의체인 EBTI는 축소될 것입니다. 당초 협의체는 대장경 전산화 관련 기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결성된 것인데, 현재 경전 전산화의 가장 핵심이었던 언어 구현 방식이 '유니코드'로 확정되고 있고, 이에 따른 전산화 형식도 일정한 틀을 갖추고 있습니다. 즉 EBTI 설립 취지가 희석되고 있으니, 그 역할 또한 축소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전산화에 쏟는 노력보다는 이들 성과물을 어떻게 활용하는 가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고려대장경연구소는 '전자문화지도' 관련 국제기구인 'ECAI'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 일은 또한 불교학의 자료에 머물러 있는 고려대장경을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로 알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경주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전망 밝다

불교 문화의 보고인 '경주역사유적지구'에 대한 세계문화유산등록 여부가 27일부터 12월 2일까지 호주 케언즈에서 열리는 제24차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된다. 〈차주상보〉

문화재청과 경주시청은 지난 6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세계유산위원회 의장단회의에서 경주역사유적지구 등록을 권고키로 결정함에 따라 등록 전망이 밝다고 판단하고, 기념행사와 축하공연, 학술회의 등을 준비하고 있다. 지금까지 유네스코 본회의는 의장단 회의에서 권고한 안건을 수용하는 것을 관례로 하고 있다.

문화재청 강경환 사무관은 "이제까지 우리가 등록을 신청했던 5건의 문화유산이 모두 적격판정을 받았다"며 "호주 케언즈 회의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유적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이번에도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경주역사유적지구가 세계유산으로 등록되면 불교 문화의 가치와 그 예술성을 국제적으로 공인 받는다는 의미 이외에도 과학적 보존을 위한 유네스코 차원의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경주역사유적지구에는 황룡사지(사적 제6호), 분황사 석탑(국보 제30호), 남산 미륵곡 석불좌상(보물 제136호), 남산리 삼층석탑(보물 제124호), 배리 석불입상(보물 제63호), 남산 신선암 마애보살반가상(보물 제199호) 등 30여 개의 불교 문화재들이 있다.

세계문화유산은 현재 1백18개국 6백30건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불국사, 석굴암,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 창덕궁, 수원화성 등 5건이 등록돼 있다.

오종욱 기자

원효창건 운흥사지 내년까지 발굴조사

신라시대 원효 스님이 창건한 운흥사의 복원 및 정비를 위한 학술·발굴조사가 12월 초순부터 본격화 될 전망이다. 울산시와 문화재청은 16일 한국문화재보호재단에 운흥사지에 대한 조사를 의뢰해 2001년 상반기까지 경상북도 울주군 웅촌면 고연리 산218 일대 절터의 면적과 구조, 건물 윤곽 등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내년 하반기에 발굴조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시와 문화재청은 조사 결과에 따라 절의 복원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원흥사는 원효 스님이 창건했고, 조선시대에는 경전을 간행했던 절로 알려져 있다. 현재 건물은 없고 이름 모를 스님의 사리나 유골을 봉안한 것으로 추정되는 부도 2기만이 절터 주변에 남아있을 뿐이다.

한국불교학회 12월 2일 학술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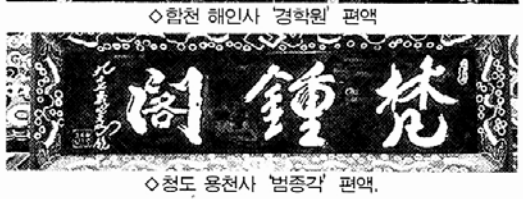
한국불교학회(회장 목정배)는 12월 2일 오전 9시 등국대 학술문화관 덕암세미나실에서 제34회 추계 불교학술발표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에는 쯔까모또 게이쇼(동북대·일본) 명예교수 등의 특별 강연에 이어 불교교학Ⅰ·불교교학Ⅱ·불교사학 및 응용불교 등 3분과로 진행된다. 불교교학Ⅰ 분과에서는 '백제 현광의 교화행에 대한 연구'(이기운) 등 6편, 불교교학Ⅱ에서는 '아비달마불교의 새로운 인식을 위한 시론'(권오민), '초기불교의 연기설에 나타난 세계관의 내재성'(대원스님) 등 5편, 불교사학 및 응용불교 분과에서는 '도생의 이(理) 개념에 반영된 현각사상'(차차석), '〈삼국유사〉의 연기사관'(고영섭) 등 5편이 발표된다. (02)2260-3121

사찰 편액을 찾아서

㉙ 환경의 해인사·용천사 편액



◇함천 해인사 '경학원' 편액



◇청도 용천사 '범종각' 편액.

환경 효동(幻鏡曉東·1887~1983)은 경상남도 합천 출생으로, 13세 되던 1899년에 해인사 백련암(白蓮庵)에서 연응(蓮應)을 은사로 출가하여, 1902년에 사미계, 1908년에 비구계를 받았다. 이후 그는 주로 가야산에 머물며 선리참구와 불교 포교에 힘썼으며, 해인사 교무와 주지를 지내기도 하였다. 또한 환경은 1919년 용성(龍城), 만해(萬海) 등을 만나 탑골공원에서의 3.1만세운동에 참여하였고, 1929년 홍제암(弘濟庵)에 머물 당시엔 독립정신을 고취하는 내용의 시조 '백로가'를 지어, 유포한 죄로 옥고를 치르기도 하였다.

환경은 어려서부터 사서(四書)를 배워 한학에 조예가 깊었고, 평생 서도에 정진하며 붓을 놓지 않은 것으로도 유명하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관세음보살로부터 꿈에 붓을 얻고 뜻한 바 있어 글씨 쓰는 것을 포교의 일환으로 삼았다고 한다. 환경은 그의 성품만큼이나 준건한 행서를 잘 썼는데, 합천 해인사 〈경학원〉, 〈선불장〉, 〈수월문〉, 〈금선암〉, 〈죽림선원〉, 청도 용천사 〈범종각〉, 거창 송계사 〈극락보전〉, 〈육화문〉, 〈덕유산송계사〉 편액 등이 대표적이다.

해인사 '경학원'

호방하게 쓴 선필행서

용천사 '범종각'

97세때 썼지만 힘차

합천 해인사 〈경학원〉 편액에는 '해방후이년 병술지추 사문 환경(解放後二年 丙戌之秋 沙門 幻鏡)'이라는 관지가 있다. 지금은 승가대학 도서관으로 쓰이는 경학원은 본래 왕실의 안녕을 비는 '경흥전'이었던 것을 1946년 해인사 주지를 맡은 환경이 전각의 명칭과 편액을 바꾼 것이다. 편액의 글씨는 호방하게 써 내린 선필 행서이며, 관지에 '해방후이년'이라 써넣은 것에서 독립에 대한 고의 남다른 감회를 엿볼 수 있다.

청도 용천사 〈범종각〉 편액에는 '구십칠세 효동 임환경(九十七歲 曉東 林幻鏡)'이라는 관지가 있다. 이 편액은 환경이 97세로 입적하던 해인 1983년 절에 종각을 새로 건립하면서 쓴 것이다. 함께 걸려있는 범종각 주련도 그의 글씨인데, 환경의 글씨는 사찰의 편액보다는 주련으로 많이 남아 있는 편이다. 편액의 글씨는 노경의 글씨임을 한눈에 알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지만 젊은이 글씨 못지 않은 기상을 지녔다.

안병인 〈대한불교진흥원〉



◇대형 건물터들이 중첩되어 있는 실상사 제12호 건물터 모습.

실상사서 대형건물터 발견

부여문화재연구소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는 21일 전북 남원 실상사 발굴조사에서 100평 남짓한 대형 건물 터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부터 발굴 조사를 실시해 온 연구소에 따르면, '제12호'라고 이름 붙인 건물 터 지층에서 동서 3칸, 남북 5칸 이상의 남북 장방형으로 전체 규모가 동서 11m, 남북 26m에 달하는 대형 건물터를 새롭게 발견했다는 것이다. 대형 건물 터 바닥과 바깥에서는 통일신라시대 것으로 생각되는 암·수막새 기와와 청자조각, 중국 백자조각 등이 출토돼 건물터 축조시기를 추정케 하고 있다.

이 외에도 실상사 3층 석탑 중 동쪽 탑의 서남쪽 지역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석탑 터가 발견됐다. 연구소에 따르면 이 곳에 세워졌을 석탑은 가로 6m20cm, 세로 5m20cm, 깊이 75cm의 정사각형으로 땅을 파내고 평평한 돌을 깐 다음 갈색사질 점토를 판축 기법으로 바닥을 다진 상태에서 조성된 추정된다.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최맹식 소장은 "이외에도 회랑 터로 추정되는 대형 건물터를 조사하고 있는 중"이라며 "실상사의 역사적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는 이들 건물 터와 석탑 터에 대한 정밀한 조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종욱 기자

"남녀평등은 오늘의 깨달음"

"경전 여성관 재해석" 김호성 교수 주장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평등 사상이 있다는 데 누구도 이견을 달지 않지만, 정작 〈사분률〉이나 〈법화경〉 등의 경전에는 여성을 폄하하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이러한 모순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이에 대해 김호성(사진·동국대) 교수는 "부처님의 깨달음 자체에 여성관과 같은 현대의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답이 포함됐다고 볼 수 없다"며 "평등적 여성관은 경전에 대한 현대적 이해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해 주목된다.

김 교수는 〈수관 이범세 거사 고희 논총〉에 기고한 '불교의 여성관 정립을 위한 해석학적 모색'이라는 논문에서, 부처님의 여성관을 밝히는 것보다는 경전에 나타난 여성 차별을 어떻게 극복하는 가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교계 여성주의 학자들의 논지를 환기시켰다.

김 교수에 따르면 부처님의 깨달음으로서의 불교는 과거완료형이지만, 그 깨달음이 시대와 사회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응답·대화·존재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결코 완료될 수 없는 문제다. 따라서 부처님의 깨달음과 시대와 사회의 깨달음이 만나서 대화함으로써 불교 여성관을 새롭게 형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차별적 여성관은 인도 사회의 깨달음이라면 여성의 평등은 오늘날의 깨달음"이라며 "경전에 나타난 여러 가지 차별적 여성관은 부처님의 본의가 아니며, 다만 우리는 이를 어떻게 비평·극복해 가야할지 고뇌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우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김 교수는 우선 경전의 내용에서 여성 평등을 다루고 있는 곳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즉 오늘날 불교해석학의 한 원칙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요의경에 의지하고 불요의경에 의지하지 말라'는 불교 경전의 구절에서 그 방법론을 찾은 것이다. 요의경이란 '여성관'과 같은 특정한 사상의 본질을 밝힌 내용을 담고 있는 경전을 뜻한다.

현대적인 불교의 여성관을 추론하는 과정에서 일차 사료는 경전인데, 동일한 경전 속에서도 서로 상반된 내용들이 공존하고 있어, 요의경에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논문에서 〈유마경〉과 〈승망경〉에 나타난 여성관을 분석한 김 교수는 "경전은 열린 텍스트인 만큼 '이해'나 '용납'이라는 관점에서 읽기보다는, 해석학적 방법론에 입각해 경전의 여성 차별을 비판·극복해 가는 미래지향적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종욱 기자

불 속으로 반야다라의 몸이 휘감겨 들어갔다



원로 언론인 **이규행**이 쓰는

달마이야기 ⑨

(8) 남천축에서의 화행(化行)

역사의 기록에는 반야다라가 게송을 통해 보리달마에게 법을 전해 주었다고 쓰여있다. 물론 이 기록이 틀린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가섭 존자 이래로 단전(單傳)돼온 법통은 단순히 게송으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소리만이 아닌 빛과 파장(波長)으로 현관(玄關)에 지점(指点)됨으로써 전해지는 것이다.

반야다라는 보리달마에게 마지막 게송을 읊은 다음 두 손바닥을 활짝 폈다. 곧 이어 손바닥 한가운데서 오색찬란한 빛이 발산되었다. 눈이 부셔 바로 볼 수가 없었다. 동시에 반야다라의 몸이 공중으로 솟구쳐 올랐다.

사방으로 퍼지던 오색의 빛살은 순식간에 활활 타오르는 큰불이 되었다. 그 불 속으로 반야다라 조사의 온 몸이 휘감겨 들어갔다.

보리달마가 이런 광경을 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커다란 놀라움 속에서 조사를 향해 엎드렸다.

"조사님, 안녕히 가십시오."

맹렬한 불길은 곧 사그라졌다. 이윽고 공중에선 사리가 우박처럼 쏟아져 내렸다. 보리달마는 승복을 걷어올려 쏟아져 내리는 사리를 황망히 받아 안았다. 사리에선 영롱한 빛이 감돌고 향기가 사방에 퍼졌다. 보리달마는 다시 공중을 향해 수없이 절을 했다. 사리를 소중하게 받들고 본당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이어서 정중하게 의식을 치렀다.

'능가경'을 법보로 삼아

보리달마는 반야다라 조사의 가르침을 잊을 수가 없었다. 그 가르침은 날이 갈수록 더욱 새롭게 다가왔다. 그는 조사가 물려준 4권의 능가경(楞伽經)을 법보로 삼았다. 스승이 말한 대로 보리달마는 남천축에서 교화에 힘을 기울였다. 중생들을 향해 널리 무상(無相)을 선양했다. 무상으로써 망념(妄念)을 깨뜨리고, 무상으로써 실상(實相)을 드러내게 하여 자신을 닦아 '진여(眞如)' '열반(涅槃)' '법신(法身)'을 이루는 것이 정도라고 가르쳤다.

보리달마는 일체의 상식적인 앎이 모두 진실이 아님을 체득해야만 비로소 진실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런 경계(境界)에 도달하기 위한 방편으로 '벽관(壁觀)'을 강조했다. 흔히 달마의 '벽관'은 소림사에서의 9년 면벽이 처음인 것처럼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 체계는 이미 오래 전에 갖추어진 것이었다. 이것은 이른바 이입사행(二入四行)도 마찬가지다. 이것 역시 보리달마가 남천축에서 이미 가르쳤던 것이기 때문이다.

달마의 '벽관'은 대개 '면벽'과 동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심지어 벽을 향해 앉는 것과 벽을 등지고 앉는 것으로 나누어 벽관을 설명하기도 한다. 그러나 '벽관'의 참뜻은 그런 것이 아니다. 마음을 벽과 같이하여 망념이 끼여들지 못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나아가 '이입(理入)'을 통해 자기 마음의 청정한 본성을 깨달아 열반을 증득하고 해탈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 보리달마의 가르침이다.

보리달마는 이입(理入)과 함께 행입(行入)을 강조했다. 행입은 네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해서 사행(四行)이라고도 부른다. 사행의 첫째는 보원행(報怨行)이다. 힘든 길을 닦으면서도 원망하지 않음을 이르는 것이다. 둘째는 수연행(隨緣行)이다. 후박(厚薄)과 득실(得失)을 따지지 않는 것을 이르는 것이다. 셋째는 무소구행(無所求行)이다. 탐욕을 버리고 소유를 끊는 것을 이르는 것이다. 넷째는 칭법행(稱法行)이다. 일체의 행위가 법상(法相)과 맞아야 함을 이르는 것이다.

> **"보리달마는 승복을 걷어 쏟아져 내리는 사리를 황망히 받아 안았다"**

이입(理入)과 행입(行入)을 합해서 이입(二入)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두 가지가 뜻하는 바는 바로 반야성공(般若性空)의 공(空)을 구하는 것이라고 일컬어진다.

보리달마가 남천축에서 교화에 힘쓸 무렵 그 곳엔 이름 높은 두 사람의 선사(禪師)가 있었다. 한 사람은 불대선(佛大先)이고 또 한 사람은 불대승다(佛大勝多)였다. 이 두 사람은 일찍이 보리달마가 천상사(天象寺)의 발타대사(跋陀大師) 문하에서 공부할 때 만난 도반이었다. 당시 발타대사는 소승선(小乘禪)을 대표하는 인물로 명성이 높았다.

그러나 보리달마는 인연 따라 반야다라의 수제자가 되어 법통을 잇게 됐다. 반야다라는 소승을 버리고 대승선(大乘禪)을 배우라고 가르쳤다. 보리달마에 뒤이어 불대선도 반야다라의 대승선 문하에 들어왔다. 불대선은 차츰 두각을 나타내 보리달마와 함께 이른바 감로이문(甘露二門)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름을 떨쳤다.

하지만 불대선은 보리달마와 전혀 달랐다. 여전히 소승선법을 숭봉하며 널리 문도들을 거두니 그의 문하엔 재재다사(才才多士)가 모여들어 가히 천하를 뒤덮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 많은 문도들은 제각기 갈라져 별도로 자기의 견해를 내세우며 교화를 펼치기 시작했다. 이래서 생겨난 것이 이른바 육종(六宗)이다.

종파들 설복해 하나로

육종의 첫번째로는 유상종(有相宗)이 손꼽힌다. 두번째로는 무상종(無相宗), 세번째로는 정혜종(定慧宗), 네번째는 계행종(戒行宗), 다섯번째는 무득종(無得宗), 여섯번째는 적정종(寂靜宗)이다.

이처럼 여러 종파가 생기자 적지 않은 혼란이 일어났다. 서로 의리(義理)를 저버리는 일까지도 벌어졌다. 어느 쪽이 옳고 어느 쪽이 그른가 하는 논쟁이 끊이질 않았다.

보리달마는 이런 상황을 매우 마땅치 않게 여겼다. 그는 소승이니 대승이니 하며 나누는 것 자체를 불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해 왔던 터였다. 그는 갈수록 도를 넘어서는 종파들의 다툼을 그냥 두고만 볼 수 없었다. 어떻게 하든 종파들을 설복해 하나로 귀의시켜야만 한다고 마음먹었다.

보리달마는 가사를 걸치고 서둘러 길을 나섰다. 그가 맨 처음 찾은 것은 유상종의 살바라(薩婆羅) 존자였다.

이윽고 한낮이 다 되어 유상종의 본거지에 도착했다. 때마침 빗방울이 후드득 떨어지더니 이내 검은 구름이 몰려들었다. 금새라도 한바탕 폭우가 쏟아질 듯 싶었다. 그는 발걸음을 재촉하여 산문에 들어섰다. 산문 안에선 노승 한 사람이 손을 이마에 대고 먼 곳을 살피고 있었다. 보리달마는 성큼 노승 앞으로 다가갔다.

"삼가 여쭙겠습니다. 살바라 선사를 찾아뵈러 왔습니다만…."

노승은 찬찬히 보리달마를 살펴본 후 두 손으로 합장하며 대답했다.

"대사께서는 어디서 오셨습니까? 무엇을 보여 주시려고 오셨습니까?"

보리달마는 어깨를 젖히며 한바탕 크게 웃었다.

"제가 제대로 찾아왔군요. 유상종의 존자를 이렇게 만나다니…. 오래 전부터 명성은 익히 들어 왔습니다만,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노승은 짐짓 놀라면서 물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대사의 법호는 어떻게 되시는지요?"

"예에, 저는 보리달마라고 합니다."

그 소리를 들은 살바라는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보리달마가 찾아오리라곤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보리달마가 누구인가. 석가모니불의 27대 조사인 반야다라의 법통을 이어받은 28대 조사가 아니던가. 일찍부터 만나고 싶었던 분이 몸소 산문을 찾아 왔으니 그 놀라움과 감격이란 이루 형언할 수 없었다. 살바라는 보리달마가 이처럼 온 데는 깊은 뜻이 있으리라고 짐작했다. 황공스런 자세로 옷깃을 여미며 몸을 숙였다.

"조사께서 이렇게 왕림해 주셔서 영광이옵니다. 미처 알아뵙지 못하고 제대로 맞이하지 못해 송구스러울 따름입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보리달마도 합장하며 고개를 숙여 읍했다.

"조사께서 오셨으니 반드시 무슨 가르침이 있으시리라고 믿습니다. 어서 안으로 드셔서 말씀하시지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보리달마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살바라를 뒤따랐다.

두 사람이 들어선 방은 넓고 밝았다. 정면엔 옻칠한 검은 제단이 놓여 있고 그 위에 석가모니불의 목조각상이 모셔져 있었다. 남쪽으로 난 창문은 활짝 열려 있었다. 창 밖으론 작은 뜰이 보였다. 창가엔 장방형의 책상이 놓여 있고, 책상머리엔 한 무더기의 경전이 쌓여 있었다.

살바라는 매우 정중하게 보리달마를 상석으로 모셨다. 그러나 눈길은 보리달마의 얼굴에 꽂혀 떠나질 않았다. 굵은 눈썹 아래의 두 눈이 그렇게 맑을 수가 없었다. 맑은 눈 속의 깊이는 도저히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다. 일체를 통찰할 수 있을 것 같은 모습에 살바라는 마음과 몸이 함께 떨렸다.

보리달마가 좌정하자 살바라가 공수(供手)하며 공손하게 물었다.

떨리는 살바라의 마음

"삼가 여쭙겠습니다. 조사께서는 무슨 가르침을 주시려고 하시는지요? 소승은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듣건대, 존자께서는 스스로 하나의 종파를 세워 이름을 유상종이라고 하셨다지요. 빈승(貧僧)이 여기 온 것은 그 가르침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르침이라니요, 당치도 않으십니다."

살바라는 당황해하면서 손사래를 쳤다.

순간 보리달마가 벌떡 일어섰다. 정색을 하면서 살바라에게 질문을 던졌다.

"빈승이 듣기로 유상종은 실상(實相)을 중시한다던데, 일체의 모든 법을 어찌 실상이라고 할 수 있소?"

살바라가 응수했다.

"제상(諸相) 가운데서 함께 될 수 없는 것을 이름하여 실상이라고 합니다."

보리달마는 껄껄 웃었다.

"일체의 형상 가운데 서로 함께 될 수 없는 것을 실상이라고 이름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정한단 말이오?"

살바라가 지체없이 대답했다.

"제상 중에는 실로 정해짐이 없고, 정해진 것이 있다면 그것을 실상이라고 할 수는 없지요."

보리달마는 머리를 가로저었다.

"당신이 말한 대로라면 제상은 정해짐이 없고 이를 실상이라고 칭한다는 것인데, 지금 만약 정해짐이 없다면 당신은 그것을 어디서 얻을 수 있소?"

살바라는 멈칫했다. 그러나 곧 이어 강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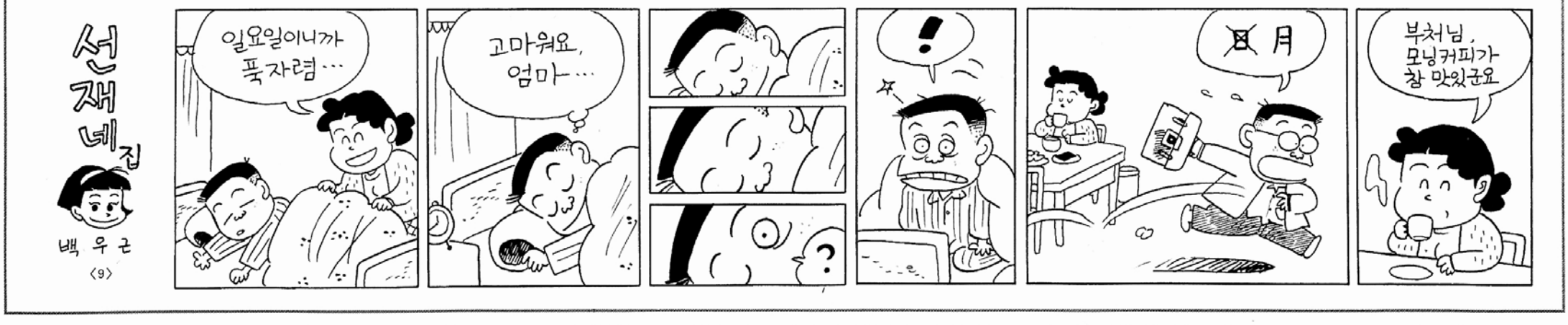
"제가 정해짐이 없다고 한 것은 제상을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제상을 말한다면 당연히 정해짐이 있지요."

보리달마는 큰소리로 웃었다.

"그런 것이 아니오. 그것은 틀렸소. 당신이 말하는 정해짐이 없는 것을 만일 실상이라고 칭한다면 그것은 곧 정해지는 것이니, 실상이라고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오."

살바라는 보리달마가 순간적으로 헛짚었다고 생각했다. 기회를 포착했다고 관단한 살바라는 기세 등등하게 논리적 공세를 펴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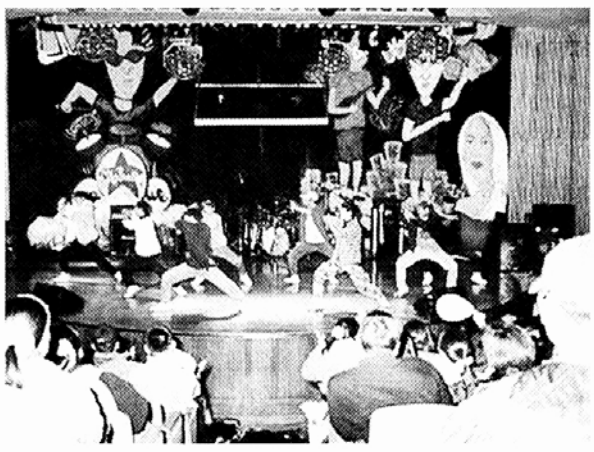




SALE
좋은 잠자리가 젊음을 줍니다.
건강을 사겠습니까? 이제 돌침대를 쓰셔야 합니다.
아무나 쓰는 흉내만 낸 돌침대가 아닙니다. 최고급 원목, 최고의 기능
리빙스톤 원적외선 돌침대는 선택받은 귀하만의 것입니다.
▶ 200만원으로 돌침대를 쓰시겠습니까?
스프링 매트리스 침대를 사겠습니까?
■ 침대에 주사를 놓는다구요? 펀드기, 먼지, 알레르기, 습기에서 완전 해방
■ 이직도 침대에 전기장판을 쓴다구요? 온도는 자유롭게… 4계절용 돌침대
■ 돌매트에서 원적외선, 음이온이 꽃아져 배기는 느낌이 없고, 척추 교정 효과가 있습니다.
원적외선이 하는 일 : 혈표를 촉진하고 효소생성을 부활 시키고 세포를 다시 젊게 하고 지방 분을 배설하여 건강한 젊음을 유지시킵니다
옥단 902
원앙 202
화조
101 싱글보료
옥스톤
리빙스톤 원적외선 돌침대의 효능…
◆몸속 깊숙히 원적외선이 전달됩니다.
◆유해전자파, 정전기를 완전 제거하고, 수맥을 차단하였습니다.
◆평생 A/S로 안심하고 대를 물려 쓸 수 있습니다.
◆한달 전기료는 12,000원 안팎(1일 10시간 사용 기준)으로 부담없습니다.(2인용)
◆고유가시대, 난방비를 절약하는 방법 - 리빙스톤 돌침대로
▶특허받은 전자파 완전 제거장치 침대에 설치◀
아침건강 - 베게가 좌우합니다!
뇌 혈액순환 촉진으로 머리를 맑게하는 옥숯베게
▶ 자고 나면 머리가 띵하고 어깨가 뻐근 합니까? 베게를 바꾸십시요.
▶ 통풍이 잘되고 세탁도 간편한 옥숯 베게
35,000→12,000원 【택배비는 별도 소박스 3500원】
서두르십시오 부담없는 가격~
※단체 주문 환영※ 침대 3대이상 단체 구입시 특별 할인 가격 우대!! ☎ 02)424-9427 / 2203-7821

수능 뒤풀이 불교문화공간 '활짝'

◇고3 수험생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체험 행사가 준비되고 있다. 사진은 댄스 경연대회 모습.



"수능시험 마친 고3 수험생들 문화공간으로 오세요."

15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났다. 하지만 성적이 발표되려면 한달 정도가 남았다. 그래서 고3 수험생들은 아직 대학입시의 스트레스에서 완전한 해방감을 맛보지 못하고 있다. 자칫 잘못하면 갑자기 다가온 자유를 주체할 수 없어 탈선에 빠질 수도 있다. 또 수험생을 둔 부모들도 자녀들이 늦게라도 들어오면 혹시 탈선에 빠지지 않을까 근심 걱정이 태산이다. 이제 이런 고민은 안해도 된다.

댄스·영화·참선교실 열어 스트레스 풀고 탈선 예방

교계 청소년 수련관과 청소년 단체들이 고3 수험생을 위해 댄스, 영화, 서예, 예절, 참선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마련해 놓고 있어 이를 잘 활용하면 고교시절의 마지막 시간을 알차게 보낼 수 있을 것이다.

목동 청소년수련관은 12월 23일 '고3을 위한 스트레스 파티'란 주제로 수련관 강당에서 노래와 댄스 공연대회를 연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국악과 풍물놀이를 비롯해, 그룹사운드, 밴드공연, 서울시내 방송동아리들의 방송제 등도 함께 펼쳐져 그동안 수험생활로 지친 고3 수험생들의 스트레스를 말끔히 해소해 줄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열린청소년상담실은 대학입시로 인해 심신의 불안을 호소하는 학생들을 위해 12월 한달동안 불교기초교리강좌와 참선교실 및 달동네 자원봉사활동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특히 디지털 청소년 법당에서 홍자운 법사의 지도로 열리는 '참선교실'은 아직 시작도 안했지만 신청자가 줄을 이을 정도로 인기가 높다.

부산양정청소년수련관에서는 명상프로그램, 힙합페스티벌, 전통음악 강좌 등을 개설해 놓고 고3 수험생들을 기다리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을 위해 마련된 사랑방에서는 랩파티, 생일파티, 춤파티 등을 무료로 즐길 수 있어 호응이 좋다.

이외에도 서울 청소년수련관에서는 서예교실이 열리며, 노원청소년수련관에서는 홈페이지 제작법을 알려준다.

김주일 기자(jikim@buddhapia.com)

◇고3생 위한 문화행사 프로그램

주 최	전화번호	프로그램명	일 지	내 용
목동청소년수련관	(02)2646-6815	고3 스트레스 파티	12월23일	댄스, 풍물, 노래 경연대회
디지털열린청소년상담실	(043)257-0807	고3 수험생 심신안정	12월	불교기초교리 및 참선
부산양정청소년수련관	(051)868-0750	문화강좌	12월	힙합댄스, 명상체험 강좌
서울청소년수련관	(02)2267-2111	서예교실	12월1일~21일	경전 및 서예지도
경창청소년수련원	(02)779-4900	소년소녀가장 문화체험	12월26일~29일	공동체놀이, 민속활동
보라매청소년수련관	(02)834-6413	영화감상 제대로 하기	11월 27일~12월8일	영화감상 기초이론 강의
노원청소년수련관	(02)3391-4141	홈페이지 제작 강의	12월8일까지	홈페이지제작 방법 강의
청소년직업체험센터	(02)679-9200	청소년 입체 문화체험	12월1일~24일	영화, 음악 미술 특강

주부 신행담

기도하며 사는 삶 ㊦

남편의 49재를 명진 스님에게 부탁했다. 평소 남편이 존경하던 분이라 스님이 극락왕생을 축원해 주면 남편도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49재를 지내러 법당에 들어가기 전까진 해인사 곁에 살면서도 삼배조차 올려보지 못한 내가 재를 지내는 동안에는 무엇에 이끌렸는지 잘 모르지만 수많은 절을 올렸다. 아마도 절을 올릴 때마다 잡념이 사라짐을 느꼈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절을 많이 하니까 몸은 힘들어 속 늘어졌지만 땀방울을 걷어내니 마음은 한결 편안해졌다.

수행의 맛을 알았기 때문일까. 49재가 끝난 뒤부터는 법당을 찾는 시간이 잦아졌다. 나는 해인사 앞에서 여관과 식당을 경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후에는 시간이 많이 남았다. 그래서 틈만나면 마음을 달래기 위해 10분 거리에 있는 해인사 경내를 산책삼아 올라다녔다. 특히 나는 법당보다도 팔만대장경이 모셔져 있는 판전을 찾아가 참배하는 것을 좋아했다.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 수많은 어려움속에서도 부처님말씀을 목판에 새긴 조상들의 불심을 생각하면 내가 겪는 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많은 위안이 됐다. 오랜 인고의 세월속에서도 변함없이 항상 여여하게 판전을 지키고 있는 경관들을 나무 창살 사이로 바라보며 나에게 주어진 이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올렸다.

그렇게 기도를 올리다 보면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겠다는 힘과 용기가 생겨 좋았다.

관전을 내려오다 듣게되는 스님들의 염불소리도 그때부터는 대중가요의 노래보다 더 감미롭게 내 마음속을 파고 들었다. 남편의 빈자리가 커져 외롭고 괴로운 마음이 들때마다 이렇게 해인사 법당과 판전을 찾아가는 일은 자연스럽게 반복됐다. 가만히 방에 누워 생각을 해보니 아마도 전생에 불가와 지중한 인연이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을 자주한다. 어릴 때부터 독실한 천주교 신자였던 내가 이제는 부처님이 없으면 삶을 살아갈 용기가 안나니 말이다.

이제는 항상 여관이나 식당에서 일을 할 때도 염주를 손에 걸고 일을 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하다. 또 밤에는 틈나는 대로 〈금강경〉과 〈천수경〉 등 경전을 독송한다.

이를 본 손님으로 오는 스님이나 불자들이 불심이 대단하다며 자주 찾을 정도로 이제는 제법 불자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다. 우리 집에 놀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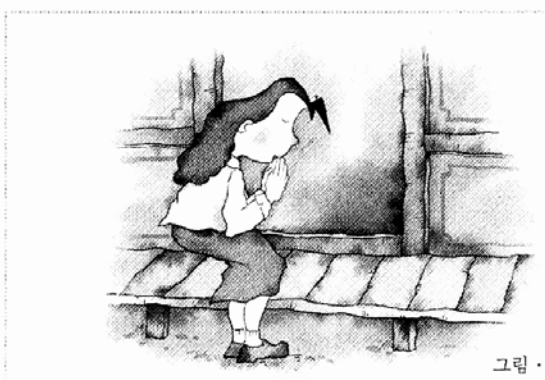


그림 · 이준석

'최선 다해 살자' 힘과 용기 생겨

온 친구나 친척들이 아직은 그래도 젊은데 이런 산중에 살면 외롭지 않느냐는 질문에 한마디로 나는 'NO'라고 일축해 버린다.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의지할 수 있는 부처님이 지척에 있다고 생각하나 마음이 든든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는 해인사로 들어와 살게 되는 인연에 감사하게 생각한다.

요즘은 백련암에 올라가 성철 스님의 유훈을 느끼며 용맹정진도 하고 내려온다. 사업을 하기에 철야 정진은 못하지만 절하고 난 뒤에 느끼는 환희심이 좋아 독송보다도 절을 많이 하려 한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지 5년이 지났다. 이제는 어느 정도 삶의 고비를 넘긴 것 같다. 모든 것이 부처님께 의지해서 얻은 가피라 생각된다. 남은 생도 수행 정진을 통한 보살행을 많이 닦아 다음생엔 수행자가 되겠다는 큰 원을 세워본다. 〈끝〉

전혜진〈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윤제학기자의 손 이야기 ⑦



■ 손의 청결과 건강

손의 청결은 건강과 직결된다. 하루하루 사는 일이 손을 쓰는 일이기 때문이다. 문을 열 때, 밥을 먹을 때, 버스나 전철을 탈 때 그리고 화장실에서 볼일을 마친 후에도 손으로 마무리를 해야 한다. 따라서 손은 수많은 병원균의 온상이자 매개체가 된다. 식중독 집단 감염의 대표적 원인도 요리하는 사람의 비위생적인 손이다.



손에 의해 감염되는 질병으로는 감기, B형 간염, 유행성 결막염, 식중독 따위가 대표적이다.

'감기'는 너무 흔해서 병으로도 여기지 않지만 독감, 폐렴, 바이러스성 뇌수막염 등으로 전이되면 생명을 앗아가기도 한다. 요즘 감기는 주로 사람과의 접촉에 의해 호흡기로 감염되므로, 집으로 돌아와서는 반드시 양치를 하고 손을 씻어야 한다.

'B형 간염'은 간세포의 파괴에 의한 간 기능의 저하를 부르는 무서운 질병이다. 자주 손을 씻어 감염 경로를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수건이나 면도기의 공동사용, 술잔돌리기도 금물이다.

감기·간염 막으려면 외출후 꼭 손 씻도록

'유행성 결막염'도 더러운 손에 의해 전염되는 질병이다. 전염성이 특히 강하므로 집안에 발병자가 있을 때에는 수건이나 물컵은 따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식중독'이야말로 전염의 주원인이 더러운 손이다. 청결한 손으로 요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고, 대중 음식점에서 주는 물수건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손, 자주 씻을 수록 좋다.

불교학교 선생님의 '참회와 발원'

불레포 12월 9~10일 지도자교육

불교레크리에이션포교회(이하 불레포)는 어린이 포교의 활성화를 위해 열리는 '겨울불교학교 지도자 양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불레포는 12월 9일부터 1박2일간 조계사에서 '참회, 발원, 그리고 회향'을 주제로 특별 강좌를 마련한다.

특강과 실기교육 등으로 나눠 열리는 이번 교육에서는 노래, 춤, 만들기, 놀이 등 겨울불교학교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실무를 각계 전문가를 초청해 체계적으로 익히게 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교육에는 이론보다는 실기 지도의 비율을 늘려 교육을 받은 지도자들이 포교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아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각 사찰 유치부 교사를 비롯해 군종병들도 참가할 수 있다.

이번 교육에서는 △찬불가 및 게임노래, 김세은(피아노강사) △레크댄스 등 춤, 조형준(레크리에이션 전문강사) △불교공예, 이기태(한국전통등연협회 회장) △놀이, 이성훈(선재이벤트 실장) 등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참가비는 3만5천원이며 온라인으로도 접수를 받는다. (http://cafe.daum.net/BURUNA). 접수마감은 12월 3일까지다. (02)738-7860

김주일 기자

청소년단신

동아리 I·W 댄스대회 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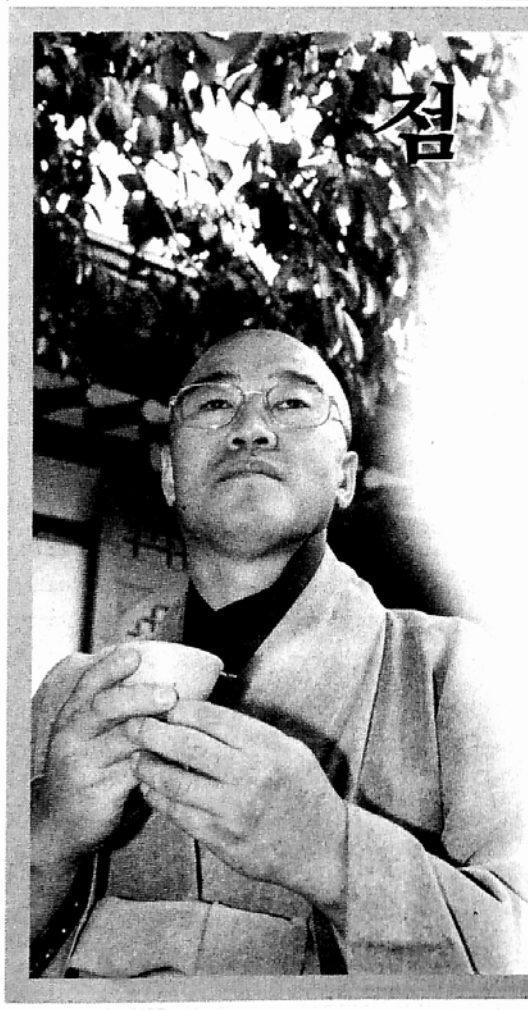
목동청소년수련관 댄스동아리 I·W는 12일 여의도 시민공원에서 열린 '서울 유스챔피언대회'에서 그룹댄스 부문 은상을 수상했다. 이번에 은상을 차지한 I·W는 고등학교 1~2학년 재학생 7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중학교 2학년때부터 활동하며 각종 지역대회나 교계 행사 때 다수 출연 및 수상한 경력이 있을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한편 (사)한국청소년마을이 주관한 이번 행사에서는 서울시내 청소년 동아리 총 22개팀이 참가해 열띤 경합을 벌였다.

12월 18~23일 만화축제

부산 양정청소년수련관은 12월 18일~23일 '2000 청소년 만화축제'를 연다. 이에 앞서 수련관은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극화, 카툰, 캐릭터, 에니메이션 등 4개 부문에 걸쳐 작품을 공모한다. 만화축제 기간중에는 △만화작가와의 만남 △만화벽화그리기 △댄스·노래 공연 등의 부대행사도 열린다. (051)868-0750

진선여중 노인 김장 담가

진선여중은 24일부터 27일까지 독거노인을 위한 '김장 담그기' 행사를 벌였다. 이날 연화학생회와 학부모 등 40여명이 모여 담근 김장 김치는 포장해 수서지역 독거노인들에게 전달됐다.



찰 대 법 회 占察大法會

어둡고 고통스런 현실을 점찰 기도로 밝게 살아갑시다

사람은 누구나 개개인의 개체를 가지고 살고 있지만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가지는 못한다. 그것은 무형 세계(無形世界)와 유형 세계(有形世界)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그것을 미리 알고서 세상을 살아간다면 열린 세상이 될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밝힌 사상이 점찰 사상으로서 『점찰업보경(占察業報經)』에 담겨져 있다. 점찰 사상은 지나온 세상을, 또한 미래에 전개되는 앞날의 일을 밝힌다. 이 점찰 사상은 신라와 고려를 거쳐 조선 중기까지 찬란하게 꽃 피어 이어져 내려왔다. 조선 중기부터 사라진 점찰 사상을 선양하기 위해 20여 년 간 은거하며 수행을 하고 확철대오하여 세상에 나오신 설선당 무산(蕓禪堂 撫山) 스님께서 기도 법회를 열었다. 어렵고 힘든 현실에서 앞날에 전개된 운명을 알고 가야 할 것이다. 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참 불법을 깨닫고 거룩한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살아갑시다.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을 추구한다.

운명의 업(業) 속에 숨겨진 엄청난 비밀은 어떤 것인가?

· 왜 못 사는가? / · 왜 하는 일마다 안 되는가? / · 왜 계속하여 아픈가? / · 왜 불구가 되는가?

· 왜 단명하는가? / · 왜 남녀가 부부로 만났다가 쏘라린 이별을 하는가? / · 왜 예측하지 못한 사고가 일어나는가?

본인의 운명(業)이 나쁘다면, 자식의 운명이 잘못되었다면 그냥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사람마다의 운명(業) 속에는 행운과 액운이 숨겨져 있음을 알아야 하며 이러한 운명을 사전에 알고 액운을 막고 가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점찰기도 수행이다.

3일 기도, 7일 기도로 앞날의 운명이 훤하게 보일 것이다.

기도법회 문의 : 경덕사 종무소 (054)745-0527

大韓佛教曹溪宗 景德寺 海會禪院
경북 경주시 인왕동 129번지

會主 蕓禪堂 撫山

다담선(茶湛禪)을 알고 다도(茶道)를 하는가

다담선이란 차를 마시면서 선수행을 하는 것으로
고려의 대각 국사 의천 스님이 9백여 년 전 우리 나라에 들여왔다

- 고승들이 중생에 전하는 찻잔 속 깨달음의 향기들 – 조선일보
- 우리나라 다담선의 맥을 처음으로 정리해낸 보고서이자 다담선의 부흥을 알리는 선언문 – 연합뉴스
- 찻잔 속에 詩가 있고 詩 속엔 禪이 있다 – 문화일보
- 끊어졌던 다담선의 선맥을 정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끄는 책 – 국제신문

▶설선당 무산 스님 지음/선국판 양장/272쪽/값15,000원

한국 역대 고승高僧의 茶詩

"다담선의 선맥(禪脈)을 밝힌다"

110-300 서울 종로구 관훈동 192-13 성지 B/D 503호
TEL. 733-4277(代) FAX. 733-4279 명상

통과! 통과! 넘기고 붙들지 마세요

아무 생각없으니 편안해요

문 마음의 어떤 상태에 대해 여쭙고자 합니다. 눈앞에 큰일이 있으면 내내 그 생각에 시달리면서도 그것을 이용하여 공부가 되게 하려고 애를 쓰기도 하고, 그러다가 혼란스러워 차라리 다 치우고 명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다시 또 머리가 아파와서 주인공을 새겨보려 하지만 늘 주인공이라는 글자만 떠오르고, 매번 이런 식의 일들이 반복되니 몹시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다가 언젠가는 '에잇, 모르겠다' 하는 생각과 함께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더니 비록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고뇌도 없고, 생각도 없고, 생각이 없다는 그 생각도 없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 상태가 편안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잘못된 상태 같아 겁나기도 해서 다시 제 의식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 짧은 한순간의 제 마음상태가 바른 것입니까, 엉뚱한 것입니까? 그 한순간이 바른 것이라면 늘 그 상태가 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 상태에서 흔들리지 않게 안팎으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지켜봐야 하는 것 입니까, 가르침 주십시오.

답 "이것은 꼭 이렇게 돼야 해!" "이렇게 해야 이것이 제대로 하는 거야." 하고 붙들고 있다가 한순간 그것을 놓은 바 없이 놓고 보니 마음이 후련해진 것이지요. 내가 늘 얘기하듯이, 내가 있어서 모든 것을 해나간다고 붙들고 있는 생각들을 앞뒤 없이 놓되,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주인공에다 믿고 놓아야 내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아예 거둬지면서 근본에다 일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삶의 보람을 느끼고 자유스럽게 살아가려면 것에 얽매이지 마세요. 모든 것을 주인공이 들이고 내고, 가난함도 가난치 않음도, 어떠한 일이 생기는 것도 안 생기는 것도, 아픈 것도 안 아픈 것도, 일체를 거기서 하는 거니까 그 자리에 그냥 놓으라는 겁니다.

놓아야 된다는 그 생각마저도 붙들지 마시고 무조건 놓고 가야 합니다. 그렇다고 믿지 않고 포기하는 놔버림이 아니라 오직 근본에 일임을 해서 믿고 놓으세요. 잘하고 못하고, 죽고 사는 것도 주인공만이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세상살이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죽으면 죽고 살면 사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살 양으로 애를 쓰니까 그냥 더 더욱 삶이 고달프고 힘이 들게되는 것이지요. 죽든지 살든지 죽이든지 살리든지 너 알아서 해, 하지만 주인공과 둘이 아니게 하나가 됐을 때는 바로 그 자기가 자기 거든요. 그러니까 죽이든지 살리든지 겁을 내지를 않아요. 누구한테 맞아 죽는다 하더라도 겁을 내지 않구요. 태워 죽인다 해도 겁을 내지 않구요. 찌른다 해도 겁을 내지 않으니까 겁내지 않는 만큼 자기 주인이 시자를 돌보게 되죠. 이 시자는 가다가 절리든지 어쩌든지 그냥 근본만 믿고 돌아가니까, 근본이 보디가드가 돼서 주위로 죽 서서 지키듯이 그렇게 여러분을 지켜드립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살게 되면 주인공이 보디가드가 돼서 항상 뒤따르면서 돌보게 돼요. 그러니 사량으로 지어서 짊어지고 있는 모든 것을 부려놓고 자유스럽게 살기 바랍니다.

질병이나 고난 생겼으면…

문 저는 지원에서 예불도 참석하고 신행회도 가입해서 이 공부를 막 시작한 초심자입니다. 아직 선원에 다닌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살아가면서 다가오는 모든 고난과 역경이 내 안의 근본에서 나를 공부시키기 위한 과제라는 것이 실감이 나지는 않습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신행회에 나오시는 보살님들은 공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질병이나 고난이 주인공의 나툼이며, 공부의 재료라고 생각하고 근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공부해 나간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도리를 체득하려면 체험이 필요하고, 그 체험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스님, 저에게 공부할 수 있는 재료가 너무 없어서 다른 분들처럼 분발해서 공부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것 인지요? 그렇다면 저도 어떤 병에 걸린다거나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어야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더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올바른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답 공부를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좋으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게 공부할 재료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보다 세심하고 진지하게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마음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바깥으로 닥치는 과제도 과제거니와 중요한 것은 어떤 순간에서건 일어나는 내 마음을 지켜볼 수 있는 지혜의 눈이겠지요. 나는 지금 이 생활에 대해 얼마나 감사의 회향을 하고 있나, 나는 공부가 오히려 바깥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 그런 것도 살펴보시고요, 마음은 허공이어서 그대로 탁 틔었으면서도 머리털 한 오락지 보다 더 섬세하기도 한 것이죠.

어떤 분들은 공부를 하면서 '요런 병을 내가 가지고 왔으니까 이 병으로 인해서 공부를 해보겠다.' 하는 그런 의욕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또 안 되는 걸 가지고 안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공부할 수 있다고 붙들기도 하구요. 그러나 붙들지 마세요. 그 모든 걸 한 찰나에 그냥 넘기세요. 통과, 통과하고 넘기세요. 본래 이 세상 평등 진리는 그냥 통과, 통과, 통과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본래 여러분이 그냥 놓고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공부 아니겠는가 하고 붙들고 있다면 그것도 공부라는 말에 매이는 형국이지요. 여러분이 공부라고 이름 붙일 것도 없는 이 마음의 길을 한걸음 한걸음 걸어나가다 보면 결국은 '아, 공부를 정말 잘 해야 하는데 하는 그 마음조차도 놓아야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 병이 바로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요인이다. 이걸로 인해서 내가 공부하지 않나 하고 붙들고 있으면 그 병이 길어져서 더 고통을 받게 되죠. 왜고(苦)를 만들어서 받습니까? 그러니 통과, 통과하고서 닥치는 것에, 스스로 오는 것에 대해서 모든 걸 놓지 않으면 안돼요.

여러분, 한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생각이 말입니다. 오늘밤에 도둑질하러 가야겠다고 마음먹으면 자기 의식들이 그대로 따라주고요, 오늘은 좋은 일 하러 가야겠다고 마음먹으면 또 그대로 따라줍니다. 마음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에 따라서 몸이 튼튼해질 수도 있고 약해질 수도 있고, 과거의 업보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하는 수도 있죠.

그러니 모두가 내 한생각에 달려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사소한 것 하나라도 내 생각으로 즉시즉시 처리해 버리지 마시고, 내면에서 모든 것을 해결을 할 수 있게 믿고 맡기는 작업을 진실하게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근본과 언제나 함께 하려면…

문 저는 청년회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제가 요`근래에 공부를 해나가면서 의심나는 것이 있어서 이렇게 질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스님께서는 근본을 부(父)로 마음내는 현재의 식을 자(子)로 표현을 하시면서 자가 부를 믿고 따르기만 하면 부는 언제나 자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믿음이 부족해서인지 나의 근본인 부가 항상 함께 하고 있는 것 같지 않고 나의 잠재의식이 모든 것을 다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스님, 언제쯤에나 모든 일을 저의 부와 자유스럽게 함께 할 수 있을지 마음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스님의 말씀처럼 부와 자가 상봉을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합니까? 멀리에 있는 것만 같은 나의 부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저의 답답한 마음을 시원하게 해 주실 수는 없는지요.

답 부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고 물으니까 똥둑간의 똥 막대기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에서 그렇게 말한 겁니까. 부모가 자식을 기르는 걸 가만히 보세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 똥을 닦아주든 뭘 하든 항상 자식을 떠나는 법이 없어요. 자불(自佛)이 자기를 떠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한 번도 떠나지 않고 큰 거든 작은 거든 다 손살피 돌보고 있는데 자기가 돌보는 줄을 몰라서 그렇죠.

불(佛)은 우주를 싸고 있는, 전체 소용돌이를 쥐고 있는 부(父)입니다. 그러니 자는 부를 따라야죠! 첫번째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내가 모르니까 부를 따라서 들어가되, 예를 들어서 배가 고프다고 하면 밥을 주고, 친구들이 놀린다고 하면 아버지가 아들이 되어서 다 처리를 해주죠. 그때는, 이걸 서로 넘나든다고 표현을 해도 되겠죠. 자는 부에게 넘나들고 부는 자에게 넘나들게 되자 나중에는 합일이 되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넘나들어도 자기가 모르니까 무조건 맡고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무조건 믿고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넘나들면서 온갖 처리를 해도 모르고 모두 사는 거죠.

부는 자에게로 자는 부에게로 넘나드는데 그걸 모르고 사니까 무조건 자는 부를 믿고 감사하고, 또 어떤 요구를 해도 거기에 하고, 병이 나더라도 부에게 낫게 하고 모든 걸 거기에 대고 하란 말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부에 믿고 맡기다 보면 자연히 부와 친근하게 된다고 말을 해줘도 '부에다 모든 걸 일임을 했는데도 안돼요.' 이러거든요. 설사 제대로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부가 자에게 실험을 하는 거로구나!' 하는 걸 알아야만 그 부분이 없어지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의심이 풀린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다가 어떤 일이 생겼다고 해서 의심을 하면서 안 된다는 생각으로 붙들지 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와 자가 결합이 되면 자기가 말하는 게 그대로 법이 되는 것입니다. 또 자기가 말할 때 한생각 내지 않고 그냥 말을 했어도 그냥 쓸 수도 있어요. 무심코 그냥 쓸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주장자가 잡히게끔 모든 것을 의심하지 말고 오직 자는 부를 믿고 모든 것을 일임하고 나가세요. 그래야 부와 자가 하나로 들어서 무(無)의 행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과론 납득이 되질 않아요

문 불교에서는 내가 결국 부처라고 했는데, 어떤 곳에서는 부처를 신앙의 대상으로 여기는 데가 있습니다. 부처님한테 빌면 병도 낫고 소원도 이루어진다는 거죠. 사실 부처님은 신이 아닌 인간이지 않습니까? 내가 부처라고 했으니까 말입니다. 저는 이런 내용이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그리고 인과론을 중시하는데, 현생을 보면 전생을 알 수 있고 또 역시 현생을 보면 다음 생을 알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병을 갖고 태어나는 애들은 전생에 그리 많은 죄를 지었던 겁니까? 그렇게 맑고 착한 아기들이 업보로 인해 그런 힘겨운 운명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이 잘 납득이 가질 않아서 궁금하고 답답합니다.

답 자력을 키우지 않고 부처님이 무엇을 해결해 준다고 믿고 어떤 위대한 힘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고 빌러 다니는 것은 쪽박을 들고 얻으러 다니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자기 안의 무한한 보배를 모르고서 말입니다. 불교라는 것은 국한되게 어떤 사람들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진리예요. 그러니까 불과 법, 승이 다 한데 합쳐서 자성 삼보와 둘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생명도 둘이 아니요, 몸도 둘이 아니요, 마음도 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하죠. 법당에 와서 일정례를 하든지, 삼정례를 하든지, 칠정례를 하든지 간에 내 몸은 부처님 몸과 같고, 내 마음 낸 것은 부처님 법과 같고, 부처님 형상은 내 모습과 둘이 아니라고 그랬죠. 항상 그렇게 하면서 법당에 들어와서는 부처님에 하나로 합치고, 나갈 때는 자신으로 한데 합쳐서 나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둘이 아니게 되죠. 그러니 자기 형상을 무시하면 자기가 무시가 되는 거니까 형상 부처님을 무시하지도 않게 되고 부처님을 무턱대고 떠받들지도 않게 되죠. 삼천년 전 부처님이다 할지라도 바로 여러분이 지금 여기 계시기 때문에 각자 여러분입니다. 그러니 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서 진실을 알고 본다면, 부처님이 너무 위대해서 눈물이 날 지경일 겁니다.

그리고 인과에 대해서 물어오셨는데, 얼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어느 아이가 불집게를 가지고 놀다가 같이 놀던 아이 정수리를 찔러 죽였어요. 그런데 죽이려고 해서 죽인 게 아니에요. 불집게를 가지고 놀다가 그냥 어떻게 잘못해서 죽은 거지.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전자에, 그 애가 지금 이 애를 그렇게 죽였더라구요, 셀매 꼬챙이로. 그러니까 이게 피장파장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이 집에서 만약에 보상을 해라 뭘 해라 이런다면 도루묵이 돼버리고 원수가 돼버려요. 그렇게 되면 죽인 건 살생의 문제를 넘어서 인과성으로 또 들어간단 말입니다. 업보로 또 입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 다가오는 모든 것에서 자유스러워 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오로지 주인공을 믿고, '당신이 가다가 엎어지게 했으면 당신이 일어나게 해야지, 누가 일으켜 주는 게 아니잖아. 전생에 내가 살면서 악업, 선업을 지었다면 당신 자리에서 악업, 선업도 지은 거니까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도 당신이지' 하고는 턱 놓으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잘 되면 우리가 지수화풍으로서 지수화풍을 먹고 사는데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나 하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이 공부를 해나간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 잘 이해가 안 가더라도 나름대로 무슨 뜻이 있어서 그럴 것이다 하고 모든 것을 수긍하면서 배워 가신다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대우받고 사실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본래 갖추어져 있는 나의 근본을 찾는 공부를 진실히 해서 나와 남을 다 이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오르시기 바랍니다.

놓고 잊어버려야 하는 겁니까

문 스님께서는 항상 주인공에 믿고 맡겨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믿고 맡겨 놓으라는 말씀은, 경계나 문제가 닥쳐왔을 때 "당신만이 할 수 있어, 당신이 한 것이니 당신이 해결해, 당신이 진정코 있다면 있다는 것을 증명해 봐"하고 주인공에게 놓고 아주 잊어버리는 것인지요? 또 맡겨 놓은 경계와 문제가 다시 생각났을 때 "주인공, 당신만이 할 수 있어"하고 맡겨 놓고 잊어버리고 생각을 안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다시 한번 말씀 주십시오.

스님께서 꽃이 시들한 것을 보시고 '싱싱한 꽃으로 역할을 해 보라' 하시고 잊어버리시고, 몇 일 뒤에 가보시니 꽃이 생생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만, 주인공에 놓고 맡긴다는 것은 주인공에게 닥쳐온 경계나 문제를 관하고 아주 잊어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인지요? 다른 사람들의 경계나 문제는 "주인공이 다 알아서 하겠지요, 잘되겠지요" 하고 잊어버리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들의 경계나 문제는 애착심이 있어서, 잊어버리지 못해서 또 들고 나오고, 또 들고 나오고 하니 풀리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런지요?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어리석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너무 중요해 또 여쭈어 봅니다.

답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몰록 놔버리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이 세상 모든 일체 만물이 다 공했으니 그 공한 자리에다 놔버리라는 겁니다. 그럼 놔버리는 자는 누구고 '놔라' 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놔버려라' 하는 자도 공이요 '놔버린다' 하는 자도 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했으면서 말을 한 사이가 없이 소리만 났을 뿐이지 말을 한 사이가 없다는 말입니

☞ 20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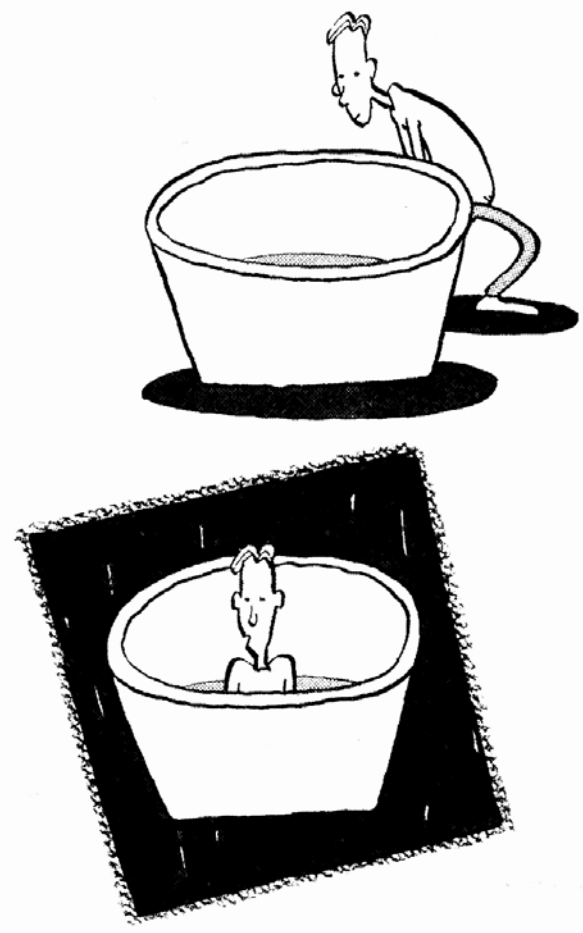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순간순간 일어나는 내마음 지켜보도록 사소한 것 하나도 내면에 놓아서 해결

가파른 언덕을 넘듯 고달픈 현실에 힘겨워하는 사람들

순간순간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현대인들에게 대행 스님이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

삶은 고(苦)가 아니다



A5신 288쪽
값 6,000원
여시아문

대행 스님과 신행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현대불교신문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팩스:031-470-3116)앞이나 인터넷 부다피아(http://www.hanmaum.org)로 연락 바랍니다.

진실한 마음은 시방에 두루 통해

☞ 19면에서 계속

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한 것은 컴퓨터에 입력되는 것처럼, 오관을 통해서 자기가 알고 있다는 거죠, 잊어버리는 것도 잊어버리는 거지만 말입니다.

자기가 이날까지 지내온 것은 자기가 너무나 잘 알아요. 자기가 알면 부처님이 아는 거예요. 자기 실상이 아는 거고, 딴 사람이 아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자체를 믿어라 이겁니다. 자기가 걸어오면서 하나하나 해 나가는 과정을 어떻게 역력히 알고 있을까? 그 아는 놈이 누굴까? 그 아는 놈이 바로 자기의 생명수와 같기도 하고 바로 컴퓨터 같기도 하고, 자기의 영원한 주인공이란 말입니다. 주인공이라는 건 이름이지 주인공이라는 이름도 없으면서 바로 에너지로 충당이 돼서 컴퓨터처럼 책정이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다 놓으라고 하는 거냐 하면, 그 알고 있는 자기가 바로 공했다고 했습니다. 체도 없고 빛깔도 없다고 했죠. 그러면서도 자기가 알고 있는 거기다 놓으라 이거예요. 모든 걸, 공이자 색이고 색이자 공이니까 말입니다.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육신이 있기 때문에 언짢은 일도 보고 좋은 일도 보는 거고, 그 좋은 일 언짢은 일을 다 한데 합쳐서 알고 있는 자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달프다 고달프지 않다, 좋다 나쁘다, 나는 못살겠다 나는 괴롭다, 정말 주먹같은 분노가 치밀어 온다.' 이런 거를 자기가 해 놓고 자기가 알고 있거든요. 잊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너무도 잘 알아요. 자기가 한 해, 하루24시간 걸어오는 것을 자기가 너무도 잘 알아요. 남은 몰라도 말이죠.

자기가 알고 있는, 생명수와 같은 자기 에너지가 나 하나의 에너지만이 아니라 이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고 전체에 다 있으면서 차이점이 나질 않아요. 그래서 같이 돌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포착해서 내가 쓸 수 있는 것을 '용'이라고 합니다. 나쁜 거든 좋은 거든 모든 걸 아는 그놈이 전체를 책정해서 모든 걸 하고 있거든요. 오관을 통해서 컴퓨터처럼 들이고 내고 하는 능력도, 또 탐지기도, 텔레파시도, 통신도, 무전도 그놈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루 24시간 걸어온 거를 저녁때 가만히 생각해 봐요! 다 알게 되죠. 다 알게 하는 그놈 말입니다.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그놈,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그 한 놈이 벌써 그 여러 가지 한 걸 다 알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알고 있는 그 놈이 바로 주인공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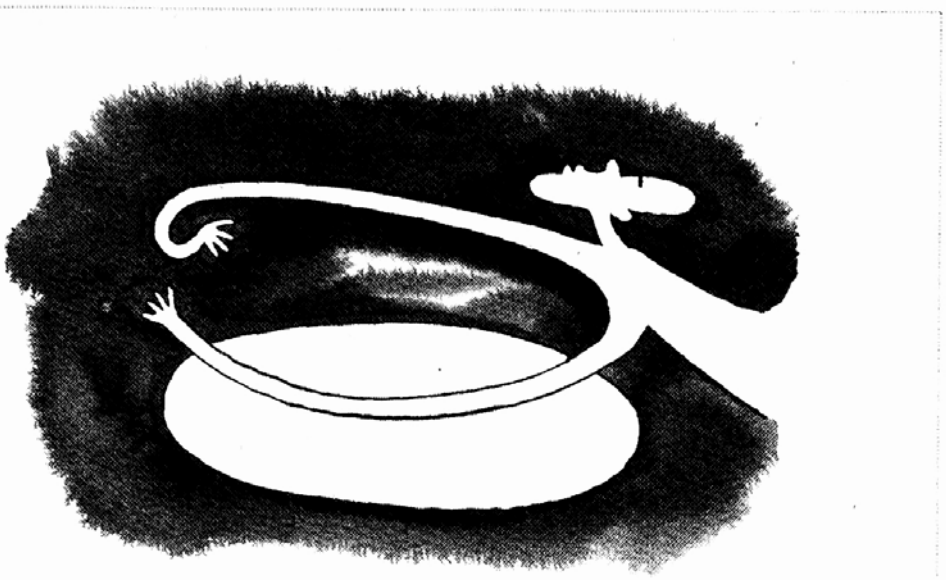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자불은 항상 자신과 함께하는 법

자력 길러 살게 하는게 마음공부

항상 그렇게 여러 가지 할 수 있게 하는, 여러 가지 생각 할 수 있게 하는,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게 하는 근본 주처, 그 주처가 도대체 무엇이냐? 거기다 몰록 놓으라고 하는데 모든 걸 놔버리자. 그 주처에서 온갖 것을 하고 왔지 않느냐? 온갖 말을 하고 왔지 않느냐? 온갖 행을 하고 왔지 않느냐? 억겁년 전에서부터 끌고 왔을 거다, 나를. 그러니까 그 자리가 내가 예를 올릴 수 있는 내 조상이자 자부처다 이겁니다. 원소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름해서 주인공이라고 한 겁니다. 주처라고 해도 좋고 주인공이라고 해도 좋고 에너지주장자라고 해도 좋습니다. 또 마음의 주인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 뜻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놓고 잊어버리는 건가, 아닌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공한 자리에 놓았다면 그 다음은 그 자리에서 알아서 할 뿐이다. 그 자리에서는 놓았다 놓지 않았다가 따로 없다. 그러니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것도 그 자리, 진실로 믿게 하는 것도 그 자리이니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운용해나갈 뿐이다!' 하는 믿음으로 해 나가기 바랍니다.

어려울때 힘이 돼 주고 싶어요

문 저는 중3에 재학중인 여학생으로 기독교 신자입니다. 저는 어떤 종류의 종교인가를 따지기보다는 그 종교가 추구하는 이상과 종교인들의 행실, 또는 자기가 그 종교를 통해 얼마나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스님께 질문을 올리는 이유는 해답의 실마리를 얻고 싶어서입니다. 저에게는 이껴주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프면 서로 그저 조용히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안정을 얻을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주고서도 내 마음에서는 그 사람들이 행복하기만을 바라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덕택에 제 용돈은 일주일을 넘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제 마음속에 그 사람들을 담아두는 것만큼 그들은 저를 안 담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물론 대가를 바라고 제 마음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이란 것이 참으로 이기적이어서 어떨 때는 끝없는 허무감이 밀려오는 것을 어쩌지 못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고민하고 힘들 때 힘이 돼주고 싶습니다. 스스럼없이 마음의 짐을 같이 나눌 수 있게 하기 위해 그들이 저를 찾아 줄 때까지 기다리고 주위에서 묵묵히 웃으며 지켜보는 그런 마음가짐도 가지려 했지만 쉽게 변하는 감정에 스스로 힘들어 그러지도 못하고 맙니다. 아무래도 제가 너무 그 사람들에게 기대고 있나 봅니다.

스님, 제가 어떤 식으로 그들에게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또 어떤 태도를 취해야 그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또한 같이 슬퍼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스님께서 꼭 답변해 주시리라 믿으며 글을 마칩니다.

답 우리 학생이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하려는 마음이 참 갸륵하군요. 내가 그전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스님들이 바리때를 들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탁발을 해서 공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집에서 하도 가난해서 스님들께 드릴 건 없으니까 남의 집 보리쌀을 씻어주고는 그 보리쌀 뜨물을 얻어다가 아침에 푹푹 끓여서 스님들 오시면 드리겠다고 부뚜막에다가 먼저 한 주발을 퍼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스님이 바리때에다 부어주는 그것을 받아먹으며 그런 사정을 알고서 얼마나 감개무량했던지 나무라도 한 짐 해다 줄 양으로 하루종일 나무를 해서 한 짐 잔뜩 짊어지고 내려오고 있었답니다.

> 체도 없고
> 빛깔도 없이
> 모든걸 다 아는
> 근본주처 공하니
> 그 공한 자리에
> 모든 걸 놓으라

그런데 오다가 은사 스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은사 스님께서 "너는 그 나무를 어디로 가지고 가려고 해 왔느냐?" 하고 물으시니 그 사실 얘길 다 했습니다. 그 은사스님께서는 대선사이시며 아주 귀중이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 스님이 그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는 하시는 말씀이 "너는 어찌 그렇게 지혜가 부족하냐? '참나'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지혜가 스스로 늘지 못했구나." 하시면서 작대기를 집어서 그 제자 정강이를 어떻게나 세게 후려쳤던지 나뭇짐하고 사람하고 같이 그냥 굴렀단 말입니다. 구르는 도중에 스님이 악을 쓰시면서 하시는 소리가 "이놈아!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를 하랬지, 나무 한 짐 갖다가 준들 태워버리면 그뿐일 것을 그것도 보시라고 하느냐? 이놈아!" 하고 악을 쓰시는 바람에 그냥 내리 구르면서 그 스님이 홀연히 깨우쳤다는 얘깁니다.

그 스님이 구르면서 한생각을 깨우친 것이 그 집에 무주상 보시가 돼서 그때부터 그 집의 형편이 풀리더니 남의 마름을 살던 것이 마름을 그만 두게 되었고 부자로 잘 살게 됐더랍니다. 그러고는 항상 그 은혜를 잊지 못해서 뭐든지 한조각이라도 생기면 반조각은 스님들 한테 올리고 그러면서 공부를 해나가다 그 뜻을 알았답니다. 말하자면 그분도 깨우쳐가지고 나중에 몸을 벗고 나서는 다시 그 도량으로 들어와서 공부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한푼 한푼 주는 거, 쌀 한 가마를 준다 하더라도 그렇고 집을 지어준다 하더라도 그렇고 그런 도리를 모르고 한다면 공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게 공덕이 되는가 아닌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내가 함께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길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을 깊이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하죠. 내게 돈이 없기 때문에 남에게 돈을 줄 수 있다는 얘기 말입니다. 내게 돈이 있다면 남을 못 주는데 돈이 없는 까닭에 남에게 돈을 줄 수 있다 이겁니다. 그 뜻을 이해하겠습니까? 돈이 없기 때문에 줄 수 있다. 돈이 있으면 줄 수 없다. 만약에 내가 돈이 있어서 준다면 항상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둘로 나뉘어져서 돈이 없으면 내가 그 사람을 더 이상 도울 수 없고 저 사람은 내게 더 이상 받을 게 없고, 그리고 주는 나는 더 이상 줄 게 없어 궁색해지고, 그러면 그 마음까지도 궁색해지게 됩니다. 그걸 그냥 돈이라고만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되겠지요? 그렇지만 이 마음이라는 것은 줘도 줘도 줄어들지 않고 들여도 들여도 늘어나지 않으니 내가 준 바도 없고 받은 바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남한테 그것을 다 꺼내서 줄 수 있고, 없어도 겁이 나지 않고 그런 거죠.

그러니 단지 하루 이틀 먹을 음식을 주는 것보다는, 우리 학생이 이 마음 도리를 열심히 공부해서 자신이 떳떳해진다면 다가오는 모든 인연에게 마음으로 지극하게 한생각을 해 줄 수 있다는 것, 그것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봤으면 해요. 그렇게 지극하게 해나갈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의 근본과 돌 아니게 전달이 돼서 모든 것이 좋게 바뀌어지게 되어 있으니까요. 또한 이 마음의 도리는 묘하게도 내가 저 사람을 위해 마음을 자꾸 내면 저 사람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와 저 사람이 함께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슬퍼할 일도 없고 내가 상대를 염려해주는 마음을 알아달라고 할 필요도 없는 거죠. 무엇을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진실한 마음이면 어디에고 통하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에 오직 지극한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부는 종교라는 이름을 떠나서 자활(自活)하는 공부이고, 또한 어디에 세워놔도 살아갈 수 있는 자력(自力)을 기르는 공부예요.

처음 듣는 얘기도 많고 어려운 얘기도 있겠지만 궁금한 것이 있으면 또 물어보고, 그런 기특한 마음이라면 열심히 공부해서 본인도 밝아지고 주위에도 도움이 되기 바래요.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365일 벽에 걸린 달력은 말없는 포교사입니다


동자승의 세계(大·小)


산사의 향기(大·小)


연화의 세계(大·小)


탑이 있는 풍경(大·小)


산사의 꽃향기(大)


신비의 달마도(小)


석 굴 암(小)


백 련(小)


북한의 사찰(小)


선의 세계(小)


금강산의 사계(小)



8절 대지 마닐라(14매)



◈ 종 류 ◈
1. 미소동자
2. 지혜동자
3. 천진동자
4. 동심동자
5. 환희동자
6. 홍련
7. 백련
8. 금강산 보덕암
9. 해금강 일출
10. 묘향산 보현사 일출
11. 금강산 표훈사
12. 만다라
13. 금산사 미륵전
14. 탑이 있는 풍경
15. 석굴암
16. 낙산사 해수관음
17. 동화사 통일약사여래불
18. 보리암 해수관음
19. 달마도







■ 사진 : 안 장 헌
산사의 향기, 탑이 있는 풍경, 선의 세계, 석굴암은 한국불교사진 예술의 독보적인 안장헌교수의 작품이다
안교수는 월간 영상 편집장을 지낸 바 있으며, 20여년간 수많은 불교문화유산을 사진에 담아왔다. 석불, 국립공원, 석굴암, 영접의 미소, 선의 세계 등의 사진 작품집이 있으며, 현 한국 사진작가 협의회원 및 대한사진예술가협회 자문으로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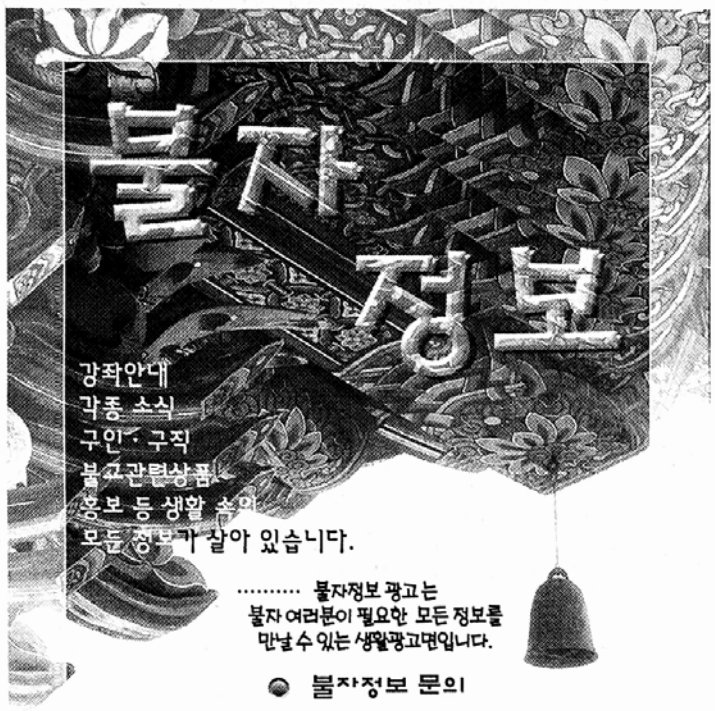
365일 벽에 걸린 달력은 불교 위상을 높이는 말없는 포교사입니다.
해마다 이러한 사명으로 품위있고 격조 높은 달력을 만들어 수많은 사찰과 불자님들에게 기쁨을 드려왔던 감로기획에서는 불기 2545년 달력을 주문 받고 있습니다.

■ 크기 : 대(30×31cm) 국6절, 가격 : 1,600원
소(26×26.5cm) 사륙12절, 가격 : 1,400원
■ 매 수 : 표지포함 13매
■ 특수고급 제본(TW스프링)
■ 주문부수 : 100부 이상
■ 미니 차길이 달력은 200부 이상

미니 차길이 달력 ➡

불교카렌다 제작 전문 감로기획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3번지
제작문의 : (02)723-4306 팩스 : (02)738-8682

전국 유명 불교용품점에서 주문하시면 편리합니다



불자정보 문의

홍보내용을 정하신 다음 전화나 FAX로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02)732-1522(直), (02)737-8881(代) FAX : (02)737-0697
※ 현대불교 전국 지사 · 지국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최소규격 및 가격

세로 5cm, × 가로 4cm (1회 4만원)
(세로는 고정, 가로 1cm 증가시 1만원 추가)
사찰 토굴 부지안내 세로 5cm × 가로 5cm (1회 5만원)
(세로는 고정, 가로 1cm 증가시 1만원 추가)

건강기타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선관단식
⊙수련원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안내 : 055)834-1115~6
016)849-3858
012)1166-3858

◈청학사 수양원◈
- 수양 · 기도 · 공부 · 참선
- 1인 1실-침구 일체 완비
- 月 숙식비 : 30만원
- 명퇴자, 실직자 환영

055)883-2935
055)883-2933
경남 하동군 악양면 노전마을
청 학 사
※단체 불교수련대회 접수 받습니다.

대방광불화엄경
大方廣佛華嚴經
◆목판본 백질 한정본 판매◆
- 화엄경 (80권) -1,400,000원
- 법화경 (7권) - 170,000원
- 사 교 (7권) - 220,000원

목판본 한지한장본으로 제본, 법당 부처님 복장장엄용, 강본으로 사용
055) 932-7252
011) 545-7252
김 창 본 처 사

黃印七子餠茶, 七子鐵餠茶
六安散茶, 보이散茶,
육보차, 벽돌전차, 소타차,
고산오룡, 철관음
도매가 판매
"山中禪房 · 전통찻집 특별상담"
02)911-6798
017)406-6682
茶 道 里

과거(科擧)시험 합격 비법(秘法)
◎ 사법고시 · 행정고시 · 각종국가고시 · 자격시험
◎ 주소, 성명, 생, 월, 일, 시 전화를 접수하시면 신적법(神尺法)비전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卍 지장 禪院 053)982-6778 011)813-3679

수맥(水脈)강의 안내
- 과정 : 기초부터 강의 • 강사 : 유준혁(수맥전문가)
- 과목 : 수맥 양택 음택(수강료 6개월 5만원)
- 시간 : 매주 토요일 오후 3시~4시
- 본회연혁 : 1983년 국내 최초로 설립 2000년 9월 현재 3,500여명 수강
- 위치 : 지하철7호선 상도역 1번 출구-30m 직전 기아 자동차 옆 순천향회 세종수맥학회 수맥이 지나가는 곳에서 잠을 자거나 공부하면 건강이 점차 악화되며 정신력이 약해지고 무기력해 집니다.

문의 : 02)817-9996
www.suyo.co.kr



벼락맞은 양류목
(精灵 기거하는 나무)
○ 규격 : 130cm×60cm
○ 수령 : 약 300년 인동 수목 지구 ○ 양도기 : 180만원
◆ 벼락맞은 양류목을 가지고 있으면 소원성취는 물론 무소불성(無所不成)이요
◆ 능히 미래 과거 길흉(吉凶) 회복(禍福)을 판한하여 선견지명을 통달 함이요
◆ 앉아서 천리보고 서서 만리를 볼 수있음 알지라.
그외 기문 장신법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음 알지라.
. Tel : 053)985-4675 018)512-5544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마늘의 약효
마 늘 커 피
100% 토종 구운마늘
◆심한 피로 · 정력강화
◆간기능 획기적 개선
◆혈압, 혈당치 낮추고 장 · 변비개선
◆손발냉증 · 피부 고와져
◆감기에 강한 체질로
▶가격 : 분말(230g) : ₩39,000
환 (250g) : ₩45,000
동양물산(주) 02)2236-0748

♣보 리 수♣
취급 품목 : 각종 수입향 염 주 불교악세사리 광 약 / 일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0호
전 화 : 778-5345
팩 스 : 777-1917
핸드폰 : 017-231-5345

역학 수강생 모집
- 과목 : 사주, 육효, 신수, 작명, 관상
- 과정 : 정규반, 연구반, 자격증반, 창업반
- 시간 : 오전 10시~12시, 오후 2시~4시, 저녁 7시~9시 (월~금 주5일)
- 강사 : 엄윤문 원장 (명학비해 外20여권 저술)
- 위치 : 서울 중구 남대문로 5가 하남빌딩5층 서울역 지하철 3번 출구
- 문의 : 02)752-9013

청운역리 학원

구 인
40대 미만의 착실하고 덕망있는
비구니 스님이나 보살님을 구합니다.
본 노장스님을 대신해서 신도님을 상대
하실 분 상세한 것은 상면 후에 상담 함
017) 552-7350

벽 조 목
(벼락맞은 대추나무)
108염주 스님 = 12만원 · 신도용 = 6만원
■ 워낙 희귀하여 진품이 어려운데 600년된 진품이 여기 뜻있는 인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좋은 물건은 인연따라 주인을 만납니다
053)982-4976/011)813-3679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 울산 ◁
011)9027-8207
052)211-1009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40세 - 60세)
▷ 울산 ◁
052)288-4520

급·구인 정보
❶ ▷ 평생회원비 : 50만원
▷ 유명회사와 제휴
▷ 연령 · 학력 · 남녀관계 없음
▷ 신념과 인내와 덕망이 있는 분 환영
▷ 전화 : 02)907-1643
016)243-1643
❷ 비구니 · 사미니와의 상좌 인연을 기다립니다

불자 약사님(남자)
모십니다.
· 의약분업 제외 지역
· 사당역에서 승용차로 30분거리
· 우대하여 드립니다 (급여)
· 45세 이상 (자가운전 가능)
011)9743-8064
지광 법사



사람을 찾습니다
김차선 (76세)
2000. 10. 12 가출
연락처 : 02)679-2069
011)758-6842
영동포 문래동 파출소
사례금 : 500만원

안 내
사찰을 같이 운영하실 분을 찾습니다.
(신도 중 보살님)
· 법패를 가르키는 강사입니다. 연락바랍니다.
031)865-4893
011)661-9119

배우자 구함
전직 공무원을 지낸 약간의 재력을 구비한 51세 여성불자입니다.
절이나 포교원에서 부처님을 시봉하면서 일생을 보내고자 합니다. (자녀없음)
053)982-6778
011)9353-6006

공양주
보살님을
구합니다.
031)592-7211

공양주
모십니다.
▷ 경기도 오산시 근교 ◁
(연령 60세 전후)
031)375-6349

기도할 절을
찾습니다.
부전스님
구하는 절을
찾습니다.
011)9960-0590

조용한 사찰에서
같이 기도하실
보살님이나
거사님들은
연락바랍니다.
011)562-5556
052)254-2427

영가천도 발언합니다.
지금 혹시 가족이나 일가친척이 돌아가셔도 가정형편상 영가들을 위해 극락왕생을 발언하지 못하시는 분 연락바랍니다. 무 보시로 영법하게 마지막 가는 영가들께 극락왕생을 발언해 드립니다.
011)764-3912
031)407-0298

사찰 안내
- 위치 : 전북 군산시
- 대지 : 720평
- 법당 : 25평
- 건물 : 대웅전, 산신각, 칠성각, 종각, 미륵, 요사채, 고시 공부방 (각각있음)
- 가액 : 3억 5천

011)675-9828
063)453-2970

사찰 안내
- 위 치 : 강원도 원주시(치악산)
- 부 지 : 대지 204평 田 110평
- 건 물 : 방 4개 25평 법당 10평 산신각 3평 창고 有
- 특 징 : 계곡 있고 산세 수려 함 교통 편리
- 가 액 : 1억 2천

031)575-5831
017)378-8380

사찰 양도
- 위치 : 경북 김천 • 대지 : 600평
- 법 당 : 28평 (사무실 포함) 산신각/창고/주차장 요사채 55평, 방 7개
가액 : 1억 7천 가격 절충
- 특징 : 경관이 수려하고 산속 맑은 계곡을 끼고 있으며 기도처로 최적지

054)436-5036
011)805-7738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 근교
- 부지 : 480평 • 건물 : 35평
- 가액 : 2억 3천
- 청평 800평 1억 급매

※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 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02)723-4082
광진불사

사찰 안내
- 위치 : 은평구 응암 4동 (대림시장옆) 2층 35평
- 석가모니불, 지장, 관음(동불조성), 후불, 신중, 칠성탱화, 대북, 법종, (불단조각, 단집) 정탁, 경상, 영가단 및 법당내부단청했음. 대형에어콘설치
- 법당1 스님방1 상담실1 주방 및 방1 화장실 및 욕실1 뒤베란다 (비구니, 무속인, 철학하시는 스님 적합)
- 가액 : 보증금 2천 월 40만원 시설A급 시설비 별도 절충가

011)685-8484/02)376-8182

포교당 안내
- 위치 : 경기도 안산시 상록수역 부근
- 구조 : 3층건물 2층 40평 (법당, 방3, 주방)
- 시설 : 삼존불, 원불 108, 신중, 칠성 탱화
- 가액 : 보증금 5백, 월 50만원 시설비 1300만원

02)489-5465 / 011)258-1147

사 찰 안 내
- 위 치 : 부산광역시 남구 소재
- 부 지 : 자연녹지 임야 6000평
- 요사채 · 법 당 : 건축 허가유
- 주차장 있음
- 양도가 : 18억 (분할가능)
※ 부산시내 시찰건축 및 납골당 건립불사 스님께서는 상담바람 좋은 조건임

- 위 치 : 전남 여수시내 소재
- 대 지 : 40평
- 법 당 : 25평 (2층)
- 요사채 : 30평 (1층)
- 양도가 : 1억 7천 (은행융자 있음)
※ 15년 된 도심포교건물 임 신도수 많음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 국 불 사** 02)561-7791/018)273-9390
전국소재 시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사 찰 안 내
- 위치 : 설악산유명관광지
- 법당 : 10평(목조)
- 요사 : 20평
- 부지 : 1,500평
- 가액 : 1억 9천

- 위치 : 부산
- 법당 : 23평
- 요사 : 25평
- 부지 : 200평
- 가액 : 4억5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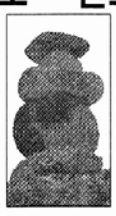
- 위치 : 강원 원주
- 법당 : 10평(목조)
- 산신각 : 3평
- 요사 : 25평
- 부지 : 310평
- 가액 : 1억 2천

※ 부전스님 및 공양주 보살님 연결하여 드립니다.
※ 전국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청송기획 02) 998-1994 / 011) 713-5634

사찰 안내
- 위치 : 충북 괴산
- 부지 : 약 600평, 대웅전 16평 삼성각 4평, 요사체 5평 현대식
- 특징 : 교통 편리하고 맑은 계곡 산세 수려함
- 가액 : 1억

043)832-4785

사찰 양도 · 인도 할 분
○ 영천 신령에서 15분거리
○ 물좋은 계곡접 토굴, 기도터, 적지
○ 밭 724평 2500만원
○ 토목공사 50%진척



○ 경남 합천 대양면 소재지
○ 대지 69평 현대식 올수리
○ 급양도가 1600만원 (전세 가능)
○ 휴양, 기도, 공부 적합
주인 011) 506-1254

사찰, 창건 지도 불사, 편의 제공 **사찰정보 : 053) 982-6778 핸) 011-813-3679**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시 광안리해수욕장 바닷가 부근
- 구조 : 법당, 공양간,주지실 (총 53평)
- 특징 : 최고의 시설 완비
- 가액 : 보증금 2천만원, 월 60만원 시설비는 답사 후 절충

011)868-5997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금정구 (요지)
- 평수 : 55평, 3층, 법당, 스님방, 공양실, 거실, 주방 (모든시설 완비)
- 가액 : 전세 4,500 만원 월세 : 2,000-40만원 1,000-60만원
- 시설비 : 1,500만원

011)9790-1779
051)581-8652

토굴 안내
- 위치 : 전남 광양시 진월면 마룡리 117-8번지 구덕마을 이장집 뒷집
- 대지 : 140평 방3개 현대식 주방 보일러 사시 축사 천연 암반수 물
- 가액 : 2,700만원 (가격 절충)

019)545-2962

사찰(급) 안내
- 위치 : 경주시내에서 20분 거리
- 대지 : 법당 10평, 산신각 6평, 주방(2), 방(4), 목욕탕시설 일체 완비
- 특징 : 교통이 편리하면서 산세가 수려하고 물이 좋아 기도정진 하시기 적합.
- 가액 : 5,200만원

052)292-32977

사찰(급) 안내
- 위치 : 부산 동구
- 대지 : 60평
- 건물 : 1층 36평 (요사) 2층 25평 (법당)

※ 주택가 뒤산밑 위치, 차량진입 가능 교통 편리, 50여년의 연혁으로 특히 법당 잘 모셔져 있음. 급한 개인사정에 속히 양도코저 함

011)234-5937

사찰 안내
- 위 치 : 충남 예산
- 부 지 : 700평 조립식 건물, 45평
- 가 액 : 4,700만원

041)333-1163

사찰(급) 안내
- 위치 : 서울 강남 수서 근교
- 대지170평 인법당
- 개인사정 4억 5천만원 현 시가 당 4백만원 이상임.

※ 경치와 호수가 보이고 물이 좋은 큰산 밑 밭 1500평 위 사찰 포함, 5억7천만원 양도. 현 시가 당 십만원 이상임.

017)339-8007

사찰 안내
- 위치 : 강원도 태백산 도량
- 평수 : 약 830평
- 특징 : 법당 20평(목조), 요사채 3동 각 30평씩, 방6개, 산신각, 조각, 3층탑, 5층탑, 미륵불, 지장전, 납골당불사주을 내 수재지 기차역에서 도보로 5분거리
- 스님이 몸이 안좋으신 관계로
- 가액 : 답사 후 결정

02)2618-0767/011)753-0768

암자 안내(약사암)
- 보문산 공원내 국유지
- 대지 약 100평, 건평 50평 정도 구 옥 2동, 남향, 방 4개
- 삼존불, 약사여래불(굴에 모심) 교통, 공기, 물(약수) 좋음.

대전역에서 택시타고 1800원 거리
- 가액 : 5,000만원

011)9808-5193
042)255-1369

사찰 안내
- 위치 : 경북(대구에서 30분거리)
- 대지 : 800평 • 법당 : 35평
- 요사 : 65평(2동), 법종
- 가액 : 2억 5천만원

현재 운영중인 사찰로서 급한사정으로 꼭 필요한 분께 양도하고저 합니다
053)984-9190
018)503-9190

사찰 안내
- 위치 : 울산광역시 시내중심지 법당, 삼성각, 강당, 대중방, 요사채, 종각, 차고, 누각(등), 주차시설(약 70대)
- 특징 : 시내 중심지며, 경관이 수려하고, 산속이며 및 대중 포교지로써 최고 임
- 사유 : 건강관계로 외국에 감
- 가액 : 전세 2억 (꼭 하실분만 전화요망)

011)832-0780

포교당 안내
- 가액 : 6천 (보증금 3천 2백, 월 30포함)
- 시설완비
1층 - 공양간 20평 방 1칸
2층 - 법당, 산신각, 방 2칸, 37평

011)430-3344

사찰 안내
- 위치 : 대구 서구청 4거리 (한빛은행 맞은 편)
- 평수 : 4층 건물 3층 46평
- 가액 : 보증금 15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천만원
- 특징 : 시설 A급 위치 최고

(법당 시설 일체, 방3개) 천수천안 관자재 보살 2자 반 칠성 부처님 3자반 후불탱화 53부처님 지장전 문수보살
053)565-0430/016-875-0934

포교원 안내
- 위 치 : 방학 전철역 부근
- 평 수 : 20평 4층건물의2층
- 가 액 : 보증금 2천만원 월세 40만원, 시설비 250만원

02)955-6609

지역사찰 사회참여 강화

조계종 생태·복지 부문 등 모델개발

내년부터 시행…불교위상 강화 기대

95년 6월27일 34년만에 풀뿌리 민주주의가 다시 부활된 이후 지방자치제는 이제 정착단계에 들어선 느낌이다.

그러나 한국사회가 이미 세계화와 지방화로 변화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기반을 둔 사찰들이 함리적인 대안을 갖고 변화에 부응해 왔는지는 미지수다. 그간 지방자치제 실시를 전후해 지방화시대에 맞는 불교 종책에 대한 각종 세미나와 토론회 등이 개최되었지만 요즘은 이런 논의도 뜸해진 상태다.

이런 가운데 조계종 총무원(원장 정대스님)이 '사찰 사회활동 모델개발 사업'을 추진해 지역 사찰의 사회참여를 강조하고 나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역 사찰의 사회복지활동, 생태사찰 만들기, 사찰과 지역사회 연대활동 등 3가지 영역에서 모델을 개발해 불교 사회운동의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이 종책은 그간 불교 사회활동에 대한 취약성에 대한 인식과 비정부민간기구(NGO) 영역의 활성화와 영향력 증대에 따른 종책변화의 산물로 분석된다.

이는 지방화시대의 불교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 사찰이 지역사회 발전에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참여, 지역사회의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승속 모두의 과감한 발상 전환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환경, 교육, 사회복지, 생활협동조합사업 등 다양한 지역사업을 통해 지역시민운동에도 적극 참여해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이 지방에도 확산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계종은 지역 사찰의 3가지 사회활동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환경·복지단체 및 개별 사찰의 전문가와 사업영역별 팀을 구성한 후 표본조사 및 현장조사를 통한 표준화(모델링) 작업에 들어간 상태다. 연말까지 모델링 결과를 확정해 토론회 등을 거쳐 종책에 반영,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모델적용사업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지역 사찰의 사회복지활동은 조계사와 사회복지재단 실무자, 동국대 권경임 박사팀이 모델링을 진행중이다. 사회복지시설 수탁·운영의 노하우를 가진 사회복지재단이 종단차원의 대안을 제시하고 자양사회복지관, 서울시립근로자합숙소, 영등포보현의집, 낙산어린이집 등을 위탁운영하면서 탑골공원 무료급식, 장애인 포교에 나서고 있는 조계사가 구체적인 지역사회 복지사업 모델을 마련중이다.

생태사찰 만들기는 지리산 실상사와 서울 길상사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실상사를 중심으로 도농공동체운동을 벌이고 있는 인드라망생명공동체와 길상사에 근거를 두고 전국적인 환경정화운동을 벌이고 있는 맑고향기롭게모임, 사찰생태문화기행의 많은 경험을 가진 두레생태기행 등이 바람직한 생태사찰 살림과 조경, 사찰환경운동의 표준을 만들고 있다.

사찰과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통한 지역회향사업은 지역 사찰의 청년회와 대불청, 불교바로세우기 재가연대 등이 지역사회 활동의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이들 팀은 지역 사찰의 세부적인 역할로 지방행정에 대한 감시기능, 지역의 갈등 조정역할, 지역발전에 기여, 무분별한 개발 저지를 통한 환경보호운동 전개, 원융회통 정신을 통한 지역갈등 해소, 문화재 보호활동 및 지역문화의 중심역할, 사회복지실천에 적극 참여 등을 들고 있다.

이와 관련 조계종 사회부 관계자는 "모델링 작업이 완료되면 교육원의 협조를 얻어 교구본사 사회국장회의, 본말사 주지연수회를 통해 스님들의 의식변화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시민 3000여명은 18일 부산역광장에서 낙동강 도보순례단 환영대회를 개최했다.

낙동강 1300리 도보순례 회향

함양·산청선 "지리산댐 백지화" 거리행진

18일 부산역 광장에서는 낙동강 1,300리 도보 대장정을 마치고 도착한 지리산살리기국민행동 낙동강도보순례단(단장 수경스님) 환영회 및 낙동강 살리기 시민대회가 열렸다.

이날 시민대회에서는 지난달 23일 낙동강 발원지인 태백의 황지못에서 출발, 17일 종착지인 부산의 을숙도에 도착하기까지 26일 동안 낙동강 물길을 따라 걸어온 도브순례단을 환영하고 낙동강과 지리산을 함께 살리자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결집했다.

지리산살리기국민행동 상임공동대표 도법스님과 이종석 부산경실련 대표 등 시민 3백 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도보순례단의 경과보고와 공동결의문 낭독의 순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낙동강살리기 부산시민총궐기본부와 지리산살리기 국민행동, 범영남권낙동강유역댐반대투쟁위원회는 공동결의문을 채택하고 연대투쟁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수경스님, 이원규 시인, 허욱 녹색연합 간사 등 16명과 지원팀 4명으로 구성된 순례단원은 이날 시민대회를 마친 뒤 20일 지리산댐 예정지인 함양과 산청에서 열린 주민 간담회와 군민 결의대회에 참석했다.

함양군 휴천면 문정초등학교와 산청군 산청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지리산댐 백지화를 위한 결의대회'에서 환경단체 회원들과 주민 등 2000여명은 거리행진을 벌이며, 정부의 물관리 정책의 비합리성을 비판하고 지리산 댐 건설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부산=천미희 기자

팔공산 생태관광권 개발

대구시, 동화사·갓바위등 연계 레저시설

팔공산과 비슬산이 각각 불교·유교문화 체험을 곁들인 환경친화적인 생태관광권으로 개발된다.

대구시는 2003년까지 달성군의 비슬산권과 팔공산의 동화사권을 현재의 음식점, 숙박업소 등 유흥중심 개발에서 벗어나 자연하천, 자연산림공원 등 생태관광지구로 중점 육성키로 했다.

특히 팔공산은 동화사 파계사 부인사 갓바위 등을 연결, 불교문화체험 관광명소로 특성화하며 인근 불로동고분군은 선사유적 박물관 등을 건립하는 등 역사관광지로 정비된다. 김재경 기자

경북불교대 연꽃마을 위문



경북 영주시 경북불교대학 풍물단(임병주 단장) 30명은 19일 경북 예천 연꽃마을(주지 정안)에서 160여명의 수용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위문공연을 갖고 의류 2000점등 위문품을 전달했다. 방유수 영주지국장

수원에 시민선방 공소사 개원



◇청아스님

지난 55년 미국 오하이오주립대학 물리학박사 출신으로 동국대 선학과 박사과정에 입학해 화제가 되었던 청아스님이 18일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415번지에 시민선방 공소사를 개원했다.

서울 금강선원장 혜거스님의 증명으로 거행된 이날 개원법회에는 음성 광명선원장 무애스님 등 사부대중 300여명이 참석해 개원을 축하했다.

92년 〈초기 우주에 붕괴되는 입자들의 우주론적 제약들〉이란 논문으로 물리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주지 청아스님은 "시민선방을 통해 마음 자리를 찾는 생활선을 가르치는 한편 정기법회를 이용해 신도들에게 불교의 우주론을 물리학 이론으로 알기 쉽게 설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031)246-1001 김재경 기자

사부대중 공동 운영

인천 옴누리선원 개원

사부대중이 함께 사찰을 운영하는 인천 옴누리선원이 12월3일 오전 10시 문을 연다.

'사부대중 신행공동체'의 원력을 세운 원장 종연스님의 발원으로 문을 여는 옴누리선원은 신행공동체라는 말에 걸맞게 선원관리에서부터 종무행정, 법회운영까지 재가자 중심의 신행체계인 운영위원회 심사를 통해 투명한 관리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

인천광역시 계양구 임학동 2-6번지 근명빌딩 3층(60여평)에 위치한 옴누리선원은 사이버법당(www.omnuri.org)을 갖추고 불교인성교양대학(불교학, 경전강좌), 불교문화(선무도, 외국인스님과 함께하는 영어교실, 우리 가락, 논술) 강좌를 비롯 위문봉사, 신행·자녀문제 상담, 문화·역사기행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일구어갈 계획이다. (032)542-8300

김재경 기자

은하사 백고좌법회

김해 은하사(주지 대성)는 26일부터 백고좌 백일 기도법회를 봉행하고 매주 대덕스님들을 초청해 법회를 연다.

매주 일요일 은하사 보제루에서 열리는 고승초청 법회에는 범어사 조실 지유스님과 조계종원로의원 덕명스님을 비롯 능가스님, 화엄스님, 정관스님, 무진장스님, 벽파스님, 성오스님, 무비스님 등이 법사로 참석한다. (055)337-0101

김해=천미희 기자

종단소식

조계종

직지사에 행자교육원

교육원(원장 일면)은 2년간 행자교육을 직지사에서 갖기로 하고 12월5일 교육원에서 공식적으로 약정서를 체결한다. 이번 직지사와 약정서를 체결함으로 해서 그동안 매년 장소관계로 곤란을 겪어온 행자교육원 문제가 한시적인 해결을 보게됐다.

일타스님 열반 1주기

제12교구 본사 해인사(주지 세민)는 대적광전에서 스님과 신도 1천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타 스님 열반 1주기 추모재를 거행했다. 이날 추모재에서는 스님들이 거불(擧佛), 청혼(請魂), 삼배 등 전통 불교제례를 지냈으며 일타 스님의 생전 법어를 들은뒤 헌다 및 헌화 의식을 치렀다.

대둔사 박희현 신도회장



조계종 제22교구본사 대둔사 신도회 박희현〈사진〉 신도회장 취임식이 23일 전남 해남시 해남불교대학에서 향림사 조실 천운스님등 사부대중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진각종

부산서 밀교교리법회



총금강회(회장 백진호)는 17일 부산일보 10층 대강당에서 혜정대정사 초청 밀교교리 대법회를 봉행〈사진〉했다. 진각종 종학 연구실장 혜정 대정사를 비롯 성초 진각종 통리원장 혜인 진각종 부산교구청장 등 5백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혜정대정사는 "삼라만상이 모두 법신 부처님의 몸이다"는 주제로 법문했다. 전국순회법회로 열린 이번 밀교교리대법회는 부산을 마지막으로 서울, 광주, 대구, 포항을 거쳐온 법회를 회향했다.

총금강회 임원수련회

총금강회는 12월 1~2일 1박2일간 서울 성북구 통리원에서 임원수련회 및 정기 대의원총회를 개최한다.

120여 명의 임원과 대의원이 참가하는 이 행사는 첫날 △종단 장·단기 사업소개 △교리강좌 △포교활성화에 대한 분임토의를 갖고 이튿날 신임 회장 및 임원 선출과 진기 53, 54년 사업에 대한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총화종

내년 예산 96억 승인

총본산 수진사내 회의실에서 제 47차 정기중앙종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 96억3천6백만원을 심의 확정했다. 또 이날 종회에서는 중앙 5원장 등 임원진을 전면 개편했다. 새로 개편된 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교육원장=청해 △포교원장=청담 △감찰원장=동오 △문화원장=도공 △호계원장=고담 △총무부장=현오 △재무부장=법오 △사회부장=혜광 △교무부장=대암 △조직부장=화명 △규정부장=원일 △사서실장=만재 △교육부장=지오 △지도부장=해송 △감찰부장=혜암 △조사부장=남오 △문화부장=경산 △포교부장=일광 △호계부장=도명

조동종

5일 중앙종회 예산심의

중앙종회(의장 덕호)는 12월5일 오전 11시 총무원 회의실에서 정기중앙종회를 열고 2000년도 결산 및 새해 종단 사업과 예산을 심의한다. (02)719-7636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밝은길 아바타 센터

당신이 원한다면, 당신이 선택하기만 한다면
당신의 삶 전반이 바뀔 수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마스터/위저드 김희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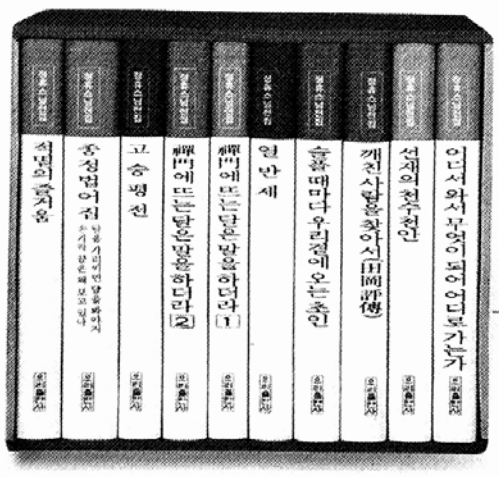
아바타 코스는 7~9일이 걸리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 02)396-2736 · HP 016)228-2358
http://www.avatarcenetet.co.kr
E-mail:bokbat@kornet.net

정휴스님 전집(전 10권) 출판기념회에 성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의삼보하옵고
정휴스님 전집(전10권) 출판 기념회가 2000년 11월22일 오후 5시
한국일보사 송현클럽에서 성대히 봉행되었습니다.
제방 고승대덕과 덕망 높으신 신도 여러분들께서 공사다망하신 가운데
동참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직접 찾아 뵈옵고 사의를 표하는 것이 예의인 줄 아오나 우선 지면을 통해
인사드리오니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휴스님 전집(전10권) 출판기념회 준비모임 법등·청화 합장

아름다운 삶과 죽음

두 젊은이가 난치병으로 고통받는 환자에게 써달라며 치료비로 큰 돈을 내놓았다. 또 두 노인불자는 죽어서까지도 부처님 법을 따르겠다며 자신의 육신을 보시했다. 간혹 보고 듣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누구도 쉽게 할수없는, 그래서 더욱 가치로운 일. 새천년 첫해의 끝자락에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이어지면서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난치병 환자에 써달라 1천만원 기탁 젊은이



서울 강남의 컴퓨터 관련 벤처기업에 다니는 강대영(가명·32)씨는 최근 난치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를 위해 써달라며 1천만원을 생명나눔실천회에 전달했다. 생명나눔회에 내놓은 1천만원은 얼마전 회사로부터 성과급으로 받은 보너스. TV에서 병으로 신음하는 어린 아이들을 볼 때마다 눈물을 흘리곤 했던 강씨는 불우한 환자를 돕겠다는 평소의 생각을 주저없이 실천에 옮겼다.

"별다른 뜻은 없습니다. 좋은 일을 해야겠다는 단순한 생각으로 한 것뿐입니다. 아내는 소년소녀가장을 돕자고 했지만 저는 아픈 사람을 돕는 것이 더 낫겠다고 했어요. 여력이 되면 소년소녀가장들도 돕고 싶어요."

생명나눔실천회 후원회원이기도 한 강씨는 자신의 이름과 얼굴이 언론에 알려지는 것을 한사코 마다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하는 것이 진정 다른 사람을 돕는 자세라는 생각 때문이다.

대구에서 피부미용관리소를 운영하는 문경화(30)씨도 며칠전 생명나눔실천회에 1천만원을 기탁했다. 생명나눔이 벌이고 있는 백혈병 환자돕기 소식을 접하고 나서다.

"수술비 1천만원이 부족한 환자가 있다고 하기에 마음을 내게 됐습니다. 돈은 언제든지 벌 수 있지만 생명은 그렇지 않잖아요."

문씨는 노동으로 봉사하는 것이 진정한 희생이지, 돈을 내놓은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며 특별한 의미를 두지 말아달라고 했다. 그런 생각 때문인지 문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피부미용관리소 이름이나 전화번호조차도 공개하지 않았다. 주위사람들이 알게 될 경우 자신이 교만해질까 두렵다는 생각에서다. 문씨는 매월 16만원을 소년소녀가장돕기 후원금으로 내놓고 있기도 하다.

시신 의과대 기증 故 문남이-박동욱씨



문남이 보살(83)은 지난 18일 세상을 떠나면서 부산 인제대 의과대학에 시신을 기증했다. 한 많은 삶을 살아왔기에, 더욱이 불교에 대해서는 잘 모르면서도 부처님의 뜻을 따른 것이기에 문보살의 시신기증은 감동을 더해주었다.

어려서 부자집에 팔려 간 문보살은 모진 고생을 하다가 자식 하나 없이 평생을 행상 등으로 살아왔으며, 나이가 들면서 거동이 불편해지자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돼 모진 삶을 이어가는 처지가 됐다.

그런 문보살은 부산의 한 암자에 다니는 올케와 인연이 있는 수덕사 신도들에게 보살핌을 받게 되면서 불교를 접했고, 임종 얼마전 "비록 늙고 쓸모없는 몸이지만 부처님 말씀대로 육신보시를 하고 싶다"는 유언을 남겼다. 불자인 동생 문정남씨(80)와 올케 임부춘씨(73)는 고인의 유언에 따라 시신을 의과대학에 기증했다.

경북 김천 직지사 신도였던 故 박동욱 거사(66)는 지난 18일 세상을 떠나면서 자신의 시신을 동국대 의과대학에 기증했다. 99년 8월 모친이 이 학교에 시신을 기증한지 1년여만에 아들도 어머니의 뜻을 따른 것이다.

그러자 박거사의 아내 조선교씨(62)와 큰 딸 박진희씨(36)도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삶을 회향한 박거사와 박거사 어머니의 뜻을 따르겠다며 생명나눔회에 시신기증 신청서를 냈다. 아내 조선교씨는 다른 자식들 4명에게도 시신기증을 권유할 생각이다.

건설업체 대표였던 박거사는 아무리 바빠도 일주일에 한 번 아내와 함께 사찰을 찾았을 정도로 신심이 두터웠으며 주위에 불자집안으로 잘 알려져 있다. 한명우 기자

경주서 국내 최대 전탑터 발견

"모량리 절터서…6세기 전후 축조 추정"

위덕대박물관 조사단

"6세기경 신라 왕경(現 경주시)에는 거대한 중국식 전탑(벽돌탑)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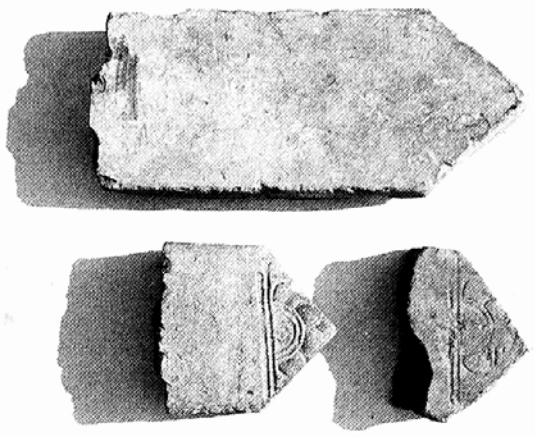
경주 위덕대박물관 불적조사단(단장 김무생)은 경주시 건천읍 모량리 절터에 대한 지표조사를 실시하고, 20일 "모량리 절터는 우리나라 최고의 전탑이 있었던 삼국시대 중요 사찰이었다"고 발표했다.

불적조사단에 따르면 모량리 절터에서 전탑을 축조할 때 사용했던 대형 모서리 벽돌과 5각 연화문 벽돌을 비롯해 연화문 수막새, 신라기와 등 30여 점의 파편 유물들이 채집됐다. 지금까지 5각 연화문 벽돌은 바닥에 깔았던 벽돌로 추정되어 왔지만, 이번 조사에서 전탑 축조에 쓰였던 부재이며, 그 탑은 중국의 대형 전탑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돌출 벽돌'을 사용한 형태로 축조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벽돌 파편과 함께 채집된 신라 기와는 6세기 무렵의 토기제작 수법을 보여주고 있어, 모량리 절터의 전탑은 6세기 전후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사단은 "모량리 절터의 폐 전탑은 최소 6세기 말에 세워진 국내 유일의 거대한 중국식 초기 전탑으로 보인다"며 "현재 안동 등지에 남아 있는 8, 9세기 통일신라시대 4기의 전탑의 조성시기보다 앞선다"고 분석했다. 안동 지역이 전탑의 발생지였다는 기존의 학설이 재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불적조사단은 모량리 절터 인접 지역에서는 폭 5~6m의 간선도로도 발견했다. 모량리 절터는 과거 신라의 궁성을 에워싼 반월성에서 약 70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는데, 이번에 발견된 간선도로는 모량리 절터와 왕경(現 경주시)과의 관계를 규명할 수 있게 하는 단서로 평가된다.

위덕대박물관 박홍국 학예연구실장은 "모량리 절터에 세워졌던 전탑이 중국의 대형 전탑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돌출 벽돌'을 사용한 점은 당시 신라가 중국으로부터 전탑 축조기술을 직수입한 것을 말해주고 있어, 신라와 중국의 교류연구사에도 획기적인 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증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모량리 절터에서 채집된 5각연화문벽돌.

달라이라마 내년 방한 재추진

방한준비위 "노벨평화상 시상식 시위는 취소"

달라이라마 방한준비위원회는 달라이라마의 연내 한국방문이 정부의 반대로 무산됨에 따라 내년에는 방한이 실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방한준비위는 22일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20여만명이 서명한 달라이라마의 방한허용을 촉구하는 대국민서명운동을 지역조직(대전 전주 광주 부산)을 구성해 계속 전개하고, 세계 각국의 지성인 99명의 서명을 받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영화 '쿤둔'과 인터넷, 자료집 등을 통해 달라이라마와 티베트 불교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티베트의 초겔스님과 동국대 주민황 박사 등 강사진의 전국 순회강연을 추진하는 한편 순례단을 모집해 달라이라마가 머물고 있는 인도의 다람살라를 방문(내년 상반기중 3-4회)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상임집행위원장 성관스님은 "달라이라마의 연내 방한이 무산됐지만 준비위는 티베트망명정부와 일정을 협의해 내년에는 방한이 실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라면서 "그러나 오는 12월10일 노벨평화상 시상식날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항의시위를 벌이는 방안은 달라이 라마의 재고 요청에 따라 취소키로 했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사찰 납골당 건축 허가 취소소송 '각하'

법원이 사찰의 납골당설치를 반대하는 경기도 광주군 오포면 신현리 주민들에게 '관련법규에 따라 지자체가 허가한 건축허가처분 취소를 청구할 소송당사자로 부적격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주경진)는 23일 마을 인근에 들어설 납골당 설치를 반대하는 광주군 오포면 신현리 발전협의회와 김모(오포면 신현리)씨 등 주민 2명이 광주군수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취소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이익을 침해받는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누리는 이와 같은 이익은 국민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추상적, 일반적 이익으로서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해 직접적, 구체적으로 보호받는 이익이라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재경 기자

불교인권위 '불교여성회' 창립

불교인권위원회(공동대표 진관·지원·한상범)는 20일 인권법당 길상사에서 불교인권위원회 창립10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불교여성회 창립 등 앞으로의 활동계획을 밝혔다.

불교인권위는 이날 침체된 불교여성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불교인권위 여성분과위원회'를 '불교여성회'로 개편, 독립적인 사단법인을 추진하기로 하고 회장에 법성스님(전 청량사 주지)을 선임했다. <관련인터뷰 4면>

여성 불자들의 진취적인 활동을 통해 여성의 자아실현과 권익보호, 사회참여에 나서게 될 불교여성회는 앞으로 일본군위안부, 기지촌 및 직장내 성폭력, 가정 폭력, 농어촌·도시빈민 등 여성·소외계층 문제를 비롯해 남녀고용평등 및 가족법상의 남녀평등 실현에도 관심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불교인권위는 또 남·북한 및 해외 불자들과 함께 참여하는 '6.15 남북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불교연대'를 제안하고, 불자들이 민족 통일과업에 앞장서자고 주장했다. 김재경 기자

탈북자 경제체험

불교자원봉사련 '통일 씨앗 가족 2001'

불교자원봉사연합회는 12월6일 탈북주민의 남한사회 체험을 위한 '통일씨앗 가족 2001' 행사를 개최한다. 또 내년부터는 격월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해 사회로부터 소외된 탈북주민들에 대해 사회와 교계의 관심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탈북주민 50여명은 탈북주민 교육기관인 경기도 안성 하나원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로, 행사는 오전에 이들이 동대문시장에서 직접 물품을 구입하며 남한사회의 실물경제를 이해하는 현장학습 방식으로 진행된다. 오후에는 경복궁 관람을 통해 우리 문화 체험시간도 갖는다.

또한 서울 강북구 수유동 불교자원봉사연합회 사무실에 집결해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 동대문시장에 도착하는 것과 점심식사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남한사회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데도 중점을 두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불교자원봉사연합회 자원봉사자들이 탈북주민과 조를 이뤄 이들을 돕는다.

현재 국내거주 탈북주민은 500여명. 올해 들어서만도 140여명이 국내에 들어오는 등 계속해 늘고 있는 추세다. 하나원의 탈북주민들은 3개월간 교육을 받고 원하는 곳에 정착하게 되며, 자원봉사연합회는 두 달에 한 번 이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탈북주민 대부분에게 남한사회에 대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한명우 기자

불교·선·조계종 등 한글도메인 '뺏겨'

한글도메인 선점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불교계에서는 각 종단명과 조계종 25교구본사 및 관광사찰명 등이 선점된 것으로 드러났다.

선점된 한글.com 도메인에는 이외에도 불교, 선과 같이 한국불교를 대표할 수 있는 슈퍼 키워드도 섞여있다. 20만개가 넘게 등록된 한글도메인 가운데 선점된 한글도메인은 현대, 삼성, LG텔레콤 등의 기업명부터 뉴스, 주식, 증권, 정보, 대화방 등의 일반 명사와 서울, 대한민국 등의 고유명사까지 모두 4,000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한글도메인 선점 문제는 한글.com 도메인 등록을 주관하는 베리사인사가 한글도메인을 문자가 아닌 알파벳과 숫자로 이뤄진 코드값으로 등록하는 방식을 채택하면서 비롯됐다. 강지연 기자

조계종 포교대상에 지현스님



조계종 포교대상운영위원회(위원장 정련)는 21일 포교원 회의실에서 회의를 갖고 제12회 포교대상 수상자로 지현스님(봉화 청량사 주지·사진)을 확정했다.

지현스님은 어린이 청소년 일반신도포교를 활성화 하여 청량사를 경북 북부지역 포교도량으로 가꾸고, 제등행렬 행사를 온국민이 참여하는 국민축제로 승화시켰다는 공적을 인정받았다.

또 어린이 포교 분야에 해성(광림사주지) 덕진스님(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장), 청소년 포교분야에 박영동(동대부고) 교법사가 공로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원력상에는 지원스님(완주 송광사주지), 김관용(구미시장), 권장섭(서울지방경찰청), 이학송(광동여고 교감), 김광태(통해사 군법사), 머루와 다래(가수), 통도사 국제포교부가 각각 선정됐다. 시상식은 12월 16일 오후4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린다. 김원우 기자

부처님의 가르침과 큰 스님들의 말씀을 21세기 첨단의식공학 기법으로 새롭게 만나보십시오. 9일간의 자기 성찰 여행이 당신 안에 있는 또 다른 당신을 일깨워줄 것입니다.

한벗 아바타 센터

아바타 마스터 / 동시통역사 손인국 · 아바타 마스터 / 임상심리 전문가 김정원

연락을 주시는 분께는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서울시 노원구 상계 1동 12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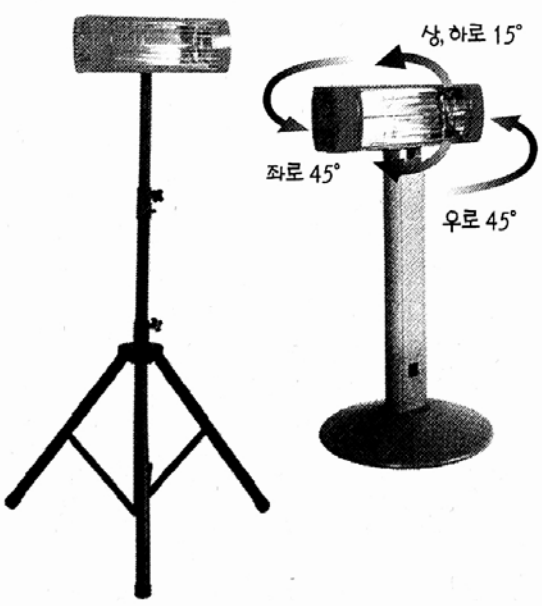
전화 : 02) 3392-0464 / 핸드폰 : 016) 271-2096

한국최초개발! 초강력 고효율 근적외선 히타 사찰에 인기폭발!

이동용
▶GQ-1000C(1.3kw)
▶GQ-2000C(1.8kw)

사무실,점포용 사찰전용

벽걸이용
▶GQ-1000W(1.3kw)
▶GQ-2000W(1.8kw)





『하나 더』 구입하고 싶은 히타!

주요제원
용 량 : 220V 1.8KW
220V 1.3KW
램프수명 : 9000시간
열 효 율 : 85~90%

근적외선(Near Infra Red NIR)이란?
근적외선 NIR은 첨단과학에 의하여 새로이 발견된 적외선 단파로서 2200℃이상에서 생성되므로, 직진성이 매우 좋아 사람들이나 정해진 대상에 복사에너지를 통하여 순간 난방을 제공하여 원적외선에 비하여 2배이상 고효율이므로 경제적이며 환경 친화적인 난방을 제공합니다.

◈ 사찰 또는 고지대에 계신분, 특히 체질적으로 추위에 약한 분이나 스님들에게 근적외선은 피하온열효과가 원적외선보다 3배나 우수하여 체력관리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

Gold Quartz Heater 이래서 좋습니다.
◆ 사람과 대상물만 난방이 되고 공기는 그대로 이므로 환기가 불필요한 쾌적한 난방효과
◆ 1초이내의 쾌속난방이므로 예열이 필요없습니다.
◆ 전기에너지의 거의를 열에너지로 전환하여 열의 낭비가 없으며 9000시간의 램프수명으로 매우 경제적입니다.
◆ 연소의 냄새나 오염이 없으므로 매우 위생적입니다.
◆ 어떠한 환경에서도 고도의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 각종 난방 가스로 인한 법당내부, 목재와 단청 손상을 방지해 줍니다.
◆ 이동이 용이하며 부분난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으므로 법회나 예불·기도시 매우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용도 : 사찰 공장 사무실 상가 기타업소 등

카다로그 필요 하신 분은 보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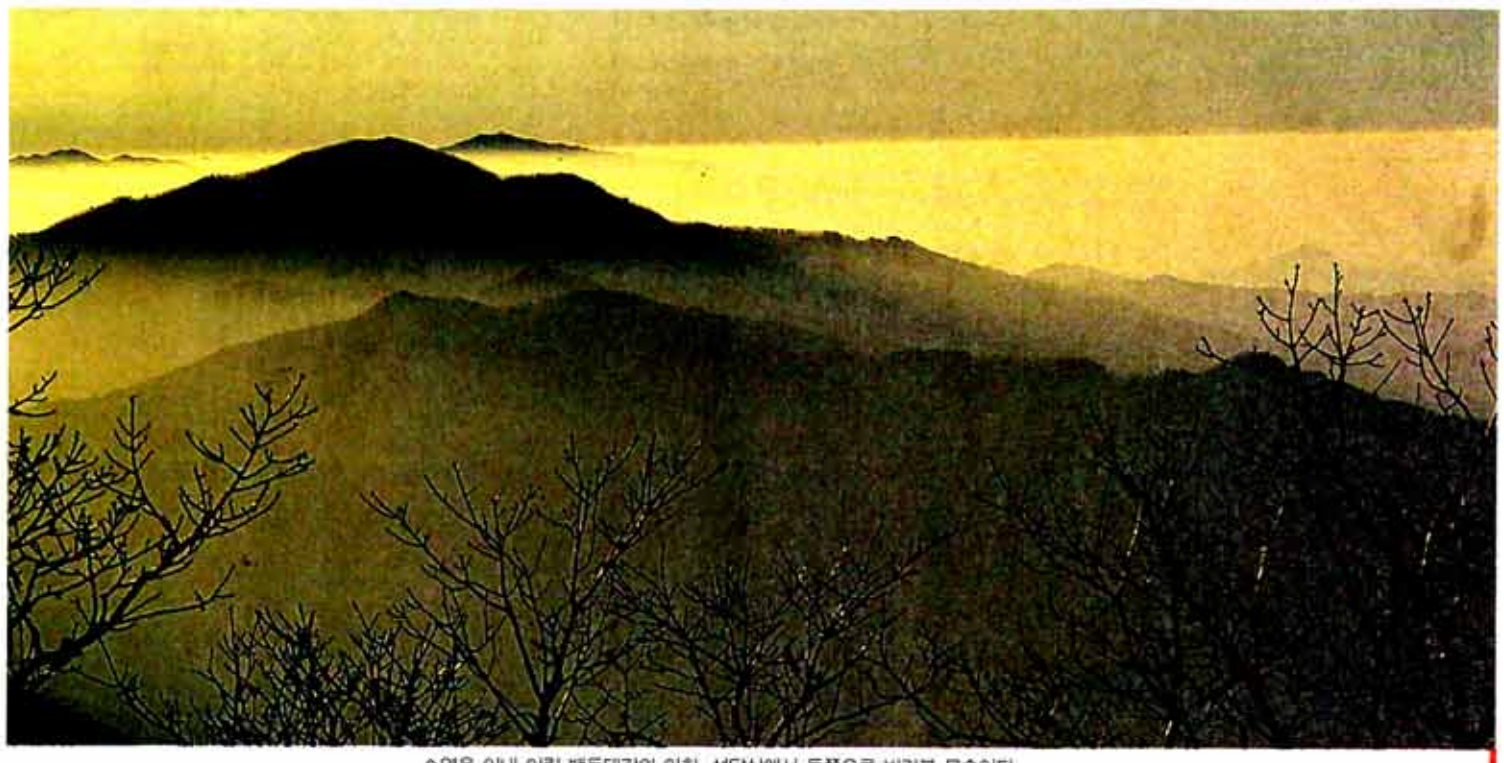
본 사 제조원 (주)성화엔터프라이즈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404 풍림빌딩 1221호

불교용품 전문점
판매원 가야기획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42
☎ : (02) 723-2729 / 732-2461 · 2550
Fax : (02) 732-2462

선달산에 겨울이 온다…하늘에서 땅으로



◇고치(재) 마루에 선 산신각. 소백과 태백의 두 산신을 함께 모시고 있다.



◇앞은 이내 어린 백두대간의 아침. 선달산에서 동쪽으로 바라본 모습이다.

백두대간 속으로 〈25〉

고치→선달산→도래기재

이내 속 선달산의 실루엣 신비롭기만
고치 산신각 소태백 산신 나란히 모셔

겨울은 어디에서 오는가. 삭풍을 따라서 북에서 남으로? 지도에 가로로 구불구불한 선을 그려 놓고, 단풍이나 첫 서리의 남하를 알리는 기상 통보관의 말을 따르자면 그렇다. 하지만 그걸 곧이 다 믿는 것은 조금은 게으르거나 낡은 생각이다. 저기 설악산의 머리에 서리가 내려앉을 때도 아랫자락의 양지바른 곳에서는 쑥부쟁이가 수줍은 웃음을 흘리기도 하고, 내장산에 단풍이 다 들기도 전에 지리산 꼭대기는 푸르름을 땅 속으로 저미기도 한다. 이렇듯 겨울은 수직으로 온다. 하늘에서 땅으로.

아직도 저잣거리엔, 아침과 한낮을 번갈아 겨울과 가을이 한살림을 하고 있건만, 산 높은 곳엔 이미 겨울이 깊다. 두터운 옷으로 몇겹을 감싸고도 모자라 잔뜩 웅숭그린 몸을 이끌고 그 속으로 스며든다.



◇선달산에서 박달령으로 향하는 길. 허허로운 백두대간의 숲길엔 벌써 겨울이 깊다.

다 벗어버리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나무들의 모습이 너무도 의연하다. 시간을 초월한 듯하다. 그 모습이 하도 높아 보여, 성큼 다가가 감싸안고 숨결을 나누어 본다. 하지만 내 몸의 더께는 나무의 맥박을 느끼기엔 너무 두껍다. 다시 몸을 옮겨 키 작은 나무들의 가지를 훑어본다. 잎눈들이 손바닥을 간지른다. 고밀도로 응축된 생명의 부피다. 그 속엔, 지난 봄과 다가올 새봄이 오롯이 함께 있다. 나무는 이렇게 영원한 오늘을 살건만, 나는 왜 지난 시간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다가올 미래에 안절부절못하는 걸까.

마디지을 수 없는 시간의 본질을, 순간이 영원인 도리를 겨울나무에게서 배운다.

이번 산행은 소백과 태백 사이, 이른바 양백지간으로 불리는 고치(재)에서 선달산(1236m)을 넘어 도래기재까지다. 도상거리로만 25km에 가까운 꽤나 부담스런 거리이지만, 우뚝한 두 산을 이어주는 구실에 충실하려는 듯 다수굿한 흐름을 보이는 육산이므로 큰 두려는 없다. 하나 산을 대하는 태도만큼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매무새를 가다듬게 하는 위엄을 지니고 있다.

시작 지점인 고치(760m)는 경북 영주시 부석면과 충북 단양군 단산면을 이어주는 고갯마루로, 이 고을 사람들 특히 단산면 사람들에게는 성스런 장소로 대접을 받고 있다. 산에 신령함이 깃들어 있다는 믿음은 인류 보편의 정서이지만, 산의 품에 안겨 산을 넘나들며 삶을 이어온 산마을 사람들에 있어 고개란, 단순히 한숨돌리고 다리쉼을 하고 가는 곳이 아니라 신앙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고치의 산신각에는 소백과 태백의 두 산신을 나란히 모시고 있다. 산이라는 지리 공간을 본질적으로 가 아니라 거대한 흐름으로 파악한 백두대간의 인식 체계를 새삼 확인하는 순간이어서 두 산신을 향해 넙죽 절을 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고치에서부터 키를 높이는 대간 길은 높이 950m인 첫 봉우리에 이를 때까지 허허로운 참나무 숲을 지나는 된비알이다. 여름 같았으면 극심한 고통을 안겼을 오르막이 오히려 추위를 줄여주니 반갑기조차 하다. 역시 고통에 대한 체감지수는 상대적인가 보다.

백두대간의 마루에서 벌빛과 눈맞춤하는 것으로 또 하루를 접는다. 내 삶의 나이테에 얼마만큼의 흔적으로 남을지 모를 참나에 불과한 시간이지만, 산과 함께 잠들고 산과 함께 아침을 맞을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 행복한 순간이다.

겨울 산 속의 아침은 태양의 위대한 힘을 실감케 한다. 미세한 높이의 변화에도 정직하게 반응하는 체감 온도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바위와 나무와 풀들의 표정은, 이 지구라는 생태계가 저 원초적 에너지의 분열어리에서 비롯됨을 알게 한다. 사족 삼아 한 마디 더 보태면, 생물계의 95%를 차지하는 1차 생산자로서의 식물은 '광합성'이라는 태양의 에너지를 머금는 일로 지상의 뭇 생명을 거두어 낸다.

다시 배낭을 꾸리고 선달산을 향한다. 잰 걸음이 아니어도 한 나절이면 족한 거리다. 그런데 아쉽게도 선달산은, 그 과문한 탓인지 모르겠으되— '선달(先達)'이라는 한량께 넘치는 이름의 유래는 물론이거니와 그 흔한 전설 한토막도 간직하고 있지 않다.

어쨌던 극심한 오르내름 없이, 이제는 옛 기억을 거의 잃어버린 미내치와 제법 넓은 길을 열어놓고 있는 마구령을 지나 각곳산을 올라 북쪽으로 몸을 틀면 선달산이 눈앞에 걸린다. 이우는 저녁 햇살을 등에 지고 선달산을 오르자니 엷은 이내 속에서 실루엣을 드러내는 산의 자태가 자못 신비롭다.

선달산의 조망은 딱 떠어나지는 않다. 정상 주위로 사람의 키를 넘는 나무들이 둘러서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일 떨군 나뭇가지 사이로 다가서는 태백과 함백의 우람한 자태는 발새 웅크렸던 몸을 활짝펴게 하기에 충분하다.

선달산에서는 편안한 내리막길을 두어 시간 가면 박달령이다. 경북 봉화군 물야면과 춘양면을 이어주는 이 고갯마루에도 산령각이 있는데, 고치의 산신각과는 달리 '박달령 성황신'을 모시고 있다. 이곳 또한 치성객들의 발길이 잦은 모양인지 산령각 안팎에 과일 등속의 제물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다. 큰 허물이 될 것 같지 않기에 성황신에 정중히 인사를 올리고 과일 한쪽씩 달게 얻어 먹었다.

다시 성황신께 작별 인사를 올리고 옥돌봉(1242m)이라는 예쁜 이름의 봉우리를 넘는다. 이름 치레를 할 양으로 정상에 선 몇개의 바위를 빼면 둥두렷한 육산이지만 쉼없이 오르는 형국이어서 은근히 힘이 든다.

옥돌봉에서 곧장 내려서면 강원도 영월군 상동읍과 경북 봉화군 춘양면을 넘나드는 도래기재다. 마침 고개를 넘던 트럭 짐 칸에 몸을 싣고 춘양면의 서벽마을로 향한다.

하산의 아쉬움보다는 다음에 오를 태백 생각에 벌써 가슴은 달뜬다.

글=윤제학 기자
사진=손재식(사진작가)

새천년의 발원 - 온 국토를 장엄 하겠습니다

등을 밝히자

스스로 등불삼고, 스스로를 의지처로 하여
남을 의지처로 하지 말 것이며,
진리를 등불로 삼고 진리를 의지처로 하여
남을 의지처로 삼지 말라. 【방등경】

찬덕 연등은 최고 품질과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 각 사찰이름 인쇄시 30일전에 미리 주문 부탁드립니다.(만월등)
- 연등의 종류별로 영가등이 있습니다.
- 연등용 전선 케이블 - 원하시는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 · 시공하여 드립니다.

팔모주름등



(빨강) (연두) (노랑)

공단등



(빨강) (노랑) (오색)

팔모조립등



팔모조립등 보관형태(팔모주름등) 육각등

만월등



(핑크) (노랑) (오색)



찬덕 연등제작사

전화 : 031)792-6288, 794-4055 / FAX 031)794-6288
주소 :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180-1

연꽃잎 제조특허(특허 제122168호) /
팔각등 실용신안(등록 제098634호)외 의장등록 다수 보유업체